

강진호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문열 소설 연구

- 낭만성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미옥

# 이문열 소설 연구

- 낭만성을 중심으로 -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미 옥

# 인 준 서

김미옥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고의 연구 목적은 이문열 소설의 낭만성을 밝히는 데 있다. 지금까지 이문열의 작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문열의 작품세계를 관류한다고 판단되는 ‘낭만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낭만성’이라는 용어는 문예사조인 ‘낭만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신고전주의의 객관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특징과 대치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주관적 창조성을 인정하여 자기의 주관성 속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정신 운동이다. 이러한 ‘낭만성’의 특징으로 현실에 대한 주관적 자아의 부정적 현실 인식과 부정적 현실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인 세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해 가는 주관적 자아의 행보를 들 수 있다.

이문열은 작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억압에 맞서는 자유의 추구를 든 바 있는데, 이문열 문학의 낭만성은 이와 깊이 관련된 것이다. 이문열은 틀에 얽매는 것을 거부하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한 방법으로 개성이나 인간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중시 한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문열 소설 속의 주관적 자아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나 외부세계의 압력과 통제에 언제나 가로막힌다. 세계와 자아의 불화,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화와 갈등의 상황을 넘어서고자 하는 지향성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이문열 문학의 낭만성을 형성한다. 이문열에게 있어 낭만성은 현실 도피가 아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내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먼저 작가의 가계와 생애를 역사·전기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작품 분석을 통해 작가의 문학관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작가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가계와 생애, 그리고 문학관을 통해 살펴봄으로 작가의 내면을 유추해낼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의식이 작품에 투영되어 있

어 작품 분석을 통해 이문열 문학을 관류하는 낭만성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작가와의 직접 면담에서 얻은 정보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문열의 낭만성의 양상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가 낭만성을 갖게 된 연원을, 아버지의 부재와 보상심리, 선민의식과 사회적 불화, 고아의식과 ‘먼곳’에 대한 동경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명문가 후손으로서의 선민의식이 강한 작가는 정규교육과정을 밟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독서와 독학으로 학문을 수양하고, 아버지로 인해 몰락한 집안을 회복하기 위해 사범고시를 준비하는 등, 현실을 도피하기 보다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가 그토록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부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고아의식과 ‘먼곳’에 대한 동경이 그의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요인들이 낭만성향을 길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문열 소설의 낭만성의 양상을 소설의 주제적 특성과 문체적 특성으로 나누고 낭만성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주제적 특성을 이상주의적 열정과 휴머니즘, 유교와 현모양처의 삶,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상주의적 열정과 휴머니즘은 작가의 가족들과 작가를 오랫동안 압박해온 사회적, 문단적 현실에 대한 입장을 소설을 통해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작가의 낭만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문열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1980년대는 ‘민족 민중운동’으로 대표되는 운동의 문화, 이념의 문화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시대로 당시의 지배 이념인 사회적 리얼리즘에 충실한 작품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문열은 반이데올로기적 노선을 분명히 드러낸 『영웅시대』를 통해 보수주의로 돌아선다. 연좌제의 비극 속에서, 공포와 죄의식과 제도의 압박을 들끓어처럼 씩씩하게 견뎌내고 지명도 높은 소설가로 입신한 당시의 작가적 위상

을 감안할 때, 그러한 입장 표명은 문단적 과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문열에게 있어 반이데올로기적 행보는 변혁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요인을 소설 『시인』의 주인공인 김병연의 행보와 작가의 삶의 궤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김병연이 대역죄인의 자손으로 평생을 번민 속에서 시를 읊으며 떠돈 삶과, 작가 이문열이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에 입당하고 월북한 대가로 억압 받으며 잦은 이사와 우여곡절 끝에 소설가로 살게 된 삶은 유사하다. 김병연이 과거에 급제하고 아무런 가책없이 일상에 안주하여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했다면 아마도 그는 신분을 회복하였을 것이며, 사회 지배계층의 관리가 되어 권력과 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배 체제와 가장과 자식으로서의 책무로부터 일탈하고 자유를 선택하여 시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한다.

이와 달리 작가가 된 이문열이 현실 혹은 자신의 내면과 화해를 시도하는 행보로 가슴 깊이 묻어둔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꺼내며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밝히며 보수주의자로 돌아서는, 그 배경을 작품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문열은 아버지가 이상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선택한 이념을 비판하며 휴머니즘을 지향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문열 소설 『선택』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의식과 현모양처의 삶을 살펴보았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양상보다는 한 집안 혹은 한 가문의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양상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문열은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다. 작가의 가부장의식은 유교이념과 재령 이씨 가풍(家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적 가족생활에서 남성에게 의한 여성 종속의 논리가 정당화된 상황에서만 가족의 숭고성은 유지되며, 이럴 때 여성은 언제나 남성 주체의 타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의 타자임을 인정하고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한에서만 직업적인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택』은 페미니즘 소설이 주류를 이루던 시점에 이문열이 발표한 작품으

로 이문열의 13대 할머니 정부인 안동 장씨의 인생을 모델로 쓴, 작가의 가부장 의식과 현모양처의 삶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을 통해 현대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여인상을 역사 속에서 발굴하려던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켜 발간과 동시에 한동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문제적 소설이다. 여성운동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던, 작가의 의식과 현모양처의 삶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문열 소설에 드러나는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을 그의 예술가 소설 「들소」, 「금시조」, 『시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소설 중에서도 특히 예술가 소설을 통해 이문열의 낭만적 인생관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문열 문학세계의 바탕이 되는 낭만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했다. 그는 예술을 공리적·실용적인 도구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분명한 존재이유와 자기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예술소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가가 예술이 예술외적인 어떤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소설 『시인』에서 이문열은 시란 과연 무엇이며,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시는 그 자체가 어떠한 쓰임과도 관계없는, 스스로 자유와 충만을 주는 자족적인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소설가인 이문열에게 있어 소설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자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 소설이란 현실생활에서는 울분과 한을 풀어낼 길 없는 외로운 영혼이 예술(소설)로 지고한 곳에 다다르고자 하는 낭만적 지향의식, 즉 예술의 표출이요 자기완성의 삶을 살려는 의식을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문열 소설의 문체적 특징은 그의 낭만지향적인 문학 세계와 관계가 깊다. 그의 소설에는 리얼리티의 추구보다는 관념적인 것, 즉 ‘낭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작가는 치밀한 묘사와 자신만의 문체를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문체적 특징은 감성적이면서 지적이며, 유장(悠長)

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잘 읽힌다. 그리고 그의 문장은 논리적이고 정확하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이문열의 문체적 특징을 1) 유가 교양과 현학적 문체 2) 율문과 의고체 3) 유미적 미문체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의 소설이 현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그의 장르를 넘나든 엄청난 독서량과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경험, 그리고 당음(唐音)을 외며 익힌 율격과 서정성이 그에게 율문과 의고체, 그리고 미문의식을 형성하게 하여 그것이 유미적 문체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로서 이문열 소설을 읽고 분석한다는 것은, 작가의 독특한 인생체험의 소산인 소설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반추하고 이겨내며, 작가의 지향의식에 기대어 한 번뿐인 인생임으로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실존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가치박탈, 낭만성, 이데올로기, 휴머니즘, 가부장의식, 자기완성의 삶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5
3. 연구방법 및 범위 .....	14
II. 삶과 문학 .....	23
1. 가계와 생애 .....	23
2. 문학관 .....	48
III. 낭만성의 연원 .....	61
1. 아버지의 부재와 보상심리 .....	61
2. 선민의식과 사회적 불화 .....	66
3. 고아의식과 먼 곳에 대한 동경 .....	72

IV. 낭만성의 양상 .....	81
1. 주제적 특성 .....	81
1) 이상주의적 열정과 휴머니즘 .....	81
2) 가부장의식과 현모양처의 삶 .....	98
3)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 .....	116
2. 문체적 특성 .....	149
1) 유가 교양과 현학적 문체 .....	150
2) 율문과 의고체 .....	156
3) 유미적 미문체 .....	161
V. 결 론 .....	16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I. 서론

## 1. 연구목적

문학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양상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다. 문학을 창출하는 작가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시대의 담론에 대하여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때문에 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문학은 ‘상상적 언어를 매체로 하여 인간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예술이면서 동시에 철학의 몫을 하고 있으며,<sup>1)</sup>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양상과 시대상을 담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산물인 문학을 창출해내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의식 혹은 성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작품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창작 주체인 작가와 작품 형성의 토양이 되는 배경을 서로 관련시킴으로써 작가의 성향과 문학관, 나아가 작품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문열은 단편소설 「나자레를 아십니까」로 1977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입선하고, 중편소설 「새하곡(塞下曲)」이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이후 『사람의 아들』, 「들소」,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어둠의 그늘」, 『황제를 위하여』, 「달팽이의 외출」, 「이 황량한 역에서」, 『영웅시대』, 『변경』 등 많은 소설 외에 산문도 집필하였고, 『삼국지』 평역과 「여우사냥」이라는 희곡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2005년 현재까지 발표작이 60여 편에 이르며 그의 관심은 소설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현란한 문체와 해박한 지식이 뒷받침된 능란한 이야기로 풀어내어 폭넓고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여 명성을

---

1)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2, p.43.

얻고<sup>2)</sup> 있다.

우리 시대의 광범위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성공한 작가지만 한편 비평적으로 이문열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가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를 이태동은, 이문열이 짧은 기간동안에 탁월한 필치를 갖고 쓴 엄청난 양의 작품을 통해 독자를 끌어들이는 모멘텀이 기성 문단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너무나 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추구한 작품세계가 무서운 80년대가 저물어 가도록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태올로기 중심의 리얼리즘 세계에서 벗어나 실존적인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깊이 천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라고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문열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1980년대는 ‘민족 민중운동’으로 대표되는 운동의 문화, 이념의 문화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시대였다.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은 군부 독재의 기만과 탄압에 대하여, 사회 계층간의 갈등과 외세의 지배 메커니즘에 대하여, 분단과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 그리고 여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시대의 큰 흐름이었던 리얼리즘 세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sup>4)</sup>는 비판을 받았다. 리얼리즘 세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는 부

---

2) 그의 모든 소설들이 출판되는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현존하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을 거의 수상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1979년에 『사람의 아들』로 제3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 1982년 「금시조」 제15회 ‘동인문학상’ 수상, 1983년 『황제를 위하여』로 ‘대한민국 문학상’ 수상, 1984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제11회 ‘아동문학상’ 수상, 같은 해 「시인과 도둑」으로 제37회 ‘현대문학상’ 수상, 1992년 정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문화상’ 수상, 1998년 「전야, 혹은 시대의 마지막 밤」으로 제2회 ‘21세기 문학상’ 수상. 이외에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독자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작가적 명성을 알 수 있다.

3) 이태동 편, 「자아의 문학과 寓意的 美學」, 『이문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p.7.

4) 이문열은 작품의 소재를 취함에 있어서나 인물 설정을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즉 『미로일지』, 『구로 아리랑』 같은 작품이 있긴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소외 계층, 시대의 모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물들을 다루

분<sup>5)</sup>은, 좌익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간 남로당원이었던 부친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이고 가족사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일가를 이루고 온 갖 가치 박탈의 체험을 겪은, 그의 삶에 대한 철학과 문학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그가 리얼리즘 세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억압처럼 미치는 힘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는 견고히 자기세계를 구축하였다.

이렇듯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의 소설들이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켜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는데, 그러면 이문열 소설의 바탕을 이루는 본질은 무엇일까?

이에 연구자는 이문열 소설의 본질을 낭만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문열에게 있어 낭만성은 세계관의 문제로서 작가의 역사관, 인생관, 사회관 등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이문열의 가장 빛나는 매력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문열의 낭만주의는 고단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고, 어리석은 순수주의자의 맹목적 현실 추구도 아닌,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와 이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 그는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고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순수한 열망을 저해하는 현실을 비

---

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80년대 상승된 노동운동에 대해 이문열도 얼마간 위기의식을 가졌는지 공장 노동자의 생활을 다룬 『구로 아리랑』을 썼으나 이 작품의 평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그 본질은 노동의식을 폄훼하고, 노동자의 무지와 노동운동을 비꼬기 위해 쓴 냉소적인 작품’이라는 혹평에 가까운 평가이다.(김영, 「황석영 이문열 소설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94)

5) 이에 대해 이문열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리얼리즘, 특히 사회적 리얼리즘이 현대 소설문학의 한 중요한 지류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소설문학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아니다. 그런데도 요즈음 보면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을 답으로 고르지 않은 사람은 작가도 문인도 아닌 것으로 비치는 듯하다 <중략> 사회적 리얼리즘을 등에 업지 않아도 소설은 얼마든지 씌여질 수 있다. (이문열, 「작가의 말」,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문이당, 1989, pp.11-12.)

관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문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리얼리즘 소설이 대세였던 문학풍토 속에서 그의 소설이 여타 작가의 소설과 변별되는 특성은 그가 체험한 모태공간의 환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그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쳐 작품을 통해 지향의식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문열이 현존하는 인물이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이고, 선행 학위 논문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어느 한 측면만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의 소설의 주제와 관련하여 ‘낭만성’이라는 본질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문열 소설의 주제와 관련한 ‘낭만성’에 대한 본질을 밝혀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사를 검토한 후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낭만성의 의미를 규정하고 작가론과 작품 연구 중심으로 진행될 연구 방법을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작가 이문열을 이해하기 위해 II장에서 그의 가계와 생애, 작가의 문학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한 뿌리의식은 영남 남인을 대표했던 가문에 대한 자긍심과 가풍에서 유래하며, 그러한 선민의식은 그의 작품 전체에 드러난다. 따라서 작가의 모태공간인 가계를 살핌으로써 잠재된 그의 의식을 들추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생애를 추적함으로써 그의 삶이 그의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작가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 이문열의 낭만성의 연원을 살피기로 하는데, 그것은 작가의 의식을 지배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작가의 낭만성의 연원을 1. 아버지의 부재와 보상심리 2. 선민의식과 사회적 불화 3. 고아의식과 ‘먼 곳’에 대한 동경으로 나누어 살펴 작가의 내면을 지배하는 낭만성의 동인을 면밀히 탐색해 보겠다.

IV장에서는 이문열 소설을 1. 주제적 특성과 2. 문체적 특성으로 나누어 이문열의 낭만성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문열 소설의 주제적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자는 이문열 소설에서 드러나

는 주제적 특성을 낭만성과 관련하여 1. 이상주의적 열정과 휴머니즘 2. 가부장의식과 현모양처의 삶 3.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으로 세분하여 작품 분석을 통해 낭만성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문열의 소설이 출간됨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요인을 분석해보면, 그의 소설은 현학적이고 재미가 있으며, 유창하고 교양적인 체험과 아울러 서정성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문열의 고도의 의도된 창작 기법은 그의 문체 전략 속에서 파악된다. 연구자는 본고에서 그의 문체적 특성을 1. 유가 교양과 현학적 문체 2. 율문과 의고체 3. 유미적 미문체로 나누어 작품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문열 소설에서의 낭만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작가 이문열이 탄생하게 된 배경, 가계와 생애, 문학관은 어떠한가. 무엇이 이문열로 하여금 낭만성향을 가지게 하였는가. 그리고 그의 낭만성은 소설의 주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문열의 소설이 여타 작가의 그것과 견주어 말할 때 변별되는 것으로 문체적 특성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의 소설의 문체적 특성은 어떠한가. 문학사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또한 이념이 지배하였던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도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명성을 얻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궁금증은 일련의 연구 작업을 통해 해소될 것이고, 그로인해 이문열 소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의 작품이 갖고 있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이문열에 대한 연구를 보면 비평적 글은 다수 있으나 학문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평문을 포함하여 기존에 발표된 논의들과 학술논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문열 소설의 등장 인물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학자로 신동욱, 김

경수, 김옥동을 들 수 있다. 신동욱은 이문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문제의식을 안고 있는 지식인 군상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히 왜곡되었거나 소외된 층으로서 시대의 변천에서 따돌려진 장인들이나 소시민 스스로 쌓아올린 이기주의의 갑갑하게 제한된 테두리 속에 갇힌 왜소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격동기를 살면서 삶을 빼앗긴 보통 사람들로써 정신적 방황이나 공포의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혹은 겉으로는 정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지만 안으로는 자기기만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며 삶 속에 내재된 모순을 들추어낼 만한 인물들이라고 신동욱은 지적하였다. 또한 작품에 대해서는 순수이념을 실현하는 것,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애호의식, 도덕의식의 고양,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 등 4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sup>6)</sup>. 한편 김경수는 『영웅시대』와 『황제를 위하여』라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설 주인공이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갈망과 그가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무질서한 현실 세계 사이에는 숙명적인 어긋남이 존재하게 되는데, 세계가 더 이상 주인공의 기대와 갈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어긋남의 세계를 부조리한 세계라고 하였다. 이문열 소설의 인물들은 이러한 어긋남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세계에 대한 도전과 갈등의 연속을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세계와의 괴리와 어긋남이라는 숙명을 그리고 있다<sup>7)</sup>고 하면서 인물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이상과는 철저히 배치되는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세계와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자각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살폈다. 한편 김옥동은 이문열 소설의 주인공들은 실존주의적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가치 체계나 이념에 대해서 일종의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며, 외부 세계가 부여하는 모든 가치 체계를 벗어나 참다운 개성을 실현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sup>8)</sup>고 하면서 이문열 소

6) 신동욱, 「시대의식과 서사적 자아의 실현문제」, 이태동 편, 『이문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참고.

7) 김경수, 「부조리한 세계와 소설의 주인공」, 『이문열론』, 삼인행 편집부 편, 1991, p.146.

8) 김옥동, 『이문열』, 민음사, 1994, p.26.

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실존주의 철학 위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문열 문학의 현실인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실로 다양하다. 먼저 작가의 현실인식과 관련지어 낭만주의는 그의 작품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어가 된 듯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문열 문학을 처음으로 논의한 비평가로 유종호를 들 수 있다. 그는 이문열의 초기작 「그해 겨울」을 두고 젊은 날의 외로움과 반역의 꿈을 이처럼 맑고 구김살 없이 펼쳐 보인 내면적 낭만주의는 우리 문학에 있어서는 보기 드물다<sup>9)</sup>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낭만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이문열의 세계관을 논의한 이동하는 ‘이문열의 전 작품을 통독할 때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현저하게 낭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송재영·유종호 등 여러 평론가들에 의하여 지적되어온 사실이거니와, 여기에는 단순히 작가 개인의 기질이라든가 기법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복해 있다. 이문열에게 있어 낭만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의 문제로서, 작가의 역사관, 인생관, 사회관 등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하여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 작가의 가장 빛나는 매력을,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한계점을 형성한다<sup>10)</sup>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남호도 순도 높은 낭만주의야말로 이문열 문학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며 이문열의 낭만주의는 고단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도 아니고 어리석은 순수주의자의 맹목적 현실 추구가 아닌, 그의 낭만주의는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의 투철한 세계 탐구에 가깝다<sup>11)</sup>고 피력했다. 그리고 성민엽은 이문열의 낭만주의는 표면적 분석에 불과하며, 그 기저에는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와 이념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개인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복잡한 회로를 거쳐 그 열망을 저해하는 현실에 대한 순응과 옹호로 전락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며 이것이 곧

---

9) 유종호, 「도상의 문학」,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p.367.

10) 이동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 『이문열』, 이태동 편,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pp.150-151.

11)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문학의 위족2』, 민음사, 1990, p.96.

‘비판하면서 수락하기’ 라는 이문열 문학세계의 한 특징을 이룬다고 지적<sup>12)</sup>한다. 이문열의 낭만주의에 대한 성민엽의 성찰인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와 이념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다’ 는 관점은 연구자의 논문 방향과 관련이 있다.

이외에 권성우는 『사람의 아들』로부터 『영웅시대』에 이르는 이문열의 주요 작품들을 관류하는 세계관의 갈등 구조에 대해 ‘당대의 사회적 배경 및 독자 계층의 문제와 연루시켜 조명’함으로써 이문열 문학의 총체적 면모를 드러내는 본래적 의미의 작가론에 다가서고 있다<sup>13)</sup>고 한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이문열 소설의 핵심구조가 ‘1980년 5월의 역사적 격변 후에 허무주의, 실존주의, 가치의 상대주의 등에 경도되었던 집단의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입론을 편다.

리얼리즘 입장에서 논의한 학자로 정호웅과 김명인을 들 수 있다. 정호웅은 리얼리즘 입장에서 이문열의 『영웅시대』를 읽어내고 그 관념 편향적 창작 방법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관념 편향성을 ‘이문열 문학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성격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이는 창작 방법상으로 작가의 작품내 전면 개입(인형조종술)으로 이어짐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창작 방법은 리얼리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실의 왜곡과 추상화’, ‘구성의 파탄과 인물의 추상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함을 작품을 통해 입증한다. 나아가 이런 관념 편향적 창작 방법은 특히 장편 소설에 있어서는 파탄적인 악영향을 끼침을 선고하고 있다.<sup>14)</sup>

김명인은 이문열의 소설들이 80년대 민중 항쟁의 간절함, 희망과 좌절의 열기에 용케 감염되지 않고 일관되게 냉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반문화’로 구

---

12) 성민엽, 「개인과 자유를 향한 열망」, 『문학의 빈곤』, 문학과 지성사, 1988, pp. 227-233.

13) 권성우, 「이문열론 - 세계관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신문』, 1985, 12. 12.

14) 정호웅, 「관념 편향적 창작 방법의 한계」, 『반영과 지향』, 세계사, 1995, pp.150-164 참조.

축되어 왔다<sup>15)</sup>고 지적하고, 이 반문화적인 사실이 ‘재미와 교양’으로 호소력을 지녀 대중성을 확보하여 독자들에게 다가가 탈현실의 사상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문열을 ‘이념의 망령에 들어 있는 작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념 혐오가 아버지의 이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는 이문열을 기본적으로 허무주의자이며 문학으로 허무주의적 반이념 투쟁에 헌신해 온 작가라고 보았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과감한 명제에 맞서며 반론을 제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sup>16)</sup>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학이란 본질적으로 금기에 도전하는 형식이고 끊임없이 그 금기를 침범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이지만, 그 금단의 베일을 벗긴 작가는 오히려 그 금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혹독한 시련과 탄압에 직면하기 마련’<sup>17)</sup>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이문열은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 소설의 다원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달리 평가할 수 있겠다. 시대의 산물로서 시대의 내면 풍경을 드러내는 문학은 역사적 통시성과 사회사적 공시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투철한 작가 정신으로 대단한 무엇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문학을 내놓는다 해도, 시대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때문에 이문열은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었던 리얼리즘 세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문열의 역사의식에 대해 논의한 권순궁은 양반 사대부 문화의 정신적 교양의 측면에 대한 이문열의 과도한 정도에서 이문열이 중세의 귀족주의를 계승한 서구의 정통 부르조아 문학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봉건 양반 문화 전통을 계승한 부르조아 문학을 꿈꾸는 게 아닌가<sup>18)</sup> 하는 물음을 던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송성욱도 비록 조선조가 인간의 행복을 한 치도 보장할 수 없었던 사회라 하더라도 사대부정신은 이 시대의 진정한 군자의 도를 회의하게 하는

15) 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 찾기」, 『이문열』 류철균 편, 살림, 1993, p.206.  
 16) 김종회, 「거대 담론의 숲과 미시 담론의 나무」, 『문학의 숲과 나무』, 민음사, 2002, p.280.  
 17) 강진호, 『탈분단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p.148.  
 18) 권순궁, 「중세 보편주의에의 향수와 신식민주의의 망론」, 《문학의 시대 4집》, 인동, 1988, 참조

지침이 되는데, 이문열은 소멸해 가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수식어가 달린 복고주의, 즉 조선 사대부 의식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sup>19)</sup>고 하였다. 특히 그의 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에서 고향의 모습은 사라져 가는 문중, 특히 가부장제의 부권 강조와 문중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설 기법적 측면에서 이동하는 ‘능란한 이야기꾼의 솜씨’<sup>20)</sup>를 가졌다는 것에서 그의 문학이 지니는 특성을 말한다. 이문열이 여러 소설에서 플롯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이야기꾼으로서 타고난 역량이 있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며, 일정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소설 장르에 있어 능수능란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소설가의 능력이기도 하다. 이문열이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한 플롯은 격자소설이라고도 하는 상감기법과 갈등구조의 반전 기법을 들 수 있다. 상감기법은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박아 넣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야기들끼리 친화, 충돌 등의 양상을 나타내며 복잡하게 전개되어 줄거리와 주제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나, 주제나 이야기를 독자가 다층적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 즉 그의 ‘능란한 이야기꾼의 솜씨’는 플롯 구성이 다분히 기계적이고 도식적이라는 점과 함께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읽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갈등구조의 반전기법은 소설 속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이항대립적인 구도의 갈등 상황을 그리고,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야기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작가는 이야기의 흐름상에 복선과 반전의 기법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빠져들게 한다.

소설의 소재에 대한 논의로 유종호는 그가 다양한 소재를 택하며 그 소재에 관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sup>21)</sup>고 평한다. 물론 혹자는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

---

19) 송성욱, 「이문열의 고향 의식과 사대부 정신」, 『이문열』, 류철균편, 살림, 1993, pp.55-57.

20) 이동하,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p.166.

21) 유종호, 「능란한 이야기 솜씨와 관념적 경향」, 『이문열론』, 삼인행, 1992,

물 설정에 대해 노동자나 농민 같은 소외 계층과 시대의 모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인물이 부재하며 이를 두고 그가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미로의 날들」, 「오디세이아 서울」, 「구로 아리랑」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것으로 볼 때 그의 관심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그가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해도 그의 선민의식으로 인해 진정 노동자나 무산계층의 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적 관심이 깊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문열이 80년대 문학 흐름에 적극 동참하지 않음으로 해서 냉소적 거리를 유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이지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이문열은 종교와 신학, 군대생활, 노동자들의 삶, 고아원의 생활, 감옥생활, 알타미라 벽화, 예술의 세계 등 그야말로 다양한 소재를 취했으며, 다양한 소재 못지않게 그 소재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란의 한 가운데에서도 견고히 독자적인 문학 활동을 한 이문열의 소설이 현대소설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소설적 주제의 영역을 포함하여 기법적인 면에서 기존의 소설과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형성한 이문열은, 소설을 통해 역사적인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인간 개인의 희노애락보다는 냉혹하고 부조리한 역사의 운동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리얼리즘을 넘어선 곳에서도 언어로 만들어 내는 풍요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인식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문열에 대해 연구된 학술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지아의 연구<sup>22)</sup>는 「새하곡」에서 92년에 발표한 『변경』 2부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작가의 세계관이 허무주의나 낭만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관념

---

p.57.

22) 정지아, 「이문열론 - 작가의 현실인식의 틀을 중심으로」, 중앙대대학원 석사 논문, 1996.

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의 틀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문열의 문학세계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조건의 악화나 그에 따른 대중의 봉기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있게 한 말씀, 곧 관념이며 그렇게 삶의 구체적 조건을 삭제한 세계, 즉 정체된 세계에서 그 관념은 파괴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관념론적 세계관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단절을 구모룡<sup>23)</sup>의 설명을 빌어 예술 지상주의와 설화성이라는, 두 가지 각기 다른 ‘비껴섬’이라는 말로 정의내리고 있다.

김태준은 이문열의 중·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인물의 유형과 플롯의 특징, 시점과 문체, 모태 공간과 작가 의식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sup>24)</sup>

조영일은 이문열의 소설을 유년시절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기를 형성하여 자유로운 인간의 존재방식을 탐구하는 성장소설, 교양소설 장르라고 정리하면서 『사람의 아들』, 『젊은날의 초상』, 『영웅시대』, 『변경』 네 작품에 관통하는 아버지의 의미를 조명하였다.<sup>25)</sup>

김영은 황석영과 이문열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는데, 그는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될 때 양진영의 중심으로 대비되었을 뿐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서 언론과 방송에서 이 두 작가를 맞세워 거론하는 일이 많아졌음에 비교 연구의 가치를 밝히며, 그 연결고리를 이데올로기에서 찾아 황석영과 이문열의 이데올로기 기원, 이데올로기의 이정표, 정치권력 이데올로기, 경제 이데올로기, 역사 이데올로기, 예술가 소설에 나타나

---

23) 구모룡, 「난폭한 세계와 비껴섬의 의미」, 『구체적 삶과 형성기의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8, p.264.

24) 김태준은 인물의 유형과 플롯의 특징에서 이문열의 소설 속에서의 인물들은 ‘정신적 우월감을 고양하는 인물’, ‘하위적 자기 패배의 인물’, ‘실존적 현장의 인물’, ‘세계와 어긋난 문제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플롯의 특질로 상감기법을 주로 구사함과, 순환적 병렬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갈등을 이항대립적으로 배치하여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평한다. (김태준, 「이문열 중·장편 소설 연구」, 안양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25) 조영일, 「한국근대교양소설 연구 - 이문열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는 이데올로기 등,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문열에 관한 평문들을 일별해 볼 때 인상주의 비평과 심리비평, 그리고 역사·전기 비평, 사회학적 비평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상주의 비평의 경우 한 작품을 두고 좋고 나쁘다는 인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좋고 나쁜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예가 드물다. 그리고 심리비평을 한 몇몇 비평가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부정적 아버지 콤플렉스’를 거론하며 이문열 문학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상실은 곧 역사에 대한 혐오를 가져왔다고 단정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띤다. 역사·전기 비평문<sup>26)</sup>을 읽어보면 실제로 작가 이문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나, 작가의 의식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가족사 외에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인 교육의 정도 그리고 직, 간접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음을 수용할 때, 이문열 문학의 본질을 밝히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문열 문학을 연구하는데 많이 적용한 사회학적 비평이 있는데, 이 비평의 주 내용은 이문열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의 시대상황을 거론하면서 이문열의 소설을 게오르그 루카치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문열 소설에 대하여 인물 연구, 현실인식과 이데올로기, 세계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비평가들의 활발한 논의에 비해 학술적인 연구논문은 소수<sup>27)</sup>로 미미한 편이며, 대부분 작가론 중심의 내용 쪽에 편중되어

- 
- 26) 류준필, 「개인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류철균, 「이문열 문학의 전통성과 현실주의」,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안건혁, 「이념에 찢긴 이문열 가족사 - 이문열과 자전소설 『영웅시대』」, 《政經文化》, 1984, 12.
- 27) 정지아, 「이문열론 - 작가의 현실인식의 틀을 중심으로」, 중앙대대학원 석사논문, 1996.  
김태준, 「이문열 중·장편 소설 연구」, 안양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조기연, 「이문열의 변경(邊境) 연구」,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1.  
윤광옥, 「이문열 소설의 회고적 구성 연구」, 동덕여대 여성개발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명희, 「이문열 소설의 순응주의적 성격」, 동의대학교 석사논문, 2003. 8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식에 관한 논의의 경우도 개괄적이어서 이문열 문학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가 비록 도상에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그의 소설 작품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며 개괄적인 접근보다는 체계적인 주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이문열의 소설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림으로 비유할 때 바탕색이라는 ‘낭만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검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평자들에 의해 이문열의 낭만주의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그의 문학 세계를 지배한다는 낭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낭만성의 연원 무엇인지, 낭만성과 관련한 소설의 주제와 문체적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해 낭만주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먼저 한 후, 이문열 소설에서의 낭만성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이문열의 낭만성의 연원을 1. 아버지의 부재와 보상심리 2. 선민의식과 사회적 불화 3. 고아의식과 ‘먼곳’에 대한 동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작가의 낭만성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주제적 특성과 문체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작가의 의식형성과정과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탐색이 될 것이며, 그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그의 작품에 관류하는 낭만성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이문열 소설의 낭만성을 밝히는 방법으로 작가의 가계와 생애, 그

---

김영, 「황석영 이문열 소설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5. 2.

이인숙, 「이문열 소설 『선택』에 나타난 여성관 연구」,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리고 문학관을 고찰함에 있어 역사·전기적 연구<sup>28)</sup> 방법을 적용하고, 면담을 통해 사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작가와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작가의 사상이나 전기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 역사·전기적 문학연구 방법이 창작의 배경과 가치평가를 혼동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독자의 수용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이며 그 핵심은 주인공과 주요 인물들의 삶의 의미를 탐색해내는 과정임으로, 작가가 형상화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소설가가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그림에 있어 사회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인간이나 특정한 방식의 인간관계를 비중 있게 다룬다는 사실은 그 배후에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작가의 시선이 깔려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설가는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작품을 창작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설에 있어 작가의 사상이나 세계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즉 ‘인생을 말하되, 자신이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 것인가처럼 소설가는 또 하나의 인생을 설정한다’<sup>29)</sup> 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며 해석해 나가는 그 배후에는 항상 작가의 세계관이 뿌리로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낭만성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의식의 산실인 모태공간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작가의 낭만성의 뿌리는 그의 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의 생애와 문학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의 세계관, 즉 잠재적이건 표면적이건 작가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다각도로 유추해

28) 이문열을 역사·전기적 연구 방법으로 고찰한 글은 여러 편이 있다.

유종호, 「어느 시인의 초상」, 이태동 편, 『이문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류준필, 「개인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류철균, 「이문열 문학의 전통성과 현실주의」,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안건혁, 「이념에 찢긴 이문열 가족사 - 이문열과 자전소설 『영웅시대』, 《政經文化》, 1984, 12.

29) 송하춘, 『발견으로서의 소설기법』, 현대문학, 1993, p.14.

내고, 작품에 투영된 의미망들을 촘촘히 걸러본다면 이문열 문학에 관류하는 낭만성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낭만성’ 내지 ‘낭만적’이라는 단어는 ‘낭만주의’에서 나온 용어이다. 낭만주의는 1790년대 ‘상상과 통찰의 새로운 양식’으로 독일과 영국에서 시작되어 상당한 수정을 거치면서 1800년에서 1830년 사이에 유럽 전역에 퍼진 일종의 문예운동이었다. 그러나 ‘낭만주의’란 용어가 어떤 구체적이고 구체화된 개념을 지니고 있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낭만주의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적절한 정의를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내려진 바 있는 무수한 정의들의 미궁을 헤쳐 나가는 데 있다.<sup>30)</sup> 따라서 문학에 있어 낭만주의 사조를 근대 이성(계몽주의)의 성립과 견주어 비교·논의할 만한 단서는 곳곳에 존재하지만, 응집시켜 논의할 만큼 주도면밀한 이념적 논리로 정착된 것은 없으므로 관습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낭만주의는 무엇보다도 고전주의와 더불어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정신 운동이다.<sup>31)</sup> 일반화된 개념처럼 신고전주의는 지성의 힘과 이성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운동이었다. 정치, 윤리 및 도덕에 있어서처럼, 예술에 있어서도 신고전주의자들은 뉴우튼이 물리학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 즉, 보편적 진리를 알아내는 한편 영속적인 타당성을 가진 기준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학의 기본 ‘법칙’을 한 번 작성해 놓음으로써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창작이 보장되도록 하되, 마치 요리법을 잘 따르면 훌륭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술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현실의 모방이요, 예술가는 숙달된 조작자이며, 이 모든 작업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적 교훈을 이지적으로 설파하되 그 속에서 쾌락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 있었다.<sup>32)</sup> 이러한 신고전주의의 수사학은 그 자체의 견고하고 고답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인의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30) Lilian R. Furst, 『낭만주의』, 이상욱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참조.

31)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책세상, 2001, p.31.

32) Lilian R. Furst, 앞의 책, pp.23-24.

그러므로 신고전주의의 시대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상상력의 표현은 단지 사적인 고백의 수준에서만 인정되었을 뿐 문학적 가치를 지닐 수는 없는 것이었다. 결국 신고전주의의 수사학은 인간의 이성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며,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과정을 통해 억압적인 성향을 보인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의 이성적인 규범적 수사학의 반대급부로 등장하게 된 낭만주의 문예운동은 예술에서의 이성의 합리성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개인의 감정과 그것의 자율성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나갔다.<sup>33)</sup>

이러한 낭만주의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예술은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규준에 따라 창작되는 한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때까지의 독단주의는 이제 훨씬 더 큰 신축성을 띠게 되었고 또 이 신축성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관념들, 가령 천재성이니, 아름다움이니, 환상이니 하는 것들마저 미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sup>34)</sup>

이성과 감성의 차원을 언급할 때 문제되는 것은 영혼과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낭만주의는 실제로 현실보다는 영혼에 더 무게를 싣고 있었다. 루카치는 이것이 환멸적 낭만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영혼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성은, 영혼이 삶의 운명보다 더 넓고 더 크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며, 이로부터 결정적인 구조적 차이점이 생겨난다. 즉, 여기에서는 삶의 마주 대하고 있는 추상적 선형성, 즉 행동 속에서 스스로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세계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

---

33)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를 구분 짓는 정신사적 사조는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의 이성중심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의 비합리적인 성향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정의 내리기 시작했다. 즉 계몽주의는 모든 관념론적 형이상학이 증발해 버린 가운데 근대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발전되어진 세계관이었던 것이다. 이런 인생의 비합리적 양상을 그릇된 것으로 치부하는 계몽주의에 반기를 들고, 인생의 불확실성과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운동이 바로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다.

34) Lilian R. Furst, 앞의 책, p.28.

든 작든 간에 그 자체 속에서 어느 정도 완결되고 내용적으로도 충분한 순전히 내면적인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내면적 현실은 외부적 현실과 경쟁을 하게 된다. 또 자발적인 자기 신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 하나의 진정한 현실, 즉 세계의 본질이라고 간주함으로써 매우 풍부한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사이의 동일성을 실현하려는 삶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 이러한 소설 유형이 다루는 대상이 되고 있다.<sup>35)</sup> 정의하자면, 낭만주의에서는 내적인 주관성을 통해 외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적인 현실 속에 용해시키느냐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낭만주의의 중요한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낭만적 세계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루카치가 말한 외적 현실을 내적인 현실 속에 어떻게 용해시키느냐와 관련 있는 사항이다. 경험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계몽주의에 반발하고 나선 낭만주의의 특징으로 볼 때 이런 환상에의 탐닉과 그것의 추구는 당연해 보인다. 낭만주의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환상은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며, 현실에 바탕하지 않는 환상은 허상이나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에서 붙잡을 수 없는 초월적인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환상 내지 공상만을 좇는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sup>36)</sup>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동경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어떤 공상과 초월의 지점이 아니라 현실에 맞닿아 있는 하나의 지향점이 된다.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지향하는 태도는 주관적 자아로 하여금

---

35) 게오르그 루카치,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1998, p.125.

36) 물론 현실을 초월하는 형태로 낭만적 '환상'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환상이라는 개념은 현실이라는 개념과 대치된다. 즉, 현실로서 인식되지 않는 대상을 목표로 하는 정신적 상상력, 기억, 희망이 환상인 것이다. 낭만주의는 환상이라는 불확실한 개념을 그 본질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기에 낭만주의의 본질적 특성은 곧 낭만주의의 환상적 성격이라 말할 수 있다.( 장남준, 『독일 낭만주의 연구』, 나남출판사, 1989, p.107.)

환상적 세계를 설정하게 한다. 내적인 현실과 외적인 현실의 간극 속에서 필연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환상적 세계라고 할 때, 이것은 낭만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내적 주관성을 통해 자연과 주변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상상력으로 낯선 어딘가에 속해 있는 초월적인 무언가를 예술가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낭만주의의 주관적 자아는 현실의 울타리 내에서 그 현실을 주관적으로 직시하고, 그 직관을 통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초월성을 추구하여 현실의 한계와 초월적 영역에 존재하는 절대적 이념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동경 혹은 지향인데 이런 동경 혹은 지향에는 좌절이라는 운명적인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초월하고자 하는 자아의 주관성과 초월성 사이에는 긴장과 모순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주관적 자아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문학가는 무한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 욕망을 경험하게 된다.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을 향한 욕구와 현실적인 충족 불가능성은 낭만주의의 고유한 동경이라는 욕구의 형식을 만들어내고, 무한한 욕구에 비해 충족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두 사이에는 긴장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긴장을 낭만주의자들은 ‘아이러니’<sup>37)</sup>라고 한다. 다시 말해 낭만적 아이러니란 예술의 이념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예술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의 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욕구와 현실적인 충족 불가능성은 작가로 하여금 낭만성향을 갖게 하여 현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들게 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문학세계를 통해 현실과

---

37) 낭만적 아이러니에 대한 개념은 피히테의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 피히테는 ‘자아’와 ‘비아’를 설정하고 ‘자아’가 ‘비아’에 의해 규정된다는 철학을 주창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아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자유를 지닌 절대적 자아로서 영원한 세계를 예술을 통해 형상화하려고 한다. 이때 절대적 자아가 창조한 예술작품은 현실에 바탕을 두므로 절대적 자아는 이 현실적인 예술작품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를 완벽히 형상화해낼 수 없으므로 완벽한 세계를 지향하는 의식, 즉 동경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자아는 계속하여 예술작품을 향해 영원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걸 드러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창조와 파괴를 거듭한다.

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를 동경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지향’<sup>38)</sup>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낭만성’에 대해 말하면 현실에서 벗어나 있거나 도피한 채 존재하는, 그리하여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낭만주의의 현실 도피 의식이나 동경의 추구는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주관적 자아가 발을 딛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지향의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즉, 낭만주의의 개인의 자유로운 주관성을 통한 동경의 추구는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현상이 만연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현실을 살아나가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이문열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성’의 의미도 도출할 수 있겠다.

이문열에게 있어 낭만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의 문제로서, 작가의 역사관, 인생관, 사회관 등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이문열 소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낭만주의는 고단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와 이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 그는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고 바람직한 삶을 향하는 순수한 열망을 저해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문학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문열 소설의 주인공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얽매이거나 지배받는 것을 거부하는 의식, 즉 ‘불기의식(不羈意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문열 소설의 주인공들은 ‘불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기대와 이상과 상반되는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갈

---

38) 소설은 잃어버린 에텐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지향이라고 루카치는 말한다. 고대 이후 잃어버린 총체성의 회복을 위한 몸짓이 소설쓰기라는 것이다. 소설은 “삶의 외연적 총체성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삶에 있어서의 의미의 내재성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총체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시대의 서사시”라는 루카치의 정의처럼, 소설은 총체성이 상실된 세계에서 그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에서 발생하였다. (G.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p.70.)

등을 운명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아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과 제도 하에서 주인공은 그러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며,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항하는 태도는 실존주의자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유사한 것으로 이문열 소설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이러한 의식들을 ‘낭만성’이라고 연구자는 명명한다.

낭만주의의 주관성은 주관과 객관의 이분화 된 주관이 아니라 이분화되기 전의 세계와 일체화된 주관을 의미하는데<sup>39)</sup>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낭만주의의 주관적 자아가 현실 속에서의 이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문열 소설 속에서의 인물들을 보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세계와 어긋난 존재, 문제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근대화와 산업사회로의 진입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문열이 직시했던 것은 현실적인 모순과 인간들의 부조리한 모습, 즉 물신화된 인간관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 또한 그들과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불안과 회의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한 작가의식으로 형상화한 이문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삶이 일회적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휴머니즘을 추구한다.

이렇듯 소설가는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작품을 창작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설에 있어 작가의 사상이나 세계관은 중요하다. 그것은 소설 속의 인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인식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느냐의 삶의 양식의 근저에는 이문열이라는 작가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잠재적이건 표면적이건 작가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유추해낸다면 작가의 낭만성향을 파악함과 아울러 이문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낭만성’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문열의 소설을 연구함에 있어 낭만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의 방

---

39)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 하는가』, 책세상, 2001, p.104.

향은 소설가 이문열의 작가론과 작품론이 병행될 것이다. 이문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술 논문은 소수여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평론들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이문열의 작품들, 산문집을 포함하여 단편, 중편, 장편소설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낭만성’이라는 의미를 규정함에 있어 낭만주의 관련 이론서와 『사색』, 『시대와의 불화』를 활용하고,

Ⅱ장, 이문열의 삶과 문학에서의 가계와 생애, 그리고 문학관을 연구함에 있어 이문열 가계에 대한 여러 자료와 『사색』, 『시대와의 불화』, 『신들메를 고쳐매며』 등 산문집과 『영웅시대』 『변경』 등 자서전적인 경향이 강한 소설과 면담을 중심으로 하며,

Ⅲ장, 이문열의 낭만성의 연원에서는 『사색』, 『시대와의 불화』, 『신들메를 고쳐매며』,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다.

Ⅳ장 소설의 낭만적 특성에서는 주제적 특징과 관련하여 1) 이상주의적 휴머니즘 - 『영웅시대』, 『시인』, 『사색』, 평론집, 2) 유교와 현모양처의 삶 - 『선택』 및 신문, 잡지, 평론집, 3)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 - 「들소」, 「금시조」, 『시인』, 예술에 대한 이론서를 중심으로 연구하겠다. 그리고 문체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그의 산문집 『신들메를 고쳐매며』와 문체 이론서 및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문열의 가계와 생애, 문학관, 낭만주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작가의 낭만성의 연원, 나아가 소설의 주제적 특성과 문체적 특성을 밝히는 일련의 연구 작업을 통해 이문열 소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낭만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삶과 문학

### 1. 가계와 생애

이문열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뿌리의식의 산실인 모태공간, 즉 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문열 문학에 있어 고향과 문중의 모티프는 그 형상화의 생생함과 문제의식이 어떤 작가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의 고유한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이문열 작품의 모태공간이 되는 고향과 문중은 본고에서 다루어질 이문열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성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가계를 안다면 『영웅시대』의 이동영이 왜 사회주의 사상을 선택했는가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선택』에서 보여준 작가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황제를 위하여』와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에 드러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그의 복고적 취향을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나아가 「술단지 와 잔을 끌어당기며」에 나타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자세와, 예술가 소설에 담긴 사상, 그리고 예술을 통해 자기완성의 삶에 이르려는 작가의 내면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방안에서 점잖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은 그대로 약식의 문회(門會)였다. 아랫목에는 노기(怒氣) 거두신 꾸지람이 내려지고, 웃목에서 짜증 감춘 사죄가 울려지고 -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제기되고, 조심스런 의견이 개진되고, 어른분네들의 헛기침이 섞인 논란이 있고-때로 감정 있는 족친들간의 화해가 붙여지고, 죄를 지어 그 자리에 못나온 이가 성토되고…….40)

---

40) 이문열, 『그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맑은소리, 2003, p.104.

이문열은 유가전통가정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소설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위의 글의 내용에서 느낄 수 있는 유교 전통 문중이나 가정의 실제 체험은 작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런 문화이자 의식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글을 통해서나 이야기, 또는 그 밖의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낯선 세계이기도 하다. 이문열 소설에서 만나는 위와 같은 장면들은 실제를 바탕으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작가에게 각인되어 작품에 그려지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그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그의 가계와 가문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형상화 하는 문중과 유교이념, 복고지향적인 취향 등, 그 모든 것들의 뿌리요, 무엇에 얽매이거나 지배받는 것을 거부하고 실존적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불기의식(不羈意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문열은 경북의 오지인 영양군 석보면에 자신의 고향을 두고 있는데, 석보면은 재령 이씨 일족들이 몇 백 년 세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석보면에서 동족촌을 이루고 살아온 재령 이씨는 경북 일원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집안으로서 학봉 김성일(鶴峰 金誠一)의 학통을 계승한 퇴계 학통으로 알려진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과 밀암(密庵) 이재(李裁)를 배출했다. 큰 학자들을 배출하며 대대로 학문을 이어온 집안인 것이다.

류철균은, ‘영양 석보에 사는 재령 이씨 영해파는 영해에서 태어난 석계(石溪) 이시명(李時明)이 병자호란의 국치를 부끄럽게 여겨 벼슬을 사직하고 1640년에 석보에 은거하면서 시작되었다.’<sup>41)</sup>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령 이씨 영해파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현령(縣令)을 지낸 애(瑗:1480, 성종11-1561, 명종16)라는 분이 1497년(연산군3)에 중부(仲父)를 따라 영해로 오면서부터 시작되니 지금으로부터 어언 510여전 전의 일이다. 입

---

41) 류철균, 「이문열 문학의 전통성과 현실주의」, 『이문열』, 살림, 1993, pp. 13-14 참조 및 재인용.

향 이후 그는 당시 영해의 명문인 진성백씨(眞城白氏) 원정(元貞)의 따님과 결혼하여 나라골(寧海郡 蒼水面 仁良里)에 터전을 잡고 현재까지 모듬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먼저 이문열의 개략적인 가계를 서술한 뒤 주요한 인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재령 이씨는 본래 경주에서 나왔는데, 시조는 알평(諱平)으로 신라의 개국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다. 그 뒤에도 벼슬이 끊이지 않았는데, 고려 시대에 들어와 우칭(禹稱)은 문하시중으로 임금의 사위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령 땅을 채읍(采邑)으로 하사받아 이 군(郡) 명칭으로 본관을 삼게 되었다.

재령 이씨 중에 오(午)는 고려 말의 혼란한 시기에 벼슬을 단념하고 경남 함안(咸安) 모곡(茅谷)으로 터를 잡아 은거하며 스스로를 모은(茅隱)이라 이름했다. 조선 개국과 더불어 벼슬에서 물러난 처신으로 나라의 정려를 받게 되었는데, 현재의 자미정(紫薇亭) 주변 터가 당시에 하사받았던 토지였다 한다.<sup>42)</sup> 자미정은 모은공의 함양 입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망국의 한을 품고 정치없이 떠돌던 모은공은 깊은 골짜기에서 아름답게 핀 자미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 인연으로 그곳에 터전을 잡으니 바로 경남 함안 모곡땅이었다. 자미수(紫薇樹, 목 백일홍)는 오늘날까지 재령 이씨의 나무요 꽃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영해 충효당 사당 뜰에도 자미화 노거수(老巨樹) 한 그루가 지금까지 문중의 역사처럼 자리하고 있다. 오가 개지(介智:1415, 태종15-1487, 성종18)를 낳았고, 개지의 아들 맹현은 현귀(顯貴)로 인해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맹현(孟賢:1436, 세종18-1487, 성종18)은 세조6년(1460)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황해도 관찰사, 홍문관 부제학, 예조참의, 나주목사를 지냈을 뿐 아니라 청백리(清白吏)에 녹선되었다. 맹현은 태종의 아들인 함녕군(咸寧君) 인(裻)의 외손녀의 부정(副正) 윤오(尹塢)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경학에도 조예가 깊어 세조의 명에 따라 편전에서 정인지, 강희맹, 양성지, 성현 등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와 함께 시경의 구결(口訣)을 교정하기도 했다. 슬하에 9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이 7형제로 모두 과거에 올라 벼슬길에 나아갔다.

42) 李秀榮, 『左海遺稿』, 「遺事」.

맹현의 여섯째 아들이 바로 재령 이씨 영해 입향조인 통정공(通政公) 예(瑔:1480, 성종11-1561, 명종16)인데, 8살 때 부친을 여의고 16살 때 중부(仲父)인 율간공(栗澗公) 중현(仲賢)이 영해부사로 나갈 때 따라와 인랑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문열은 자신의 소설 『선택』에서 이 때의 정황을 ‘책방 도령’으로 따라왔다고 쓰고 있다. 통정공은 1515년(중종10)에 무과에 급제하여 무안현감, 함창현감, 도총부 도사, 경주관관, 울진현령 등 직을 지낸 뒤 영해 인랑리에서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예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맏이가 은보(殷輔:1520, 중종15-1580, 선조13)로 충무위(忠武尉) 부사직에 증직되었다. 학문을 좋아해 비록 벼슬은 하지 못하였으나 자손들을 생각해 재물을 아끼지 않고 서책을 구입했으며, 구입하기가 여의치 않는 많은 자료들은 필사하여 남겼다 한다.<sup>43)</sup> 그의 초취(初娶) 부인은 서예 류성룡의 외조부인 송은(松隱) 김광수(金光粹)의 손녀이다. 사직공의 둘째 아들이 이함(李涵:1554, 명종9-1632, 인조5)으로 호는 운악(雲嶽)이었다. 운악은 재령 이씨 영해파의 오늘을 있게 한 중흥조(中興祖) 위치에 있는 이다. 넓은 도량과 문무를 겸전한 학문과 기량을 가졌는데, 일찍이 이 지역의 학자인 대해(大海) 황응청(黃應淸)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다듬었고 1588년(선조21)에 사마시에, 그리고 1600년(선조33)과 1609년(광해군 원년)에 각각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문과 급제 이전부터 음사로 벼슬길에 나아갔고 첫 번째의 문과 급제가 시지에 쓴 문구가 저촉되어 파방됨과 아울러 벼슬까지 파직되는 변을 당했다. 그 뒤 복직되어 의금부 도사와 사재감 직장, 의령현감 등 직을 역임했다. 두 번째의 문과급제 이후 환로(宦路)가 탄탄하게 열렸으나 광해군의 난정이 이어지자 고향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으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귀거레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가 이후 자손들의 성취를 위해 성력을 다한 삶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의 행장에는, ‘영해의 문헌은 실로 공에게서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영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말해 잊지 않았다(寧之文獻 實自公始 至今寧人 稱恩不忘)’<sup>44)</sup>라고 했고, 그

43) 『永慕錄』, 司直府君條.

의 묘갈명에, ‘이 지역의 문헌은 공이 실지로 전형을 이루었으며, 자손들이 유학자로 빼어난 것은 공께서 이룩한 것이다(丹邱文獻 公實型之 子孫儒粹 公實成之)’<sup>44)</sup>라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문중 내에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운악은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모두 성취한 삶을 살았다. 다섯째인 시진(時震)은 부친의 대를 이어 무과에 급제하였고 셋째인 석계(石溪) 이시명은 이조판서에 증직된다. 운악공의 셋째 아들인 이시명(李時明:1590, 선조23-1674, 현종15)은 어려서부터 재질이 남달랐을 뿐 아니라 기절(氣節)이 있었으며 의로운 일에는 과감하였다. 부친이 의령현감 직에 있을 때 소년으로 배행하였는데 망우당 객재우가 그를 보고 절조(節操)가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그의 초취 부인은 문과에 급제해 임진왜란 당시 창의(倡義)한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의 딸이었다. 석계 이시명은 1612년(광해군4)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이 무렵 퇴계 학통의 적전(嫡傳)을 계승한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의 문하에 들었고 상처를 한 후 스승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 그의 사위가 된다. 그의 계배(繼配)인 안동 장씨는 소설 『선택』의 주인공이며, 신사임당에 필적할만하다는 정부인 안동 장씨이다.

석계는 병자호란으로 국왕이 남한산성에서 치욕적인 화의를 맺자 비분강개하여 과거를 단념하고 이듬해인 1637년 모친을 모시고 부친의 묘소가 있는 한밭(大田)으로 들어가 은거했다. 조정에서는 그의 학문과 절의를 높이 사 강릉 참봉에 제수했으나 이시명은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고 1640년(인조18) 영양 석보로 들어가 석계(石溪) 위에 집을 짓고 그것으로 자호(自號)하였다. 4년 뒤인 1644년에 모친의 상을 당해 영해 나라골로 가 삼년상을 마친 뒤 석보로 돌아와다가 1653년(효종4)에 영양에 있는 수비산으로 들어간 후부터 확고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그곳에서 20여년을 보낸 뒤 1672년(현종13)에 이르러 자손들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안동 서쪽 대명동이라는 곳으로 터를 잡아 3년여를 살다 향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44) 『雲嶽先生文集』, 권3, 李時明撰 「行狀」.

45) 『雲嶽先生文集』, 권3, 柳致皞撰 墓誌銘.

석계는 슬하에 7남 3녀를 두었는데 모두 도학과 문장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 넷째아들 이승일(李嵩逸:1631, 인조9-1698, 숙종24)은 호를 항재(恒齋)라 했는데 어려서부터 님인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과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에게 글을 배웠고 경사(經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했다. 그의 뜻은 벼슬에 있지 않았고 부친이 세상을 버리자 영양 석보의 터전으로 돌아와 부친의 유지(遺址)에 집을 짓고 당호를 항재(恒齋), 대의 이름을 낙기(樂飢)라고 붙이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1689년(숙종15)에 그가 경전에 해박하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추천을 받게 되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마(洗馬), 장악원 주부 등 직을 제수 받았다. 1694년(숙종20)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갑술환국이 일어났고, 함경도 홍원현으로 형인 갈암 이현일이 유배를 당하였다. 그 역시 벼슬에서 물러나면서 ‘학력이 미급한데도 가볍게 세로(世路)에 나갔다.’라며 자탄(自嘆)했다 한다. 향리로 돌아온 뒤로는 더욱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하다 광록서당(廣麓書堂)에서 향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통덕랑(通德郎) 직을 낳았고, 식이 성균진사 귀환(龜煥)을 낳았다. 이가계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우룡(宇龍), 좌승지에 증직된 광렬(光烈), 호조참판에 증직된 상우(相禹), 돈녕부 도정을 지낸 좌해(左海) 수영(秀榮), 효준(孝俊), 석가현(石哥軒) 현채(鉉埰), 동호로 이어져 내려온다. 동호(東浩)의 아들이 바로 『영웅시대』의 주인공이자 이문열의 아버지가 되는 원철(元喆)이다. 『영웅시대』의 이동영이 ‘가문의 잔존 방식’이라고 한 가문이란 바로 계략적으로 살펴본 가계를 일컫는다.

이문열의 본명은 이열(李烈)로 원철의 3남 2녀 중 3남이다. 모친인 조남현(曹南鉉)은 영천시 금호읍(琴湖邑) 섬들(島坪) 출신으로 창녕조씨(昌寧曹氏) 조규섭(曹圭燮)의 따님이다. 이문열의 외조상은 조선중기에 현달했던 지산(芝山) 조호익(曹好益)이다. 조선 선조 때 문신이며 학자인 지산 조호익(曹好益:1545, 인종1-1609, 광해군1)은 퇴계의 문인으로서 성리학을 연구, 명종15년(1560) 생원·진사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선조9년(1576) 경상도 도사 최황(崔滉)

의 무고에 의해 강동에 유배되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주자와 퇴계를 봉안하고 조정에 현판을 내려줄 것을 청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공으로 그에게 ‘관서부자(關西夫子)’라는 칭호가 특사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배소에서 풀려나 소모관(召募官)이 되어 군민을 규합, 중화(中和), 상원(祥原) 등지에서 전공을 세워 녹피(鹿皮)를 하사받기도 했다. 그 후 성주목사를 거쳐 1595년 안주목사가 되고 이어 성천, 정주의 목사를 역임한 뒤 사직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다시 강동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약했고, 뒤에 선산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그는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 저서로는 『지산집(芝山集)』 16권 10책, 『가례고증(家禮考證)』, 『주역석해(周易釋解)』 등이 있다.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에 종택인 지산고택이 남아 있다. 영천의 지봉서원(芝峯書院), 대창면 용호리의 도잠서원(道岑書院)<sup>46)</sup> 등에 제향되었다.

다음은 이문열의 가계의 직 방계를 통틀어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재령 이씨를 대표하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로 갈암 이현일을 들 수 있다. 그는 석계 이시명의 셋째 아들이며 이문열의 직계 조상인 향재 이승일의 손위 형이기도 하다. 갈암 이현일은 기해예송(己亥禮訟) 당시 노론의 종장(宗匠)이었던 우암 송시열과 극렬하게 대결한 영남(嶺南) 남인의 대표자였고, 인현왕후의 폐비와 장희빈 소생의 세자 책봉을 둘러싼 기사환국(己巳換局) 당시에는 남인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이현일은 인현왕후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상소한 바 있으나,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노론이 재집권하자 70이 넘는 몸으로 7여 년간 유배와 위리안치(圍籬安置)를 거듭하다 안동 임하현 금양(錦陽, 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서 죽는다. 그 후 그의 학통은 자신의 셋째 아들인 밀암 이재에게 계승되나 시대 상황 때문에 이현일의 집안은 밀암의 학통을 이은 정재 류치명 등이 당상관의 지위에 오를 때에도 영양 석보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sup>47)</sup> 사색당론의 기준에 의하면 남인으로 분류된

46)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100호, 1642년 신도비가 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향촌 자치 제도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사림과의 계보를 잇고는 있지만 조선 후기 영·정조 이래로 권력의 핵심 영역에서 계속 배제되어 나갔던 집단이다. 그러나 그들의 물질 기반은 자신이 거주하였던 향촌에 있었으므로 정치적으로 몰락하기는 했어도 동족촌을 이루어 향촌의 중심 세력으로는 계속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갈암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정부인 안동 장씨이다.

“정부인 장씨는 퇴계학의 한 종사(宗師)요 숙종조 영남 남인의 영수였던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어머니가 된다. 남편, 아들, 손자 3대에서 이른바 칠산림(七山林)을 배출한 현모양처로서 영남 지방에서는 신사임당과 나란히 우러름을 받는 분이다. 안동에서는 해마다 대회를 열어 그분을 추모할 정도다.”<sup>48)</sup>

라고 그는 장씨 부인을 요약하고 있다. 이문열의 가문에 대한 자궁은 안릉세가(安陵世家)와 충효당(忠孝堂), 칠산림(七山林), 숭정처사(崇禎處士)와 같은 용어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자기수양에 기반한 선비다운 처세를 지향하고 있다.

이문열은 소설 『선택』에서 ‘안릉세가’라는 제목을 달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고려 성종 때 문하시중을 지낸 우칭(禹稱)이 재령을 채읍(采邑)으로 받고 재령군(載寧君)으로 봉해지면서 경주이씨에서 당당하게 분관(分貫)되는 영예가 있는 뒤 대봉(大鳳)이란 이가 다시 안릉군(安陵君)에 봉해지게 되어 한 때 안릉 이씨로까지 불려졌다. 상장군 소봉(小鳳)은 공민왕의 부마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재령 이씨는 황해도 재령군 지역과 개경 일대에 거주하면서 고려 시대에 주목받는 씨족으로 정착했으나 왕조가 바뀌자 불사이군(不事二君)

47) 류철균, 「이문열 문학의 전통성과 현실주의」, 『이문열』, 살림, 1993, pp. 13-14 참조 및 재인용.

48) 이문열, 「망해가는 말」, 『신들메를 고쳐매며』, 문이당, 2004, p.135

의 절의를 지켜 하향(遐鄉)인 경남 함안 모곡으로 숨어들었다. 이를 이문열은 중국 은나라 말의 삼현(三賢) 가운데 한 사람인 기자(箕子)의 예를 따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sup>49)</sup> 세가(世家)는 세신지가(世臣之家)의 준말로, 대대로 국가의 녹을 먹다가 나라가 위급한 지경에도 변함없는 충절을 다하는 가문을 지극하게 기리는 용어로, 세상에서 ‘안릉세가’라고 불렀다는 것은 가문의 자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문열의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로 충효당(忠孝堂)을 들 수 있다. 충효당은 오늘날 재령 이씨 영해파 종택의 별칭을 지칭하는 말로, 안동 하회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서애 류성룡 종택과 안동시 풍산읍 하리(芋洞 속칭 우렁골)에 있는 예안 이씨 풍은(豐隱) 이홍인(李洪仁:1528-1594) 종택과도 동일한 것이다. 물론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서애 종택 충효당과는 비견되기 어려운 정도지만, 재령 이씨 영해파의 충효당에 대한 자긍심은 대단하다.

재령 이씨 영해파 종택을 충효당이라 당호를 한 이는 영해 입향조가 아닌, 그의 손자인 윤약 이함이다. 윤약은 자신의 조부인 입향조가 무과에 급제한 이래 최초로 문과에 급제해 가문 중흥의 기반을 닦기도 했지만, 그와는 별도로 집요하리만치 자신의 현달보다는 후진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안릉세가의 명예를 자신들의 터전인 함안에서 북쪽으로 수 백리 떨어진 바닷가의 외진 고을 영해에서 재발현하겠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기도 했다.

“1722년(경종2) 겨울에 내(갈암 이현일의 셋째아들 밀암 이재)가 고향 영해에 들어가 선조들의 신주를 모신 가묘(家廟)에 절하였는데, 종손 백인(伯仁, 李仁培)이 새롭게 ‘충효당(忠孝堂)’이라는 큰 글자 세 자를 새겨 종가의 마루 들보 아래 걸어놓고 나에게 이 일에 관하여 글을 써달라고 하였다. 내가 어릴 적을 기억해보니, 이 세 글자의 인본(印本)을 마루 북쪽 벽 위에 걸어둔 것을 보았는데, 곧 나의

---

49)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p.83.

증조부 참판공(參判公, 李涵)께서 명명하신 것이었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쓴 것이라고 하니, 어찌 그것이 사실이겠는가? 더욱 공경할만하다.”<sup>50)</sup>

갈암 이현일의 셋째 아들이 자신의 뿌리인 인량리 종가를 찾아가 사당에 참배한 뒤 충효당 기문을 지은 사연을 적은 글이다. 글의 내용을 보면 충효당이라고 처음으로 명명한 이가 윤악 이함이며, 전해오는 바로는 그 글씨가 명나라 신종황제의 필적을 탁본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나 충효의 정신을 강조한 증조부의 가르침을 공경해서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집안에 만 권의 책이 있으면 문창성(文昌星)이 비치어 귀한 자손이 나고 대대로 글이 끊어지지 않는다 한다. 그러하되 책이 많다는 것만으로 무엇을 이루랴. 힘써 읽고 익혀야 하늘도 도우리니 너희들은 이 뜻을 잊지 말라.”  
(『선택』, p.97)

“내 이제 이 이름을 붙여놓았으니 너희들은 기필코 그 실질을 채워라! 나는 충효당 현판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런 공의 말씀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선택』, p.99)

이문열은 충효당을 명명한 윤악 이함의 염원을 위의 글로 정리하고 있다. 나아가 작가의 시각으로는 ‘공의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면 자손에 대한 예사 아닌 욕심을 공이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그 낙향 보다 몇 해 앞섬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오늘날까지 종가의 당호로 사랑받고 있는 충효당은 윤악 개인의 자손에 대한 염원을 담은 공간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손들이

---

50) 『雲嶽先生文集』, 권3, 「忠孝堂記」 二年冬 裁入海鄉 省先廟 嗣孫仁伯 新刻忠孝堂 三大字 揭宗堂樑欂間 要余記其事 記余少時 見此三大字印本 棲堂之北壁上 卽我曾王考 參判公所命名也……世傳以爲 大明高皇帝筆 豈其信然邪 尤可敬已。」.

그러한 뜻을 읽고서 실천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칠산림(七山林)’이다. 산림(山林)은 조선시대에 최고의 인격체로 존경받았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칠산림은 모두 정부인 안동 장씨 후예로서 한 분도 어려운데 일곱 사람<sup>51)</sup>이나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은 조선시대에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하며 학덕을 겸비하여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인물을 말하는데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단순히 정치에서 결별해 있던 일민(逸民)과도 다르며,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던 재야 학자들과도 물론 다르다. 17세기를 대표하는 산림으로는 김장생, 장현광, 김집,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권시, 허목, 윤휴, 박세채, 윤증, 이현일, 권상하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영남을 대표하며 재령 이씨의 인물인 이현일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현일은 문과에 급제하지 않고도 학문과 덕행으로 이조판서라는 고위직에 오른바 있다. 그러나 학문과 덕행으로 조정에 나아가 현귀한 지위에까지 오른 이들 상호간에 치열한 학문과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고 급기야는 목숨까지 바치기도 하였다.

갈암 이현일은 정치적인 위상 외에 퇴계로 대표되는 영남 주리론(主理論)의 학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자다. 그의 학문적 정통성은 아들인 밀암 이재를 거쳐 밀암의 외손자인 대산 이상정에게로 계승되었고, 다시 대산에서 손재 남한조로, 그리고 정재 류치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의 저술을 중심으로 편찬한 문집만도 30권 21책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는 또한 『홍범연의(洪範衍義)』, 『어제주수도설발휘(御製舟水圖說發揮)』, 『돈전촬어(惇典粹語)』,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 『영모록(永慕錄)』, 『신편팔진도설(新編八陣圖說)』 등 많은 편저를 남겼다.

정승보다는 산림(山林)이 배출된 것에 재령 이씨 가문은 물론 후손인 이문열에게는 무한한 자긍심과 선민의식을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인 안동 장씨 후손 가운데 한 분도 아닌 일곱 분이나 되는 산림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영남을 대표할만한 훌륭한 가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마땅한데 그 후손이

---

51) 석계, 존재, 갈암, 향재, 정목재, 고재, 밀암, 이 일곱 사람을 말한다.

이문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정처사’가 있다. ‘송정’이란 중국 명나라 신종황제의 연호(年號)이다. 명나라 신종황제의 연호가 앞세워지는 것은 민족자존에서 보면 유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 병자호란이라는 청나라의 공격 앞에 국왕에 항복을 함으로 인해 지조 있는 조정의 신하는 물론 초야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그 자존심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이는 문명이 야만(野蠻)에 무너져 암흑세계가 된 것을 의미했다. 명(明)나라 중심의 대의가 중국의 변방인 청나라 신흥 세력에 의해 유린당했다는 현실 인식과 아울러 국왕이 능욕을 당한 지경에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괴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를 부끄럽게 여긴 이들은 벼슬을 단념하고 산림에 은거하며 죄인을 자처했고, 후진 양성과 부국강병을 통해 자존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이다. ‘고(故) 참봉(參奉) 김시온(金是璫)에게 3품관(三品官)을 증직하도록 명하였다. 김시온은 김성탁(金聖鐸)의 증조이니, 병자호란 때 오랑캐와 강화(講和)한 후 은거하여 벼슬에 나오지 않았으며, 묘비에 ‘송정처사(崇禎處士)’라고 쓸 것을 유명(遺命)하였다. 김성탁이 소명(召命)을 받들고 서울에 들어와 임금의 예우(禮遇)을 받게 되자, 연신(筵臣)이 그를 위하여 청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라고 『조선왕조실록』 영조10년 10월 10일 조에서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사후에 ‘송정처사’로 기억되기를 바란 장면이다.

이문열의 선대 재령 이씨 영해파<sup>52)</sup> 후예들을 논할 때 가학은 비중 있게 다

---

52) 가문의 전체 성씨 중에 제일 큰 집인 종가와 작은 집으로 내려오는 종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대종(大宗), 후자를 소종(小宗)이라 한다. 이 소종에서 분파되어 딸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를 큰 집 또는 몇 대 주손가(胄孫家)라고 부른다. 재령 이씨 가문의 경우 크게 재령 이씨 전체 종가가 있고 다시 함안으로 정착한 이후의 제일 큰집이 있으며, 다시 영해로 입향한 이후 제일 큰집이 있게 된다. 영해 입향 이후를 별도로 영해파(寧海)로 구분 짓는다. 영해파는 입향 이후 19대를 이어오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후대에 많은 현달(顯達)한 인물이 배출되어 별도로 종가의 호칭과 종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영해파는 운악 이함에 이르러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입향 이후 최초의 문과급제와 아울러 현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계로의 진출과 안동이라는 영남 사림파의 주류에 속한 중심인물과 교

루어진다. 이문열 선대의 가학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그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에서 정산 선생에게 학습한 교육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재령 이씨 영해파의 가학은 영남 남인 학통에서 알 수 있듯이 운악 이함에서 그 방향을 ‘퇴계 학통’으로 잡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악 이함의 후손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염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영남 주리론의 핵심으로 달려들어 초기에는 지역의 학자인 대해 황응청의 문하에 나아갔다. 그러나 대해의 경우는 영남 주리론의 정맥은 아니었다. 따라서 자신의 학문적인 성취는 물론 후대를 위해서도 퇴계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을 이은 이와의 교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는 20이 넘어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해 지역에서는 문명(文名)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부친의 상을 당해 원행을 하지 못했다가 상기를 마친 뒤 학봉의 형제들을 찾고 군자로서의 처신과 수양하는 방법을 듣고는 그대로 시행했다.<sup>53)</sup>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셋째아들이 학봉의 수제자인 경당 장흥효의 문하에 들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재령 이씨의 중흥의 역사가 열린 것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재령 이씨의 가학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존갈고밀(存葛顧密)’이라는 문자가 사용된다. 이는 재령 이씨 가운데 학문적으로 더욱 두드러졌던 이들의 호를 순서대로 한 글자씩 모아 사자성어로 만든 것인데, 존재 이휘일, 갈암 이현일, 고재 이만, 밀암 이재의 넷을 지칭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갈암과 밀암은 퇴계 정맥을 계승한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다. 이에 비해 존재와 고재는 세간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

유, 그리고 후손들의 성취를 위한 무한한 기대와 노력들 때문이다. 그는 여러 형제를 두게 되고, 그 가운데 석계(石溪) 이시명(李時明)의 자손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를 별도로 석계파라고 한다. 석계는 고향 나라골을 떠나 영양과 안동으로 터전을 옮기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일촌을 형성하여 명문가의 반열에 들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53) 『永慕錄』, 宜寧府君條, 從遊鶴峯金先生昆仲季 得聞君子立身行己之方 退而私必放而行之

그러나 이문열은 그의 소설 선택에서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1619, 광해군 11-1673, 현종4)에 대해 갈암에 못지않은 지면과 존경을 표해마지 않았는데, 이는 재령 이씨는 물론 영남 선비사회에서는 지극히 객관적인 평이라 할 수 있다. 존재는 5, 6세 때에 이미 오경(五經)의 중요한 구절을 읽었으며 9세 때는 연구(聯句)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문재도 있었다. 그리고 13세 때는 주역을 읽은 소감에 대해 부친인 윤악공에게 시로 지어 올렸을 정도였다. 이러한 내용을 이문열은 『선택』에서 적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학문적인 눈을 뜨게 한 이는 외조부인 경당 장흥효였다. 그의 훈도를 받아 제자백가서를 두루 읽었고 이어서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성리대전(性理大全)』, 『역학계몽(易學啓蒙)』,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퇴계집(退溪集)』 등 이학(理學)의 주요 저술들을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본래부터 문학에 소양이 있었던 그가 스승의 영향으로 성리학에 침잠하게 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아우인 갈암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재령 이씨 영해파가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영남 주리론(主理論)의 정맥(正脈)을 이었고, 이를 가학으로 면면히 전승하게 된 계기가 이로부터 마련된 셈이다. 그의 학덕은 유림의 추종을 받아 사후에 사림들이 인산서원(仁山書院)을 건립해 위패를 봉안했다.

다음은 갈암 이현일이다. 갈암은 칠산림의 한 사람으로 문과에 급제하지 않고도 이조판서에까지 올랐으며 영남 남인의 종장(宗匠)일 뿐 아니라 퇴계 선생의 학문적인 정통을 계승한 이로도 이름났다. 달리 말하면 퇴계 학파의 이전 학자들이 학과적 정체성을 소극적으로 편 것에 비해 갈암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그 학과적 고유성이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학봉으로 계승된 퇴계 학통이 퇴계학의 주류를 점유하게 만든 학자였다는 것이다.

갈암은 중형인 존재에 비해 ‘도학적(道學的) 경세가(經世家)’라 할 수 있는데 도학적 이상주의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로 나아간 자취가 뚜렷하다. 그는 42세 때 심각한 민생을 보고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였으며, 문과 무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시무책(時務策)에서도 국방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의 문집을 보면 소(疏), 차(劄), 헌의(獻議) 등이 138편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외교, 예설

(禮說)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경세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설명해주는 주요 자료이기도 하다.

사실 갈암은 14살 때 병서(兵書)를 탐독했으며 그 시절 소년들을 모아두고 팔진도(八陣圖)를 시험해볼 정도로 활달한 성품이었으나 18세 이후부터는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반성하고 성리학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20세 때는 부친의 명으로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한 바 있으며, 22세 때는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복시(覆試)를 단념하고 도산서원을 비롯해 학봉과 경당 장흥효 등 선유들의 유적을 차례로 답사한 뒤 중형인 존재 이휘일을 따라 부친의 석계초당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가 중앙 정계에 비중 있는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현종8년(1667) 때의 일로 당시 40세였다. 그는 이 때 영남 유림을 대표하여 서인의 종장이었던 우암 송시열의 예설(禮說)을 비판하는 상소를 지어 올렸다.

갈암은 현종15년(1674) 48세 때 영릉참봉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어 여러 관직이 잇달아 내려졌으나 모두 수락하지 않다가 숙종4년(1678) 52세 때에 공조정랑과 지평 직을 제수 받고서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갔다. 숙종12년(1686)에 그는 퇴계학설을 지지하고 율곡 학설을 비판하는 율곡사단칠정변(栗谷四端七情辨)을 저술하였는데, 이는 율곡 학설을 비판한 최초의 논설로 기록된다.

갈암은 63세에 사헌부 장령, 이조참의, 사헌부 대사헌으로 고속 승진을 한 뒤 64세에 이조참판, 67세에 이조판서에 올랐다. 이어서 68세 때(숙종20)는 갑술환국이 일어나 함경도 홍원으로 유배되었고, 5월에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신문문을 받고 종성으로 이배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숙종15년에 재이(災異)를 구언(求言)한 것에 응한 상소에, 폐출되어 사가에 있는 인현왕후를 별궁에 거처시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몇 구절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인현왕후를 모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일종의 무함을 받았기<sup>54)</sup> 때문이다. 종성(鍾城) 유배는 3년 동안 이어졌다. 71세 때는 광양으로 이배되었다가 73세 때에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명을 받고 74세 때에 안동 임하현 금소역에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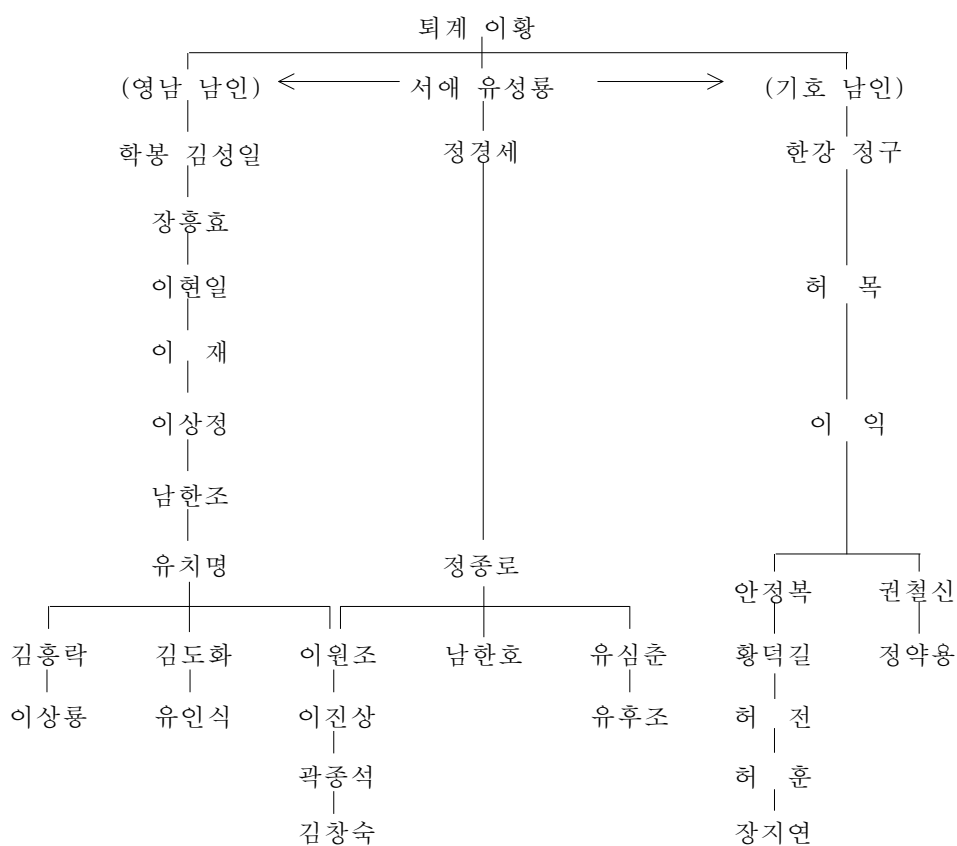
---

54) 폐비 민씨가 후비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스스로 하늘(남편)에게서 끊어졌다(廢妃閔氏 不循壺儀 自絕于天).

을 잡고 우거했고 그곳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는 금소에 있을 때 더욱 학문과 후진 양성에 주력했는데 그의 340여명의 문도 대부분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였다. 갈암은 사후에 더욱 파란만장한 역경을 당했다. 그는 죄와 복관(復官)의 명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 융희2년(1908)에 이르러서야 관작과 시호가 회복되었고, 문집 간행에도 역시 온갖 고초가 있었다.

이로써 이 가문은 갈암과 밀암 양대에 걸쳐 퇴계의 학통<sup>55)</sup>을 잇는 대학자를 배출함으로써 영남 남인들의 존송을 받는 확고한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지

55) '남인 학통의 계보'



유봉학, 「18·19세기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서울대 박사 논문, 1992), p.19.

위56)를 확보하였다. 자신의 근거지에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사대부들, 이것은 기호 남인과 영남 남인을 구별하는 특징이다. 기호 남인들이 자기 성씨를 가진 집성촌 내의 세습 토지를 장악하지 못한 관료 중심 집단이라면, 영남 남인들은 관료이기에 앞서 지주 계급이며 토착 사대부 집단이다. 이로 인해 형성된 선비의식과 선비문화가 이문열 문학세계의 모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의 사회적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나’를 없애면서 대아(大我)인 나라를 구하려는 충의 실천이다. 조선 오백년 유교 전통에서 충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이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고 대의를 취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조선조 상층문화의 핵심에 놓였던 선비 의식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대의 실천의 의식이였다. 이문열의 조상인 석계 이시명이 병자호란의 국치를 부끄럽게 여겨 벼슬을 사직한 것이나, 갈암 이현일이 인현왕후의 폐비와 장희빈 소생의 세자 책봉을 둘러싼 정쟁에서 인현왕후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상소를 올리는 등 일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나아갔던 것은 모두 이 같은 선비 의식의 산물이였다. 월북한 작가의 아버지 이원철이 일본 동경농대를 유학하면서 사회주의사상에 경도되어 해방 후에 남로당 간부로 활약하다가 월북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잔존의 방식이지만 결국 사회주의의 실천, 즉 대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식과 가문의 몰락과 함께 불어닥친 새시대인 근대 위에 이문열의 소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근대화 와 산업사회로의 진입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문열이 직시했던 것은 현실적인 모순과 인간들의 부조리한 모습, 즉 물신화된 인간관계였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 또한 그들과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불안과 회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존재론적인 불안과 회의는 이문열로 하여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향의식을 작품을 통해 표출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작가는,

---

56) 이문열 문학에 나타난 재령 이씨 영해파의 제지사족적 성격은 『그대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리』, 『변경』, 『영웅시대』 곳곳에 나온다.

석보는 물론 영해를 합쳐 보아도 조선조에서의 관운은 그리 좋았던 것 같지 않다. 남인에 속해 숙종조에 잠깐 빛을 본 것 외에는 대개 사림에 묻혀 지냈다. 그러나 학문만은 인근의 대성과 어깨를 겨룰 만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7)</sup>

세월은 영악스런 개인의 편이 되고 낡은 전통과 권위는 버림 받았다. 종법(宗法)도 거대한 이기(利己) 속에 질식하여, 어디서나 추상적인 혈연의 위계(位階) 대신 현실적인 이익만이 목청을 돋구었다. 지손(支孫)들의 보살핌이 끊어진 종가는 먼저 경제적으로 문중의 그 어떤 집보다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중략> 그러면서 종손은 아무리 이익이 남아도 천한 노동이나 장사를 해서는 안 되었고, 어쩌다 타향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도 함부로 문중을 떠날 수 없다.<sup>58)</sup>

이러한 작가의 가문에 대한 자긍심은 그의 전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자랑스런 과거의 권화(勸化)였으며 우리들 모든 자존심과 긍지의 원천이었던’, 그에게 있어 고향은 혈통으로 세습된 가문의식이며 이러한 의식은 이문열의 문학 세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저대로 놔두면 가아는 무식쟁이로 굳어 노가다 밖에 안된다. <중략> 가아까지 그래 되문 우리 집안도 끝이다. <중략> 너 아버지 돌아와 우리집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는 하마 틀린 일이라. <중략> 아무리 세상 이사 달라졌다 카지마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이고 삼대불하당(三代不下堂)은 옛말이라캐도 대대로 글은 안 끊어졌는데, 내 대에 이래 결판나다이…내 죽어 무슨 낯으로 조상을 대하겠노 ” (『변경8』, p.269)

작가의 분신인 인철에 대해 형과 그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개간지를 일구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무엇보다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어머니

57)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95.

58) 이문열,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맑은소리, 2003, p.184.

의 마음과 학문에 대한 지극한 향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작가의 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학문이 모든 가치의 근원이다,’는 작가의 의식<sup>59)</sup>, 그리고 대대로 글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가문에 대한 뿌리 깊은 자부심이 이와 맞닿아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마당에는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팔은 손주 며느리의 부축에 맡긴 동곡 할배가 숨결을 고르며 서 있었다. 돌내골에 남아 있던 일문 중에서도 가장 연배가 높은 어른으로 명훈에게는 열촌척의 가장 가까운 지하(支下)이기도 했다.

〈중략〉

‘동곡 형님이 여다까지 웬일이껴?’

주계 할배가 그런 동곡 할배를 방안으로 맞아들이고 물었다. 겨우 숨을 고른 동곡 할배가 그런 주계 할배를 나무라듯 받았다.

웬일이라이? 큰 집 종부 큰집 종손이 다시 떠나간다는데 내가 어예 안 와보노? 숨이 당장 꺾떡 넘어간다문 모리까…” (『변경8』, p.273)

개간을 하여 정착을 시도하였던 인철의 가족이 다시 고향을 떠나는 날, 짐성촌 일문 중에서 가장 연배가 높은 어른이 큰 집 종부와 종손이 서울로 간다고 몸소 배웅하러 오는 장면을 통해 이문열이 가졌을 고향과 뿌리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작가의 의식 속에는 위의 글처럼 ‘큰 집 종부 큰 집 종손’을 챙기는 고향 어른의 모습이 자리잡고 있었다. 후손이 없었던 작가의 5대조께서 열촌 밖에서 출중한 인물을 찾아 양자를 들여 가문을 잇게 하려고 힘썼던 것<sup>60)</sup>처럼 그 정신이 작가에게<sup>61)</sup> 이어졌음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 짐작할 수

---

59)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학문은 모든 가치의 근원, 아니 총화였다. 그것이 과거를 통하면 권력과 부귀가 되었고, 수양을 통해 인격과 합일하면 거의 종교적인 존숭(尊崇)까지도 획득할 수 있었다. 사람의 높고 낮음, 옳고 그름이 모두 그것에 좌우되었고 때로는 가짐과 못 가짐조차 그것이 결정했다.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170) 비록 시대가 변했다해도 이러한 의식이 이문열에게 잔존함을 소설을 통해 알 수 있다.

60) 이문열의 5대조인 좌해 이수영은 운악이 자손들의 성취를 위해 고심한 것에 못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계에 대한 자긍심이 이문열의 인격 형성과 문학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문열(李文烈)은 본명이 이열(李烈)<sup>62</sup>로 1948년 서울 청운동에서 아버지 이원철(李元喆)<sup>63</sup>과 어머니 조남현(曹南鉉) 사이의 3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나

---

많은 욕심이 있었던 이로 작가는 기억하고 있다. 좌해는 마을에 서당을 열어 후손들을 교육하는데 열정적으로 나섰으며 자신 역시 벼슬에 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좌해는 음적으로 돈녕부 도정이라는 벼슬살이를 했던 분으로, 그는 그의 뜻을 계승할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된다. 유가에서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한 집안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양자를 두게 되는데, 이 때 일반적으로는 당내(堂內)에서 적임자를 골라 후사를 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좌해는 당내에 사람이 없지 않았으나 두들마을의 입향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항재의 아우인 평재 이용일의 후손 가운데 적임자를 선택해 오게 된다. 이를 영남 지방에서는 촌수를 생각하지 않고 인물 본위로 양자를 삼는다는 말인 ‘불계촌 양자’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작가는 좌해가 집안을 일으켜보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자한 좌해의 아들이요 이문열의 고조부는 매우 영민한 인물이었으나 30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음에도 문집이 남아 있을 정도로 학문과 문학에 조예가 있었으며, 다행히 아들을 둔 상태였고 그 후손이 이문열이다. (녹취, 2002. 10. 8. 이천소계부악문원)

61) 작가가 열 아홉 되던 해 고향을 찾아갔을 때 종가의 뒤안 텃마루 밑에서 문중의 어른들과 제자들이 필사한 이수영(李秀榮) 5대조의 문집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빗장을 걸어 둔 사파종가(私派宗家), 폐가(廢家)나 다름없는 텃마루 밑에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는 문집을 작가는 보자기에 싸서 서울로 돌아온다. 일반적으로 문집은 본인이 살아 있을 때 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문중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글 중에서 추리고, 행장과 서문을 받고 해서 손자대(孫子代)에 와서 내게 된다. 그러니까 월북한 작가의 부친인 이원철(李元喆)의 숙제였던 것이다. 초고(草稿)→수정(修正)→정고(定稿)→목판(木版)의 과정을 거쳐 문집이 발간된다. 후에 이문열은 문집발간을 추진하게 되는데 5대조의 『좌해문집』이 그것이다. 5대조 『좌해문집』은 이문열이 아버지 이원철을 만나러 중국에 갔을 때 가져간 것으로 가문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62) 1977년 「나자레를 아십니까」로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당선, 이때부터 이문열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63) 이문열 아버지 이원철은 『영웅시대』의 주인공 이동영으로 형상화되었고 작가가 가족사 소설이라고 밝힌 『변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경북 영양이 고향

6·25전쟁 때까지 서울 하계동과 수원에서 살았다.

내 고향은 분명 영양군 석보면 원리동이지만 불행히도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는 인연을 갖지 못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석 재산을 팔아 허망한 건국사업에 열중하시던 아버님 덕분에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 청운동의, 지금은 헐려 버린 어느 아파트였다.<sup>64)</sup>

그러나 좌익 활동을 하던 부친이 월북하는 바람에 갑자기 가장을 잃고 5남매와 시어머니만 남게 되자 그때까지 팔리지 않고 있던 고가와 전답에 의지하기 위해 어머니가 귀향을 주장하게 되고, 그는 가족들을 따라 영천군 금호면 섬들(이문열의 외가)로 내려왔다가 이듬해 영양군 석보면 원리(院理)로 돌아간다.<sup>65)</sup> 작가의 부친이 월북하기 전까지 작가의 가족은 다복하게 살았으나 부친이 월북한 이후 작가의 삶에 있어 아버지라는 존재는 본능적 공포와 경계의 대상으로 존재하며 오래도록 작가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

이며 대지 590평에 40칸짜리 본가를 둔 대지주의 아들이었다. 일본 동경농대를 유학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었고 해방 후 남로당 간부로 있었으며, 6·25 전쟁이 일어난 해에 수원농대(서울대 농대 전신)의 학장으로 있다가 9·28 수복 때 가족을 버리고 월북하였다. 당시 이문열은 3살이었으며 아버지의 월북 이후 그의 가족은 대공 수사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감시를 받는 사찰대상이 된다. 몰락한 양반의 후예로서 이른 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압박으로 안동, 서울, 밀양을 떠돌아 다녀야 했으며 치절한 삶을 살았다.

64) 이문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사색』, 살림, 1991, p.96.

65) 이 시기의 기억을 이문열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때 고향에서 머문 것은 겨우 두해였다. 전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물려와 있던 문중 형제들의 잣고 떠들썩하던 모듬과 몇 내어 불던 하모니카 소리, 계랍(벗긴 삼대)쪼갠 것에 유황을 찍어 성냥 대신 쓰던 당황(唐黃)이란 것, ㅁ자 고가 안뜰로 구성지게 떨어지던 낙숫물 소리, 밀기울과 감자 버무림, 송홧가루 다식, 공비들의 야습으로 밤하늘에 붉은 줄을 굿던 예광탄 따위가 아련히 떠오른다.’(이남호 편, 『이문열』, 웅진출판사, 1994, p.156)

아아, 아버지, 아버지.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사진조차 본적이 없는 그 막연한 추상, 그러나 집안 구석구석 살아서 떠돌며 끊임없이 재난과 불행의 먹구름을 몰고 오던 두렵고 음산한 망령, 정액 몇 방울의 의미로서는 너무 무겁던 내 삶의 부하(負荷)였으며, 알 수 없는 원죄를 내 파리한 영혼에 덮씌우던 악몽, 깊은 밤 선잠에서 깨나 듣던 어머니의 애절한 흐느낌과 몽롱한 내 유년 곳곳에 한과도 같은 그리움을 자아내던 이였으되 또한 듣기만 해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소스라쳤던 이름의 주인.<sup>66)</sup>

아버지의 월북과 함께 천석 지주였던 작가의 가족은 물질적 기반을 상실했다. 물질적 기반은 한 가족이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시민으로서 평균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문열의 가족은 월북한 아버지의 그림자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이문열의 형이 미군부대 하우스 보이로 있을 때 느닷없이 들이닥친 경찰에게 연행되어 취조를 당하고, 아무 혐의 없이 풀려났지만 그 사건으로 그의 형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다. 아무 혐의가 없어 풀려났지만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가족 모두에게 수없이 되풀이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월북자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했던 현실임을 뜻한다. 즉,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계비를 벌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것이다. 기본적인 생계비가 없는 환경에서는 인간적인 삶을 설계할 수 없다.

이렇듯 이문열 가족의 빈번한 이주의 배경에는 아버지의 월북으로 항상 경찰의 감시와 취조가 있었으며 그로인해 남겨진 가족들과 함께 이문열은 어려서부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다. 작가는 1953년 안동으로 이사하여 1954년 안동 중앙국민학교에 입학했다가 4학년 무렵에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다. 서울로 이사 한 후 잠시 중앙국민학교를 다녔으며, 다시 밀양으로 이사하여 밀양국민학교로 전학하는 등, 그의 가족은 현실의 압박으로 한 곳에 안주할 수 없었다. 이사라고 하나 이불과 옷가지, 그리고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짊

---

66) 이문열, 『변경』, 문학과지성사, 1992, p.19.

보따리를 가지고 가족이 살 곳을 찾아 이동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밀양에서 산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이문열에겐 제2의 고향으로 자리잡는다.

밀양은 여러 가지로 내게 감회 어린 도시다. 내가 밀양으로 간 것은 열 살 때이고 떠날 때가 열네 살 때였으니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셈이다. 내 애뜻한 유년의 추억은 거의 밀양에서의 것이고 내 친구의 대부분도 그때 사귄 친구들이다. 이제는 만난 지 40년이 가까워 오는 친구들, 거기다가 내게 유일하게 졸업장을 준 밀양국민학교가 있다.<sup>67)</sup>

극도의 가난으로 가족들은 해체되고 이문열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간 고아원 생활<sup>68)</sup>을 하다가 밀양중학교에 입학한다. 그것도 잠시, 입학한 지 6개월만에 중퇴하고 다시 고향 영양 석보로 돌아가야 했다. 그때 그는 초동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향과의 친화를 경험하고 명심보감(明心寶鑑)과 소학(小學)을 배우며 자신의 가문에 대한 뿌리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이 시기에 대해 이문열은 ‘고향에 머문 것은 겨우 삼 년 정도였지만, 내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세월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문중이란 것을 알았고, 자연과의 친화를 경험했으며, 노동과 생산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삼 년이 아니었던들 나는 도회적인 감수성만으로 문학을 시작했을 것이다’<sup>69)</sup> 라고 술회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큰 형을 도와 황무지 2만평을 개간하는 일을 하며 지내게 된다. 그 후 검정고시를 거쳐 안동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1965년

---

67) 이문열은 밀양에 대한 인상을 여러 작품에 쓰고 있는데 특히 자전적인 내용이 강한 『변경』에 보면 유년의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이남호 편, 앞의 책, p.157)

68) 고아원 생활의 체험적 묘사가 「나자레를 아십니까」, 『변경』 두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사람의 아들』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69) 이남호 편, 앞의 책, p.158. 작가는 자신의 모태공간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장편 소설을 써 발표하게 된다.

에 중퇴하고 부산으로 가출해서 방황하다가, 1967년 반년가량 중병을 앓은 뒤 대학진학 준비를 하여 1968년 대입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로 진학했다. 대학에 입학한 첫해는 사대문학회 동아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생활을 하나 그때까지는 작가가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후에 역사가가 되던 무엇이 되던, '좋은 문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장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화가가 되기 위해 데생을 많이 하듯이 일기를 쓰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글을 쓰는 등, 나름대로의 문장 훈련을 했다고 한다. 그가 글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소하게는 행적에 대한 기록이 감시자에게 부재 증명을 위해 유용한 단서로 제시되었으며, 크게는 장황한 말보다 글투를 갖춰 논지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냄에 있어 효과적이고 위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과 제도교육권 밖에 있었던 시간이 많아 무엇이든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68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끝은 보지 못했다. 첫해는 두어달 다니다가 못 견뎌 집으로 내려갔고, 다음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올라왔으나 역시 그 한 해를 겨우 배겨난 것으로 그만이었다. 69년 2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떠난 뒤 나는 끝내 돌아가지 못했다. 언젠가 한번 돌아갈 마음이 생겨 학과장이었던 교수님께 글을 낸 적이 있는데 답신이 오기를 돌아오지 않는 게 좋겠다 했다. 돌아오지 말라고 한 교수님이나 그런다고 안 돌아간 나나 지금은 얼른 이해가 안 된다.<sup>70)</sup>

세상은 점점 더 학벌을 중히 여기는데 난데없는 오기 하나로 내팽개치듯 버리고 떠난 학적(學籍)은 그사이 지워져 돌아갈 곳이 없었다.<sup>71)</sup>

---

70) 이문열, 「이우는 세월의 바람소리를 들으며」, 『이문열 문학앨범』, 이남호 편, 웅진출판, 1994, p.159.

사르트르의 저서를 섭렵하다가 자신의 무지를 통탄하고 대학에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독학으로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 작가는, 학업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학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작가는 후회하는 심정을 이처럼 드러내었다. 가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문의 길에서 중도하차한 것에 대한 아쉬움, 비정한 학력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대학 중퇴의 학력으로 살아오며 가졌을 복잡미묘한 심리 곡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토로이다.

이문열은 학업을 포기하고 1969년부터 고시준비를 시작하는데 사법시험에 몰두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경찰의 감시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고시 공부를 시작하여 1970년부터 73년까지 세 차례 거듭되는 낙방을 경험하고 좌절의 세월을 보냈다.

고시에 인생을 걸었으나 실패하고, 문단데뷔도 실패하자 작가는 1973년에 결혼과 동시에 군에 입대하여 통신 보급병으로 서울과 서부전선에서 근무하였다. 1976년 군에서 제대한 후 대구의 학원가에서 강사를 하며 한동안 전전하다가 1977년 「나자레를 아십니까」로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입선한 후 1978년 매일신문사 22기 기자로 입사한다. 그리고 3년여의 신문사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정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전하며 제도 속으로 발을 들여 놓고자 힘쓴다.

1979년 「새하곡」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장편소설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인기작가가 되었다. 1981년 『젊은 날의 초상』, 1982년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를 출간했다. 1982년 『금시조』로 동인문학상을, 1983년 『황제를 위하여』로 대한민국 문학상을, 1984년 『영웅시대』로 중앙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 1987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고, 1991년 『시인』을 출간하였으며, 1992년 「시인과 도둑」으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92년에는 정부에서

---

71) 이문열, 「술단지과 잔을 끌어당기며」, 『술단지과 잔을 끌어당기며 -이문열 중단편전집 6』, 아침나라, 2001, p.141.

문화 분야에서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창작활동과 세종대학 교수직<sup>72)</sup>을 병행하다가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다. 그는 산문집 『사색』과 『시대와의 불화』를 출간했으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평역 삼국지』 10권과 『수호지』 10권, 『선택』, 『아가』, 『변경』 12권, 『술단지과 잔을 끌어당기며』 등 많은 작품들을 출간하였다. 2004년에는 『이문열의 세계명작 산책』 10권을 재출간하고 『신들메를 고쳐 매며』 산문집을 출간하였다. 이렇듯 지금까지 왕성한 창작열로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2005년 현재 60여 편에 이른다. 그 중에서 예술적 가치가 검증된 이문열의 작품들은 국외에서도 알려져 2005년 현재 15개국으로 45여 편이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 2. 문학관

이문열이 작가가 된 배경과 문학관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깊다. ‘아버지가 내 삶에 끼친 영향은 거의 모든 방면에 걸친다. 나는 어려서부터 관리가 되는 일과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일과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직장을

---

72) 작가는 대학에 몸담았던 3년의 세월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에 대학으로 갔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흔 중반이었던 그때의 심정으로는 중학교와 학원에서, 또 가정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고 서울 사대를 다녔으며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는 생각과, 아울러 대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학문적으로 긴장도 하고 젊은 세대와 호흡을 하게 되면 창작활동에도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3년 해보니까 교수란 전문성이 있는 직함이고, 충분한 시간이 없어 작가로서의 부담도 되고, 나름대로 좋은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업 역시 작가로 이미 획득한 명성으로 메운다는 불성실한 면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국문학을 제대로 전공한 교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창작활동에 전념하고자 강단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녹취, 2004. 6. 2. 이천소개 부악문원)

가지는 일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상태는 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또 그의 부재(不在)에 따른 가계(家計)의 파탄은 나를 정규교육과 먼 사람으로 만들었다. 무엇이든 홀로 배우고 사유하고 깨우쳐 가야 하는 정신적인 성장 과정은 뒷날의 내 사고 형태와 행동 양식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 내가 문학과 친하게 되고, 이윽고는 한 소설가로 결정되고 만 것도 그런 성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sup>73)</sup>, 땅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별난 사랑과 추구<sup>74)</sup>, 그리고 흔히 허무주의로 해석되곤 하는 내 세계관 같은 것들도 많은 부분은 내 아버지가 내게 조성해 주고 간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sup>75)</sup>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좌익 사상을 가졌던 아버지의 월북, 그로 인한 내상(內傷)으로 고통 받아 온 이문열의 문학적 여정은 내상의 치유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문열 소설과 삶의 바탕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해 제도의 핍박과 가난 때문에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홀로 배우고 깨우쳐야 했던 작가의 성장환경, 그것이 마침내는 그로 하여금 말과 글로 그 생각과 느낌을 펼쳐 내게 하였을 것이다. ‘내가 이윽고 한 작가로 끝장을 보게 되고 말리라는 조짐은 일찍이 내 인생 도처에서 보여져 왔다. 내게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노력해서 그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방면에서는 언제나 상당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 적이 없다. 내가 숙명적으로 한 작가가 되리라는 예감을 갖게 된 것은 실로 그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

73) 나는 틀림없이 연좌제로 고통 받았으나 그 때문에 아버지의 사상을 혐오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싫었을 적 어느 시기까지는 그 사상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호기심을 가졌고 근거 없는 호감까지 품었다. 이러한 예는 나와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에게도 잘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공산주의자의 후예가 아버지로 인해 겪은 고통 때문에 우파로 돌아서지 않는다. 내가 이념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내던진 아버지의 삶이 그가 그리워 찾아간 공화국에서조차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듯한 간접 증거들이 내게 전해져 오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74) 이 부분은 낭만성과 관련지어 뒤에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된다.

75) 이문열, 「나의 삶 나의 문학」, 『시대와의 불화』, 자유문학사, pp.272-273.

내가 작가가 되려는 것은 기쁜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극히 수동적인, 예감에의 복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능동적으로 나는 내 운명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작가가 되어야겠다.'<sup>76)</sup> 비록 현실에는 부재하지만 작가의 아버지는 작가의 무의식 속에서 삶을 지배하는 존재로 살아 있었고 문학적 승화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월북자 가족이 이문열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다<sup>77)</sup>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문열이 숙명적으로 작가가 되리라는 예감에 순응하며 그 쪽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문열이 사범공부에 매달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위의 일기에서 작가로 끝장을 보겠다는 결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범고시 준비로 삼년간이라는 청춘의 시간을 보낸다. 그것은 자신의 궁극적인 도달점인 문학으로 가는 도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문열이 작가가 된 것은 이렇듯 우연이 아닌 기쁜 신념에 의한 것이며, 이문열 일가의 기질이 운명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로서는 밝혀주기 싫거나 바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리고 초자아의 결여라는 말로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는 아버지의 부재(不在), 알지 못할 불안에서 나중에는 피해망상으로까지 발전해간 연좌제(連坐制)의 그늘, 작은 파산(破産)에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과 다름없던 가계(家計), 한 곳에서 3년 이상을 머문 적이 없을 만큼 떠돌이에 가까웠던 생활, 불규칙한 데다 중단되기 일쑤였던 학업, 그러면서도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할 만큼은 아니어서 학교에 묶여 있던 또래의 아이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던 여유 - 이런 것들은 한 말과 글의 사람을 길러내는 토양<sup>78)</sup>으로 매우 그럴 듯해 보인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빈둥거리며 책

76)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112.

77) 이남호, 『이문열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995, p.167. 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글을 쓰게 된 배경에 아버지의 부재가 문학의 좋은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월북자의 가족이 다 작가가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오이디프스적 감정과 가난이 자신의 문학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의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월북자의 가족 중에 작가가 된 사람으로는 김원일, 김원우 형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을 읽거나 몽상에 잠길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은 나 자신도 내가 오늘에 이르는데 거의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으리라<sup>79)</sup>

그리하여 이문열은 소설가가 되어 지방에서의 신문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전업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그의 소설은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게 된다. 이문열 소설이 출간되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중성을 확보한 데는 당시의 사회상과 이문열 문학이 주는 교양적 체험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먼저 당시의 사회상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이문열의 소설이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기 시작한 80년대는 운동의 문화, 이념의 문화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시대였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의 삶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리로 인식되었던 이데올로기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증폭된 것은, 허용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대중이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국민들의 지적수준이나 사회적 의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증가로 여유 계층이 확대되어 이들이 문학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으며, 문학 소비층의 증가는 출판 상업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교육열의 결과로 고학력층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고학력층 독자들의, 교양에 대한 요구가 한층 다양해지고 깊어졌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문화, 이념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80년대 시대상황을 떠

---

78) 떠돌이에 가까웠던 생활과 불규칙한 학업, 그리고 빈둥거리며 책을 읽거나 몽상에 잠길 시간이 많았던 작가의 생활과 아버지가 부재하지만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가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계자(季子)라는 위치가 그에게 낭만성향을 길러주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가부장제도 하에서 장남의 역할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이문열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작가가 그나마도 장남이 아닌 계자(季子)이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로인해 다양한 경험들이 그의 문학의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79)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90.

올려 볼 때, 이러한 문학 소비층들의 새로운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이들은 이문열 소설의 폭넓은 주제와 독특한 문체, 소설로 얻는 교양적 체험에 비중을 두고 책을 선택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작가의 문학관과 관련이 깊은 부분이다. 이문열의 글에서 만나는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필력은 그의 소설에서 교양적인 요소로 드러나는데, 그러한 결과는 그의 남독(濫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독서 편력은 순탄하지 못했던 성장기와 맞물려 남다른 데가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은 『걸리버 여행기』를 시작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사에서 발행한 『소년소녀 명작문고』와 『이방인』 등을 읽었고 졸업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육 개월 가량 수용시설에 머무르며 『폭풍의 언덕』, 『삼국지』 등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고향 석보로 돌아간 뒤에는 문중 형제들이 보던 책을 빌려 당시의 인기 소설과 『전쟁과 평화』, 『부활』을 비롯한 세계 명작을 남독하였다. 비록 중퇴로 학업을 중단하였지만 안동고등학교 시절에는 도스토예프스키 소설들과 플루타르크 영웅전, 나폴레옹 전기문, 샤프트르, 헤밍웨이, 노벨 문학 수상작품집 등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헌 책방에서 구입하여 탐독한다.

그런 후 이문열의 본격적인 남독은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때 그는 고향에서 개간지를 일구며 살다가 가출하여 부산의 헌 책방에서 기숙하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섭렵한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에 진학<sup>80)</sup>할 때까지 2년, 그리고 고시준비를 위해 대학을 그만두고 돌아와 보낸 1년, 도합 3년 동안 아무 목적없이 독서로 세월을 보낸다<sup>81)</sup>. 주로 소설을 읽다가 독서의 경향이 변해 정서적인 쪽

---

80) 작가가 21세 되던 196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과로 진학하였고 작가가 될 생각으로 사대문화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생활고와 여러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고 밀양 석골사로 들어가 사범시험을 준비한다.

81) 이에 대해 이문열은 작가가 안 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되어버린 느낌이라고 말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 10년이라는 수학 기간이 소요되는데 작가가 학교를 다닌 기간은 통산해봐야 2년 8개월 정도였으며, 학교에 다니지

보다 사변적인 쪽에 치우쳐져 역사와 철학서도 탐독한다. 테칸쇼(테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를 묶은 일제시대 지식인들의 조어)에 도전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문열이 정신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르트르의 저서를 처음 읽게 된 것은 그의 나이 열일곱이고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의 책을 두루 읽다가 다시 사르트르의 책을 탐독하게 된 것은 2년 후가 된다. 이 시기를 작가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 중의 하나라고 고백한다.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남독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에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고 독감으로 오진해서 병을 키워 병으로 두 달, 그리고 회복하느라 대여섯 달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때는 특히 술 한 잔이나 약간 무리한 산보에도 발열이 계속되어서 그 긴 회복기를 독서만으로 견뎌야 했다고 회상한다. 그 무렵에 작가는 니체에 심취하게 된다.

그는 분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었다. 나는 그의 권력에 의지와 초인의 교설에 빠져 나머지 회복기를 보내었다. 그의 표현은 너무도 잠언적이었고, 그의 초인은 그가 애써 부인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대지에서 유리된 이상형으로 느껴졌다. <중략> 내가 다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일단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접근한 것이 사르트르였다. <중략> 어쨌든 - 닥치는 대로 그의 저서를 섭렵한 후에 나는 문득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속수무책으로 그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무지가 통탄스러웠던 것 외에도 그에게서 어떤 사표(師表)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sup>82)</sup>

닥치는 대로 사르트르의 저서를 섭렵한 후에 속수무책으로 그의 사상을 받

---

않은 7년 2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한다. 가난과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돈을 꼭 벌어들여야 하는 위치도 아닌, 그야말로 무위도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책 읽기에 재미를 붙였고, 어느 시기까지는 재미있는 문학작품에 심취했다고 한다. 그런 생활의 결과로 소설이 재밌다, 이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다, 해보니 되네, 하는 식으로 어느 순간 지향과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녹취, 2004. 6. 2. 이천소재 부악문원)

82) 이문열, 「나는 펜을 검처럼 생각해 왔다」, 『시대와의 불화』, 자유문학사, 1992, p.59.

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지가 통탄스러웠으며 또한 사르트르에게서 어떤 사표(師表)같은 것을 보고 문득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건달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사대에 진학하게 된다. 짧은 대학생활이었지만 그는 그때 한국의 장편소설들을 읽게 되고 문학회 회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대학을 자퇴하였다. 그때부터 군입대 할 때까지 떠돌아다닌 4년 동안 법학, 인문사회학, 동양학, 불경, 기독교 서적들을 탐독하게 된다. 그의 이러한 독서 편력이 그의 작품에 녹아들어 있어 그의 소설이 지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비판 받기도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선생님 소설의 독자들 중 핵심층은 대학생, 회사원, 관공서 공무원, 주부 등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며 우리나라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세력들입니다. <중략>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선생님 소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체제나 가치 체계에도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현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할 때 이선생님의 소설이 거기에 좀더 세련된 논리를 부여해 주는 기능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선생님의 소설은 지적이라는 좋은 평가와 함께 비판도...<sup>83)</sup>

지적(知的)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문열은 소설의 교양주의적 요소<sup>84)</sup>를 언급하는데 이는 이문열의 문학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가 말하는 교양주의적 요소는 계몽과는 다른 의미로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지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그것이 대단한 자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독자가 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을 읽음에 있어 누구나 일정한 양의 교양적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sup>85)</sup> 우리 문학은 이를 너무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면서 자신이 작가가 되고 난 후에 남보다 더 그 부분

83) 이문열, 「소설적 자전 자전적 소설 - 문학평론가 홍정선 씨와의 대담」, 『시대와의 불화』, 자유문학사, 1992, pp.241-242.

84) 앞의 책, 『시대와의 불화』, p.242.

85) 앞의 책, p.242.

을 챙기게 되다 보니까 지적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자신이 남독을 할 때 소설에 기대한 것 중의 하나로 지적 욕구가 있었고,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글을 쓸 때는 언제나 독자들의 욕구를 기억하려고 애쓴다고 한다.

“친구여, 그러나 내가 받은 저주는 거기서 끝나지만 않는다. 내게는 또 나의 괴롭고 긴 밤이 있다. 겨우 5장의 쓸 만한 원고를 얻기 위해 1백장의 파지를 내며 지새우는 밤. 그나마 우리가 천 번 만 번 글을 써본들 역사는 오직 제 갈 길로만 갈뿐이라는 데서 오는 무력감으로 지새 버리고”<sup>86)</sup>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 쏟는 작가로서의 치열한 정신이다. 5장의 쓸만한 원고를 얻기 위해 1백장의 파지를 내며 지새운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작가의 고뇌와 성실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독자들의 욕구를 기억하고 공을 들여 쓴다는 작가의 고백을 통해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글을 쓰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이문열의 독서는 입대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sup>87)</sup> 결혼을 하자마자 입대<sup>88)</sup>한 그가 고참이 되었을 때 『당음(唐音)』<sup>89)</sup>을 입수<sup>90)</sup>하게 되는데 그 책에 매료

---

86) 『시대와의 불화』, p.67.

87) 이문열의 연보, 이남호 편, 문학앨범 『이문열』, 이문열의 산문집 『시대와의 불화』, 『사색』, 『이문열 論』, 『작가세계』(1989년 여름호), 『변경』 등을 참조.

88) 대학을 중퇴하고 사법고시에 매달렸으나 세 번의 연이은 실패를 경험한 후 방향을 전환해서 신춘문예(문학으로의 입성)에 도전하지만 여의치 않자 1973년에 연애결혼과 동시에 늦은 나이로 군에 입대한다. 이 때의 군대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중편 「새하곡」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평단과 독자의 주목을 받는다.

89) 본서명은 『당음정선(唐音精選)』으로 한시 입문자를 위하여 중국의 『당음(唐音)』을 우리 기호에 맞게 발췌하여 조선시대 서당에서 주로 여름철에 익히던 한시(漢詩)교재이다. 여름철에 소리 높여 음악공부를 하는 것같이 교습되어 율격 취득과 함께 정서적인 면도 있었다. 본서는 원나라 양사평(楊士宏)이 당나라 사람의

되어 완전히 외우게 된다. 유가교양으로 한학의 기초를 이미 가진 그가 『당음(唐音)』을 탐독(耽讀)한 결과로 한시(漢詩)의 운자(韻字)와 율격(律格)을 습득하였고 서정성까지 얻게 된 것이다. 현대문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운율성과 한문투 문장의 특징인 현학성<sup>91)</sup>을 이문열 문장이 지니게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다른 한편 그러한 경험은 순탄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도 처지와 무관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생을 긍정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거나 동경하는 인생관을 갖게 하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중퇴와 사법고시의 실패를 경험하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늦은 나이로 입대한 그에게 독서마저 자유롭지 못한 군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주던 책이 『당음(唐音)』이었던 것은 이 책을 통해 그가 자신의 정신과 감성 속에 숨어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당음』을 통해 만나는 유교문화 및 문학적 세계와 선비로서의 지사정신(志士情神), 그리고 자신의 조상과 동일시하는 의식 등이 그의 인생관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가 문단에 데뷔한 후 자연스럽게 등장한 화두(話頭), ‘왜 작가가 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그는 ‘쓰는 일’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다.

---

시작품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편찬한 것으로 시음(始音) 1권, 정음(正音) 6권, 유향(遺響) 7권 등 총 5책 1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90) 문단 입성도 고시도 실패하고 늦은 나이로 결혼하자마자 입대한 이문열에게 그의 아내 박필순(朴畢順)은 문고판으로 나온 『당음(唐音)』을 두세장씩 뜯어서 편지 속에 넣어 보냈다고 한다. 군대에서 책을 본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문열 역시 보초를 서거나 하는 동안 두세장을 외우고 없었으며, 그런 식으로 제대할 때까지 영문판 서양철학사 등, 이문열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보냈다고 한다. 이문열은 제대 후에 『당음』과 『고문진보(古文眞寶)』, 『문심조룡(文心雕龍)』을 탐독하게 된다. (녹취, 2004. 6. 2. 이천소재 부악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적 특성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91) 이 부분은 문체의 양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내가 받아온 교육과 자라난 환경은 쓴다는 일 - 특히 현대적인 의미의 문학 - 에 그리 우호적인 것은 못되었습니다. 일찍부터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들을 떠돌며 살았지만, 정신적인 교육환경은 전통적이고 소박한 유가(儒家)의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어린 내가 고향을 통해 습득한 것은 언제나 공명(功名)이나 천하경륜(天下經綸)이란 말과 관련을 가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자 자신도 ‘선비가 덕을 쌓고 학문을 닦는 것은 상인이 좋은 구슬을 가지고 팔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한 말이나 무도한 반란자라도 자신의 경륜을 펴게 해주면 달려가 도우려고 한 것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자연히 도덕이나 문학은 수단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예(藝)나 기(技)는 다시 그 하위에 놓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문학이든 학문이든 예술이든 그 자체가 완성된 가치 형태를 떨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지학(詞章之學)이란 기껏 선비의 장식물로 여겨지거나...<sup>92)</sup>

문학하는 행위를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해 온 그가 문단에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그는 작가가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버렸다고 한다. 자신이 작가가 되기 직전까지 도망치려고 애썼던 것은 바로 그 불길한 운명, ‘쓰며 살게 되리라는 운명’에서였다고 말하<sup>93)</sup>며 쓰며 살게 되리라는 운명에서 탈출을 감행하나 실패하였다고 고백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패란 작가가 사법시험에 매달렸으나 그 관문을 뚫지 못한 사실을 말한다. 사법고시는 조선시대의 과거에 비유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는 한 가문이 세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가문의 구성원 중에서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나와야 했다. 이문열이 서울사대를 휴학하고 사법시험에 매달린 행위에는 제도를 통한 사회진출(권력)에 대한 욕망이 내재해 있었다. 이는 문학을 권력의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가 쓰며 살게 되리라는 운명으로부터의 탈출에 실패하고 다시 문학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sup>94)</sup> 참회하

92)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p.28-29.

93) 앞의 책, p.29.

94) 이것저것 다 실패하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는 기분으로 문학 자체의 연마<sup>95)</sup>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습작시대는 물론 지금도 나의 쓰는 행위가 주로 의지하는 바는 그것이 무엇을 내게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에 필요한 최소한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욱 즐겁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덜 괴롭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문학은 낙관을 위한 낙관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내 비관주의의 바다에 드물게 남겨진, 그리고 어찌다 내가 가장 가까워 쉽게 헤어지게 된 섬이며, 쓴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절망적으로 매달리는 행위일 뿐<sup>96)</sup>’ 이라는 고백에서 작가에게 있어 문학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 수 있다.

내가 작가가 되려는 것은 기쁜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극히 수동적인, 예감에 의 복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수동적으로 나는 내 운명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중략> 소설은 내 지상(至上)이며 문학은 내 종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전부여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중략>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간성의 정치적인 측면과 또 그것이 조직한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를 규율하는 법과 질서를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중략> 내게 남겨지는 더 큰 것은 뒷날 내 문학이 의지할 한 든든한 밑천이다.

그런 다음 나는 인류의 지나온 바 발자취와 문화란 고급한 형태의 정신적인 성취의 집적을 섭렵할 것이고, 그동안 그들이 사유하고 탐색해낸 더 많은 진리에 내 정신을 바칠 것이다. 그리하여 때가 왔을 때 - 드디어 내가 나뉠대로나마 세계와 인생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믿음이 설 때 - 나는 그때껏 몰두했던 것을 훌훌히 털고 원래의 목표로 돌아가리라. 궁극으로 지향했던 내 자신으로, 쓰고 살게 되리라는, 오, 쓰고 사랑하며 살게 되리라는 그 예감으로, 운명으로 돌아가리라.<sup>97)</sup>

---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결론이 문학이었다고 한다.(녹취, 2004. 6. 2. 이천소재 부악문원)

95) 이와 관련하여 송성욱은 작가가 ‘실제로는 소설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실재하는 현실의 경험으로 읽히게 하거나 작가 자신을 단지 전달자일 뿐이라는 효과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가가 일인칭 서술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성욱, 「이문열의 고향 의식과 사대부 정신」, 『이문열』, 살림, 1993. 참고.)

96) 『사색』, p.31.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작가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문학관을 엿볼 수 있다. 문학이 오묘한 진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심성을 맑게 하는 도구로서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는 ‘문이재도설(文以載道說)’ 즉, 인간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의 진실을 아는 것이며 하늘은 곧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의 본성을 되돌려놓는 것이 바로 문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문이재도’란 글은 도를 신는다는 뜻으로 문의 하나로서의 소설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교훈을 싣고 있다는 뜻이다. 문이재도설은性情(性情)을 근본으로 함을 전제로 하고 문학은 사상(道)를 담아서 사회의 교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문학의 효용적 가치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 문열은 문이재도에 도달함에 있어 즐겁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덜 괴롭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이문열의 문학관은 그의 예술가 소설 『시인』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제 값어치로 홀로 우뚝한 시(詩), 치자(治者)에게 빌붙지 않아도 되고 학문에 주눅이 들 필요도 없다. 가진 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못 가진 자의 증오를 겁낼 필요도 없다. 옳음의 자로써만 재려 해서도 안 되고 참의 저울로만 달려해서도 안 된다. 홀로 갖추어었고, 홀로 넉넉하다.<sup>98)</sup>

시는 도가 아니다. 도(道)도 틀림없이 만상의 원뜻을 보기는 하되 그걸 무언가 하나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시는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본다. 또 도는 궁극적으로 이 세계를 뛰어 넘으려 하지만 시는 남아 있어 이 세계와 하나가 되려 하는 그 무엇이다.<sup>99)</sup>

---

97) 『사색』, pp.112-113.

98)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141.

99) 『사색』, p.142.

이문열은 이 소설에서 시란 과연 무엇이며,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시는 그 자체가 어떠한 쓰임과도 관계없는, 스스로 자유와 충만을 주는 자족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설이란 과연 무엇이며, 소설가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대체하여 해석할 수 있겠다. 『시인』에서 김병연이 삶의 궤적에 따라 시적 변모를 겪으며 마침내 <참시인>에 도달한 것처럼, 이문열의 문학관 역시 조금씩 변모 양상을 보이는 것이며 마침내 그 자체로서 분명한 존재이유와 자기 목적성의 경지에 이르러자 함일 것이다.

때로 그는 밤을 새워 글을 쓰다가도 ‘이 무슨 쓰잘데없는 짓인가’하는 기분으로 비참해질 때 사르트르가 한 말 ‘오랫동안 나는 펜을 검처럼 생각해 왔다. 이제 와서는 나도 우리의 무력함을 알고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글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쓸 것이다.’는 말을 되뇌는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옛 스승인 사르트르의 정신, ‘예술의 세계, 소리나 말이 필연적으로 이어지고 어떤 우연성의 침범도 받지 않는 자족적인 세계’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현실에서는 울분과 한을 풀어낼 길 없는 외로운 영혼이 예술(소설)로 지고한 곳에 다다르려 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이문열의 문학관이 아닐까 한다.

### Ⅲ. 낭만성의 연원

특정 작가를 문예사조상의 어느 유파에 가깝다고 규정하는 것은 작가의 자유로운 정신과 독자적인 개성을 정형화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연구자는 이문열의 소설 속 인물들이 거부할 수도 도피할 수도 없는, 막강한 압력으로 존재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지향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에 관류하는 정신을 낭만성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동시대의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그만의 개성을 뚜렷하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일까? 또한 문단적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하게 된 데에는 어떤 내막이 숨어 있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안고 작가가 낭만성향을 갖게 된 연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아버지의 부재와 보상심리

이문열 소설의 낭만성을 언급하기 위해 무엇이 작가로 하여 그러한 성향을 갖도록 하였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들의 성향<sup>100)</sup> - 자유의 반대편에 있는 억압에 대한 저항,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여기가 아닌 저기를', '지금보다 나은 삶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대응자세' - 은 작가의 성장환경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소설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체험 역시 체험이며, 직접적인 체험을 그대로 소설적 상황으로 차용

---

100) 작품들 전반에 흐르는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그해 겨울」, 「이 황량한 역에서」, 『시인』, 「폐원」 등, 초기작품에 많이 드러난다.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작가의 작품은 <체험>과 <창조>의 혼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소설은 자전적이며 동시에 모든 자전은 소설적인<sup>101)</sup>것인데 이문열과 그의 문학과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문열의 삶이 유난히 굴곡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그의 연보와 자전적 성격이 강한 작품<sup>102)</sup>을 읽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년기의 억압과 좌절은 사람의 성격구조를 형성하는 결정적 기제로 작용하며 사람에게 따라서는 평생에 걸쳐 운명의 그림자를 만들기도 한다. 아버지의 좌익 활동과 월북, 그로인한 유년의 가난과 공포는 이문열로 하여금 평생 씻지 못할 정신의 강박관념을 형성한다. 작가의 자전적 소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유년을 지배한 것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공포와 혼란의 정서였다. 그가 세 살 되던 해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남로당계 중간 간부급이었던 부친의 월북으로 가족의 현실적인 고통이 시작된다.

“글마 아나? 빨갱이 새끼데이.”

<중략>

“그라든 우리 글마하고 놀지 말자.”

“맞다, 글마가 커서 우리 잡아먹으믄 우야노?”<sup>103)</sup>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인철은 되도록 명백한 소재 증명을 남겨두려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북한 대사관이 나와 있는 제3국을 여행할 때가 그랬는데<sup>104)</sup>

『영웅시대』에서 철이로 나오는 인물은 이문열의 분신이다. 실제로 이문

---

101) 김종희, 「문학의 외길로, 지천명의 언덕을 넘어」, 『문학의 숲과 나무』, 민음사, 2002, p.274.

102) 『젊은 날의 초상』, 『영웅시대』, 『변경』 등에 투영되어 있다.

103) 이문열, 『영웅시대 2』, 민음사, 2001, pp.729-730.

104) 『변경 11』, p.181.

열은 ‘빨갱이 아버지’를 둔 아들로써 위의 글처럼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항상 피해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했으며 또한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며 가족 해체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 했다. 그 모두가 부친이 월북했기 때문이었다. 집안은 몰락하고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하에 자주 이사를 했으며, 가난과 핍박이 그의 가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지 예측 못할 공포스런 공기를 느끼며 살아야 했다. 이처럼 온 가족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사라진 그 ‘부재하는 아버지’는 그러나 단순한 증오의 대상만은 아니다.

아아, 아버지, 아버지.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사진조차 본 적이 없는 그 막연한 추상, 그러나 집안 구석구석 살아서 떠돌며 끊임없이 재난과 불행의 덩어리를 몰고 오던 두렵고 음산한 명령, 정액 몇 방울의 의미로서는 너무 무겁던 내 삶의 부하(負荷)였으며 알 수 없는 원죄를 내 파리한 영혼에 덮여우던 악몽, 깊은 밤 선잠에서 깨나 듣던 어머니의 애절한 흐느낌과 몽롱한 내 유년 곳곳에서 한과도 같은 그리움을 자아내던 이였으되 또한 듣기만 해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소스라쳤던 이름의 주인..<sup>105)</sup>

위의 글에서 드러나는 인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이다. 그것은 ‘삶의 부하’이며 ‘악몽’이지만 한편으로 그 아버지는 ‘내 유년 곳곳에서 한과도 같은 그리움을 자아내던 이’였다. 『변경』에서 명훈이 간첩으로 납파된 아버지와 접선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취조를 받아야 했을 때 영희가 ‘아버지, 그렇게라도 와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문열에게 있어 아버지란 집안을 몰락시키고 처자식을 고생시키는 존재이며, 그럼에도 핏줄이기에 간절히 그리운 존재이자 그가 돌아오면 모든 굴레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비록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고통만 주는 아버지이지만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하는 가정은, 혹은 그가 저

---

105) 『변경 1』, p.19.

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작가에게 상상력을 길러 주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부재한 어두운 현실로 아버지가 돌아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작가의 의식 속에 공존함으로, 그 힘으로 작가는 어두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작가는 서른 살이 넘도록 부친으로 인해 인생의 많은 가치 박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에게 있어 아버지라는 존재는 ‘알 수 없는 원죄’였으며 자신과 가족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두렵고 음산한 명령’이었다. 이에 대해 이문열이 지닌 태도는 ‘본능적인 공포와 경계’<sup>106)</sup>였으며, 원망과 적의의 오랜 세월이 작가를 괴롭혔다. 아버지가 월북한 이후부터 가족들은 가난과 꺾박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전학을 자주하고 생활고로 인해 자의식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소년은 고아원 생활을 해야 했으며, 중·고교입학과 중퇴, 방황, 대학 입학과 다시 중퇴, 고시준비와 실패, 이렇듯 성장기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고행길을 걸어야 했다. 학원 강사, 신문사 기자 생활 등, 작가로 데뷔하기 전까지 그가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겪어야 했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참으로 컸을 것이며,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인 ‘신산스런’ 분위기가 작가를 무겁게 가두었을 것이다. 오래도록 그러한 분위기에 짓눌려 살면서 그 ‘간힘’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꺾끗이 견디어 내기 위해서 작가가 스스로 생을 긍정하고 사물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 낭만성향이 길러지고, 낭만성은 작가에게 현실을 극복하는 에너지로 작용했을 것이다.

월북자나 부역자의 버림받은 자식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통된 정신의 단계가 있다. 하나는 아버지와 그의 이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단계요, 다른 하나는 흥미와

---

106) 경찰력, 특히 사복 형사로 상징되는 보이지 않는 경찰력은 내 알지 못할 원죄 추적자로서 내 짧은 날 거의 전부를 끈덕지게 괴롭혀 온 공포 그 자체였다. 어렸을 적, 다른 아이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으로 사자나 호랑이 또는 드라큘라나 유령 따위를 칠 때도 나는 그들 윗자리에 형사를 놓아두었다.(이문열, 『변경1』, 문학과 지성사, 1998, p.30.)

동경의 단계다. <중략> 단계의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동시적이기도 하다. 또 그런 단계들이 개인의 정신에 남기는 흔적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으로만 결정되고,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의 적(敵)에 대한 때늦은 복수감으로 자리 잡으며, 드물게는 객관성을 유지한 채 그들과 화해와 타협을 시도하기도 한다.<sup>107)</sup>

이문열이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문열의 문학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롯된 '절망적인 현실'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려는 몸부림, 즉 보상심리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의 아버지가 월북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문열은 온갖 가치 박탈을 체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월북하였고 그로인해 이문열과 그의 가족은 온갖 가치 박탈의 체험을 겪어야 했다. 그러한 체험을 할 때마다, 정착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감시와 극도로 가난한 현실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는 지금 '이곳'이 아닌 '저곳'을 상상했을 것이다.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상상 속의 '저곳'이란 분단이 해소되어 이념 대립이 없고, 한 인간이 상처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계획 하에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일 것이다. 절망적인 현재를 대신할 '그무엇'에 대한 동경을 품고 시대와의 불화를 겪으면서도 그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렇듯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하는 작가의 낭만성향은 압력으로 지배하는 현실 이데올로기에 맞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작품 속 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그의 낭만성향은 아버지의 월북과 그로인해 야기된 삶의 그림자로 인해 생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내상(內傷)의 보상심리에서 비롯되어 소설 속의 인물들에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07)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184.

## 2. 선민의식과 사회적 불화

이문열의 낭만성향 동인 중에 두 번째로 선민의식과 사회적 불화를 들 수 있다. 그는 고귀한 혈통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하여 비록 현실은 구차하지만 우리 옛 정신의 권화, 은성했던 시절의 흰 수염 드리운 수호부(守護符), 사라진 세계와 자신의 뿌리 의식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고 생을 긍정하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희망을 꿈꾼다. 절망한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함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 우리의 출발은 오직 그것을 위해 있었으리’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친 자신의 영혼을 위로한다. 현실은 비록 누추하거나 각박하지만 좋은 것은 앞날에 있을 것이라며,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절망을 견딘다. 나아가 작가는 ‘한 번뿐인 삶이기에 우리는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하지 않겠는가’<sup>108)</sup> 하며 현실을 극복하고 보나온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한 의식 뒤편에는 고귀한 혈통으로서 정신적으로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 전학 첫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서게 된 Y국민학교는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웅장한 3층 본관을 중심으로 줄줄이 늘어선 새 교사만 보아온 내게는, 낡은 일본식 시멘트 건물 한 채와 검은 타르를 칠한 교사 몇 채로 이루어진 그 학교가 어쩌나 초라해 보이는지 갑자기 영락한 소공자의 비애 같은 텅없는 감상에 젖어들기까지 했다. 크다는 것과 좋다는 것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이 겨우 여섯 학급밖에 안 된다는 것도 그 학교를 까닭 없이 알보게 했고, 남녀가 섞인 반에서만 공부해온 눈에는 남학생 반 여학생 반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촌스럽게만 보였다.<sup>109)</sup>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나(한병태)는 고급 공무원의 아들이고 서울의 초등학교를 다니다 전학왔다는 점에서 보잘 것 없는 시골 초등학교

108) 이문열, 「이름 모를 누이여」, 『사색』, 살림, 1991, p.24.

109)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민음사, 1993, pp.3-4.

교의 동급생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석대의 간교한 술수로 인해 나의 존재는 인정받지 못하고 갖가지 괴로움을 당한다. 결국 새로운 담임에 의하여 석대의 비열함이 폭로되자 급우들은 일제히 석대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한다. 그러나 나는 급우들의 태도와 달리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여 급우들에 대한 정신적 우월감, 즉 선민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겪었던 부당함을 폭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급우들이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을 경외심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급우들과는 동질의 인간이 아니기에 그런 식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선민의식의 표현이다. 이러한 선민의식은 비장한 각오로 집필에 임했다<sup>110)</sup>는 『변경』에서도 명훈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드러난다.

개간지에서 실제 농사에 생계를 의지할 때조차 나는 한번도 나를 농민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이미 조상들의 전통타이겠지만 내게 있어서 농민은 옛날 그 양민(良民)의 다른 이름이며 신분 상승의 바탕이자 방어의 마지막 보류였다. 나도 조상들처럼 농촌을 진취(進取)의 기회가 주어지면 나아가고 여의치 못하면 돌아와 힘을 기르는 곳쯤으로 여겼다. <중략> 나는 다만 잠시 농촌에서 힘을 길러 다시 싸움터로 나온 삶의 전사쯤으로 나를 인식했다<sup>111)</sup>

위의 인용문 내용에서 신분상승의 의지가 강하게 내비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명훈이 농촌을 진취의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 힘을 기르는 곳쯤으로 여기고, 현재는 다만 여의치 않아 농사를 지을 뿐이라는 의식을 지녔음을 보

110) 돌아보면 86년 8월 처음 이 글을 시작할 때의 내 각오는 자못 비장한 것이었다. 나는 그때 내가 산 시대의 거대한 벽화를 남기겠노라고 호언했고, 한편으로는 내 문학의 한 기(期)를 걸겠노라고까지 떠벌렸다. ... 나는 지금까지의 내 삶에 축적된 모든 경험, 모든 기억과 사유 중에서 문학적 소재 혹은 장치로 유효하고 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낌없이 썼다. 삼십 년 문학이력에서 터득한 모든 양식과 기교도 마찬가지로. (이문열, 『변경』 - 책 머리와 탈고 후 -, 문학과지성사, 1998.)

111) 『변경 9』, p.150.

여준다. 농촌은 ‘정신적으로 고상한 족속’인 사람이 평생을 두고 살 터전  
이 아니라 충전을 위해 잠시 머무는 임시거처일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회로 진출하여 지배하는 계층의 지위에 올라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잠시 전략한 처  
지이지만, 머잖아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 자기 믿음과 함께 이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내비친다. 이러한 내면은 일반적으로 사회 지배  
층의 사람들이 소유한 선민의식<sup>112)</sup>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도 가지고 있음  
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나는 인근 백 리 안에서는 제일 집안이 좋다는 영감댁 손자다. 대대로 살림 천  
석, 글 천 석, 인심 천 석, 해서 삼천석군 소리를 들어왔고 일가 어른들 몇을 제외  
하고는 어머니에게 굶실거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영웅시대』, p.358)

“너희 집은 어떤 집안이나?”

“13대에서 5대 당하를 내려선 적이 없는 세가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조부께서는 치부에 뜻을 두어 일생을 무위무관하게 지내셨고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버리시어 역시 처사로 지하에 드셨습니다.” (『영웅시대』, p.146)

“역시 이동영의 아들이라. 제법 눈도 밝고 말도 다룰 줄 아는구나”(『변경4』,  
p.266)

---

112) 한 생각의 틀로서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쭉 귀족주의나 선민의식이다.  
<중략> 어떤 형식으로든 몰락을 경험했거나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중략> 몸도 마음도 평범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 속에 묻혀 살면  
서도 그들은 언제나 그 상태를 자신의 일시적인 전략이라고 단정한다. 그래서 기  
억의 과장으로 터무니없이 엄청나진 과거 그 자체에 몰입하거나 그 때문에 평범  
한 사람들보다 몇 배나 강렬해진 신분 상승의 욕구-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186.)

“동영씨는 안 그랬다. 동경서 돌아오면 맨 먼저 치우는 게 서실(書室)이랬고 들  
따보는 거는 책이랬다” (『변경2』, p.147)

이문열의 아버지는 13대에서 5대 당하를 내려선 적이 없는 세가의 후손으로 가문의 잔존방식을 선택하여 월북한 지식인이다. 작가에게 있어 아버지 이동영은 눈도 밝고 말도 다룰 줄 알며,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동경유학생이었고 지식인의 표상이자 학문과 정신(이념)의 소유자로 정신의 지주인 것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문열의 가계와 아버지의 행적은 작가에게 선민의식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남녀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신분에 대한 특유의 민감도 그와 천민의 딸들 사이를 굳게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 비록 몸은 그들 천민들이나 크게 다름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때 벌써 나중에 회복할 그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는 아무리 매력적인 소녀라 해도 일단 자신보다 하층계급에 속하면 신분적인 결벽(潔癖)이 용납하지 않았다.<sup>113)</sup>

위의 인용문은 『시인』에 나오는 것으로, 김병연이 젊은 날 가졌던 여자에 대한 감정을 알 수 있다. 뒤에서 『시인』의 김병연과 작가 이문열의 유사점을 언급하겠지만, 김병연이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곧 이문열의 그것이라고 해도 무방하겠하다.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나이를 먹어 가는 동안 인상을 남긴 소녀들이 더러 있었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소녀라 해도 출신이 미천하면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작가가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읽을 수 있다. 그 기준의 바탕에는 양반가 후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대와 어울려야 한다는 잠재의식, 다시 말해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비록 천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나중에 회복할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사대부의식의 잔재로서, 이문열이 신분회복에

---

113) 이문열, 『시인』, 동지, 1994, p.77.

대한 의지와 선민의식이 뿌리 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이문열은 실제로 현실에 조화롭게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적 불화를 경험하게 되고 ‘진실로 세계와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나도 한 때는 막장으로 굴러 떨어지는 내 생활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애를 썼다.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나아진 형에게 간청해서 하숙비를 송금 받으면서도 가정교사로 입주했고 또 따로이는 시간을 쪼개 그룹지도까지 겸한 적도 있었다.

<중략>

조금이라도 값나갈 만한 물건은 모조리 전당포에 가 있었고, 겨울 옷가지는 시장통 술집에, 애써 사 모은 책들은 헌책방에 기한부로 팔려 있었다. 친구건 친척이건 손 벌릴 수 있는 곳이면 모조리 돈을 빌려 썼는데, 그것들까지 합치면 이래저래 내가 메워야 할 빚은 오만원에 가차왔다. 거의 견딜 수 없게 된 객지생활의 피로와 단 한 번의 사랑놀이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중략>

가정교사로 입주해 있던 집에서는 늦은 귀가와 술 때문에 번번이 쫓겨나고 애써 모은 과외그룹도 불성실한 지도로 흩어지고 말았다.

<중략>

낮동안은 이 다방 저 다방을 전전하며 이미 더 이상 남아 있지도 않은 구원자를 기다렸고, 이것저것 다 들어진 밤은 서울역 대합실로 가서 밤을 보냈다.<sup>114)</sup>

작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서울사대에 입학했지만 대학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게 된다. 작가가 참 좋은 시절이라고 회상하는 그때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끝내 그 시절로부터 내쳐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가난 때문이었지만, 또 다른 내적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관계에서의 불화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관계의 의미는 타인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수행이나 주변인들과의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나는 건달

---

114) 『사색』, pp.57-58.

생활을 청산하고 계획대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뒤로는 아무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는 자아와 타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나는 혼란에 빠졌으며 삶은 궤도를 크게 빗나갔다<sup>115)</sup>고 고백한다.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 스스로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번민에 빠지기도 했음을 느낄 수 있다.

작가가 대학에 입학했던 그 시절에는 가난은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많은 고학생들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온갖 잡일을 하여 끝까지 버티며 학업을 마친 예가 많다. 작가의 글들을 통해 유추할 때 어렵긴 해도 하숙비를 보내줄 수 있는 형이 있었고,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입장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그토록 어렵게 얻은 기회를 지키지 못한 것은 가난 이외 또 다른 내적 이유로 불규칙한 생활과 술, 그리고 작가가 언급했듯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향 등을 들 수 있겠다. 그 성향이란 타고난 예술가 기질, 제도교육 밖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생활습성 등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조직사회활동에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많은 독서를 통해 이상적 인간형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인물은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을 통해 작가에게 그러한 성향이 얼마간 있음을 짐작할 때, 감시와 가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지는 당시의 상황을 견디기 보다는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의식이 있으므로 교우관계가 원만할 리 없고, 남녀관계 역시 순조로울 리 없었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

115) 이문열, 「나는 펜을 검처럼 생각해 왔다」, 『시대와의 불화』, 자유문학사, 1992, p.59.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지만, 아직도 크라라는 너무 많이 내 생활 속에 살아있다. 어쩌다 펴보는 지난날의 일기장 갈피, 원고뭉치 속에 끼여 있는 그녀의 주소 쪽지, 내가 띄웠던, 그러나 이별에 즈음하여서는 약착같이 되찾고만 편지 몇장, 미처 돌려주지 못한 작은 책자(冊子)… 내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녀는 자주 내 생활 속에, 그리고 망연한 사념 속에 나타난다.

<중략>

오, 진정으로 자유롭던 영혼, 선량하던 의지,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보답받기를 원하지 않던 여자 - 나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가. 터무니없는 오만과 독단, 그리고 보상의 원리에만 얽매인 속물근성으로 끊임없이 상처주고, 이 욕고는 나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중략> 진실로 내게도 세계와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건만.<sup>116)</sup>

그리하여 그는 하숙집에서 쫓겨나고 과외자리도 잃고 그가 사랑한 ‘초원의 꽃’도 잃고 그의 표현대로 막장으로 굴러 떨어진 신세가 되어 ‘거리로 나간다. 세수 같은 것은 얼굴에 때가 끼어 낮이 근지러울 정도가 되기 전엔 고려가 없다<sup>117)</sup>’, 한동안 서울에서 버티다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대학생활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는 ‘나’의 독특한 개성이 현실과의 융화를 어렵게 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이 없는 외로운 영혼은 사회적 불화를 되풀이 하여 경험하면서 낭만성향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잠재의식은 작가에 의해 소설 속의 문체적 인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고아의식과 먼 곳에 대한 동경

이문열의 소설에는 실제로 고아들이 작중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대

---

116) 『사색』, pp.108-109.

117) 『사색』, p.76.

표적으로 문단 데뷔작인 「나자레를 아십니까?」는 가난으로 가족들이 흩어져야 했고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춘기 소년이었던 작가가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체험을 근간으로 쓴 소설로, 작가로서의 이문열의 내면이 진솔하게 그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자레를 아십니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여덟 명의 작은 동거인들은 길다란 책상에 들쭉 붙어 앉아서 맞은 편 깨끗한 회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 수난상이나 기도하는 사무엘을 올려다 보며 아아 주님의 보혈(寶血)이 얼겠구나, 사무엘, 네 무릎이 몹시도 시리겠다 하는 따위의 명청한 생각에 잠겨 길기만 한 그 겨울 낮을 보냈던 것입니다.<sup>118)</sup>

열기라고는 며칠에 한 번 밖에 비치지 않는 방에서 담요를 몇 장 겹쳐 두르고 등을 맞댄 채 서로의 체온에 기대앉았으면 그런대로 그 겨울의 낮은 견딜 만했다는 주인공 김선생은, 고아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인 형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진 채 희망을 꿈꾸었다. 고아원생들 사이에서 ‘영웅’인 형은 동생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영입 능력도 뛰어나 나자레 형제들에게 있어 전설적인 존재였다. 부모를 상실한 어린이들에게 있어 형의 존재는 아버지를 대신한 대부로서의 존재였던 것이다. 이문열의 고아원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 가족과 흩어져 살며 피붙이가 아닌 형을 의지하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작가의 고아의식을 느낄 수 있다. 아버지의 부재상황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고아적인 환경에 처해진 작가의 쓸쓸한 현실과 고아의식을 아래의 글을 통해서 보다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철씨네 집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란 게 서로 그렇게 소식도 모르고 몇 년씩 지내기도 해요? 지금 집은 어디 있어요?”

그 물음을 받아 인철은 다시 가슴 속에 음산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

118) 이문열, 「나자레를 아십니까」, 『이문열 중단편집 상』, 열린책들, 1993, p.10.

“우리에게 당신이 말하는 집, 곧 가정은 없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가 윤택하던 날부터 우리에게 유기적(有機的)구조로서의 집은 없어졌는지 모르지요. 있었다면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 곧 가족이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집은 언제나 구조로서는 불구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란 기둥이 없었고 그 나머지도 온전하지는 못했지요. 언제나 가족의 일부는 집을 나가 있었고 때로는 나 자신도 별두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벗어났으니까요.” 119)

M음을 떠난 이후 나는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살게 운명지어져 있었다. 먼저 내 스스로 이어가야 할 학업이 나를 내 집과 어머니로부터 떠나 여러 낯선 도시를 떠돌게 하였으며, 이윽고 그것이 한 습성이 되어 이미 그럴 필요가 없어진 때조차도 내게 새로운 출발을 강요하였다.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휘몰아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어머니와 사랑의 친구를 그리워하게 하였으며,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아득한 고향에 대해 열렬한 향수를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 수많은 출발 전야의 마음 설레임, 알지 못하는 곳에 대한 동경과 기대, 출발 아침의 번득이는 햇살, 정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순간의 감미로운 슬픔, 피로운지 즐거운지 구별 못할 떠나야 할 곳에 대한 마지막 회상, 창변에서 멀어져 가는 거리에 던지는 허심한 결별의 눈인사, 새롭게 도착할 곳에서 고생스럽고 힘들여 개척해 가야 할 것임에 분명한 생활의 그러나 자신 있고 낙관적인 상상...120)

가족이 있지만 해체되었고,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며 부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고아’ 같은 삶을 산다. 고아 같은 삶을 살면서도, 떠나고 또 떠나면서 먼 곳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의 향수, 그리고 출발을 앞둔 자의 쓸쓸하면서도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란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생활에는 내가 추구할 그 무엇이 결여되거나 도저히 뿌리내릴 수 없게 하는 가치 박탈 체험과 소외가 있음을 의미한

---

119) 『변경 10』, p.184.

120) 이문열, 「이 황량한 역에서」, 『필론의 돼지』, 동아, 1989, pp.165-166.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자신 있고 낙관적인 상상’을 가슴에 품는다.

이처럼 낭만적인 영혼의 소유자에게 있어 먼 곳의 그리움과 알지 못하는 곳에 대한 동경과 기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운명처럼 내재한다. 그러한 내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우월감 내지 열등감 등 양가적 감정을 갖게 하며 존재의 희열과 고뇌를 느끼게 한다. 특히 M읍을 떠난 이후로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받아들이는 ‘나’는 가족이 있으나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고아 같은 고독한 존재인 것이다.

나는 그 편지에 우선 목적 없는 내 떠돌이 생활의 쓰라림과 서글픔을 은근하게 과장하고, 속절없이 늘어만 가는 나이에 대한 초조와 불안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내 믿음과는 달리 정말로 그 때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벌써 어른들처럼 머리를 길게 길러 넘기고 어른들의 옷을 입고, 술이며 담배 같은 어른들의 악습과 심지어는 시시껄렁한 타락까지 흉내내고 있었지만 나이로는 여전히 아이도 어른도 아니었으며, 정규의 학교과정은 밟지 않고 있었으나 또한 책과 지식과는 완전히 벗어난 생활도 아니어서 학생이랄 수도 건달이랄 수도 없었다. 당시 내 깊은 우려 중의 하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평균치의 삶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sup>121)</sup>

위의 편지는 작가가 고향에 돌아가서 3년 동안 큰형을 도와 황무지 2만평을 개간하며 살다가, 가출하여 집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고아처럼 생활하던 중 어느 날 큰형에게 보낸 것이다. 그가 가출을 하게 된 것은 온 가족이 희망을 걸었던 농사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전망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며, 아무런 전망이 없는 ‘여기’를 벗어나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가 다소 과장하였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토로에는 목적 없는 떠돌이 생활의 쓰라림과 서글픔, 속절없이 늘어만 가는 나이에 대한 초조와 불안이 솔직하게 토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도 아니고 건달도 아닌 처지에서 문득 ‘평균치의

---

121) 이문열, 「河口」, 『필론의 돼지』, 열림원, 1989, pp.197-198.

삶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린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긴 하지만, 실제의 삶은 너무나 초라해서 다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싶어도 아무런 버팀목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사에 인생을 걸었으나 실패를 한 형, 아무런 전망이 없는 형에게라도 편지를 쓴 것이다.

오래 전부터 나에게 비난이나 충고하기를 단념한 형은 지극히 담담하게 쓰고 있었다. 내 앞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하고 싶지 않으나 어쨌든 그쯤에서 삶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생각한 것은 잘한 일 같다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만 같지 못해 새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자신은 큰 힘이 되지 못할 것이며, 돌아오는 것은 기꺼이 허락하겠으나 그곳에 오더라도 최소한 내가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sup>122)</sup>

절박한 심정으로 써서 보낸 편지에 대한 형의 답신 속에서의 '앞날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그 동안 작가가 형에게 많이 의지했다는 것과,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정할 수 있는, 작가의 처지가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 이라는 형의 분명한 언질은 이제는 누구도 작가를 위해 힘이 되어 주지 못하니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다. 이러한 답신은 형의 농사일이 실패하면서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가출 전의 참담했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요즘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잘 이해 안 될 만큼 넉넉했던 그의 여가이다. 그에게는 질은 형편없이 떨어져도 생계를 도맡아 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당시의 사회 통념도 책을 손에 들고 있는 한 그가 노동으로 어머니의 짐을 덜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굳이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장성한 형이 일찍 학문을 포기하고 생계를 돕고 나서면서 그의 여가는 한층 마음 편한 것이 되었다.<sup>123)</sup>

---

122) 이문열, 「河口」, 『필론의 돼지』, 열림원, 1989, p.198.

123) 이문열, 『시인』, 둥지, 1994, pp.63-64.

작가에게 있어 가족이 있긴 해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급자족하며 사는 까닭에 고아 처지나 다름이 없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가부장제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숙명적으로 떠맡게 되는 장남이 아니라 계자(季子)인 까닭에 비록 곤궁한 생활이었지만 경제생활을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었으며, 지금 여기가 여의치 않으면 쉽게 떠날 수 있었고 쉽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저기’로 훌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은 혼자만의 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만큼 감정이나 거취가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작가는 한참 민감한 젊은 시절에 이곳저곳을 옮겨다녀야 했지만 먼 곳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소외와 존재의 쓸쓸함을 느끼면서 꿈을 키웠을 것이다. 먼 곳에 대한 동경이 강할수록 책을 통해 키운 정신적 안목이 더욱 현실과 괴리된 감정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다.

고아적 상황과 함께 이문열의 낭만성향을 길러준 것 중에 정규과정을 밟지 않은 학업과 독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정규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은 특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아 제도가 요구하는 의무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시간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가풍의 영향으로 학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는 무한정으로 주어진 시간을 독서와 독학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이문열이 고백하였듯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목적 없는 독서로 세월을 보낼 때, 글에 대한 안목은 보잘 것 없었지만 아직 세상을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싶어 하고, 무엇이든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한꺼풀 상상력의 베일에 싸인 채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소년<sup>124</sup>이 남독으로 정신을 키웠던, 독특한 경험에서 낭만성향이 길러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를 중퇴하고 끝없는 유적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가졌던 생에 대한 불안한 심리, ‘평균치의 삶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이 속에 함축된 의미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는데 그나마도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에 대한 절망과 불안감이다. 그러한 불안한 심리와 목적 없는 떠돌이 생활의 쓰라림과 서글픔이

---

124)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자유문학사, 1992, p.56.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의지가 되어 그로 하여금 현실로 돌아가게 하였을 것이다.

그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킨 여러 요인 중에서도 이문열이 정신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르트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문열이 사르트르의 저서를 처음 읽게 된 것은 그의 나이 열일곱이고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의 책을 두루 읽다가 다시 사르트르의 책을 탐독하게 된 것은 2년 후가 된다. 이 시기를 작가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 중의 하나라고 고백한다.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남독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에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고 독감으로 오진해서 병을 키워 병으로 두 달, 그리고 회복하느라 대여섯달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때는 특히 술 한잔이나 약간 무리한 산보에도 발열이 계속되어서 그 긴 회복기를 독서만으로 견뎌야 했다고 회상한다. 그 무렵에 작가는 니체에 심취하게 되고 다시 사르트르에게로 돌아간다.

니체는 분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었다. 나는 그의 권력에의 의지와 초인의 교설에 빠져 나머지 회복기를 보내었다. 그의 표현은 너무도 잠언적이었고, 그의 초인은 그가 애써 부인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대지에서 유리된 이상형으로 느껴졌다. <중략> 내가 다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일단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접근한 것이 사르트르였다. <중략> 어쨌든 - 닥치는 대로 그의 저서를 섭렵한 후에 나는 문득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속수무책으로 그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무지가 통탄스러웠던 것 외에도 그에게서 어떤 사표(師表)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sup>125)</sup>

사르트르를 읽으며 문득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서울사대에 진학한다. 사르트르를 읽으며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작가가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유하기 시작했으며 학문의 세계에 대하여 동경을 느꼈다고 해석해도 되겠다. 그리하여 대학에 진학한 이문열은 한국의 장편소설들을 읽게 되며 사대문학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

---

125) 『시대와의 불화』, p.59.

작가로서의 자질을 연마한다. 그러나 대학생들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또다른 동경의 세계를 꿈꾸며 사법고시를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 두게 된다.

‘스물 다섯 그 나이, 나는 그야말로 날건달이었다. 학교는 중퇴, 글도 범공부도 때려치우고 고향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사색』, p.76) 작가가 일어나는 것은 대개 아침 열시 경으로 혼자서 부엌을 뒤져 아침밥을 몇 숟갈 뜨고 난 후 그가 가는 곳은 공의진료소였다. 그곳에는 무의촌에서 의무적으로 공의 노릇을 하고 있는 레지던트의학도가 있는 곳으로, 그도 궁벽진 산골에서 외로운 처지라 둘은 천렵을 나설까, 술순을 따서 술을 담글까, 낚시를 갈까, 공모를 하고 실행하며 날들을 보낸다. 그렇게 낮을 보내고 다시 불만스런 형의 침묵과 근심에 찬 어머니의 눈길 속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시 진료소에 가서 포커판을 벌인다. 꼬박 27시간이나 카드를 놓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고백하는 작가의 생활은 그야말로 날건달의 그것이었던 것이다.

스물 다섯 살, 나는 열심히 살았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고, 무명과 빈곤과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무섭게 마셔댔고 취하면 원인모를 분노로 세상에 대해 독설과 저주를 퍼붓거나 절망과 슬픔으로 쿙쩍거리었다.<sup>126)</sup>

학교를 중퇴하고 고시마저 실패한 고독한 청년은 술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당장에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젊은 날의 작가는 무명과 빈곤과 어둠 속에 방치된 존재로 전략하여 불만스런 형의 침묵과 근심 어린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며 날건달 생활을 한다. 그러한 아무런 전망이 없는 현실이 그로 하여금 ‘무섭게 마시게 했고, 취하면 원인모를 분노로 세상에 대해 독설과 저주를 퍼붓거나 절망과 슬픔으로 쿙쩍거리게’ 했다. 그런 젊은 날 이문열의 마음을 점령한 것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

126) 『사색』, p.79.

추억하기조차 가슴이 서늘한 그때의 풍경 중의 하나는 그런 불면의 밤 내가 늦도록 배회하던 갯가의 독길이다. 으스스한 달빛과 안개 자욱한 포구, 끝없이 출렁이는 갈대의 바다와 그 위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 이룸모를 새들의 구성진 울음소리…… 나는 그러한 것들 사이를 마치 몽유병자처럼 늦도록 거닐었다. 그리고 그때 나를 지배하는 것은 어두운 방안에서의 번민과 고뇌 대신 울고 싶도록 철저한 외로움이었다.<sup>127)</sup>

비록 피로하고 궁핍했지만 유리알 유희를 하였던 대학생살로부터 떠나온 정신적인 고아는 전망 없는 현실 속에서 외로움을 앓는다. 열심히 살았었지만 여전히 아무 것도 아니었고, 무명과 빈곤과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는 외로운 영혼은 잠들지 못해 집 밖으로 나와 몽유병자처럼 거닐어야 했다. 생활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헤어진 여자에 대한 추억과 되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고아적 상황과 외로움이 작가에게 낭만적 성향을 갖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말과 글에 익숙한 가계의 전통과 혁명 서사시를 쓰고 싶어 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이문열은 문학으로 현실과 대응하며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아들의 이념인 문학이 아버지의 이념인 이데올로기를 초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신양명을 위해 아버지가 사회주의에 인생을 던져 실패를 하여 그 결과 가문은 몰락하고 아버지의 월북으로 온갖 고초를 겪게 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들이 소설가로 성장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127) 『사색』, p.128.

## IV. 낭만성의 양상

### 1. 주제적 특성

#### 1) 이상주의적 열정과 휴머니즘

이문열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1980년대는 ‘민족 민중운동’으로 대표되는 운동의 문화, 이념의 문화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시대였다.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독재의 기만과 탄압에 대하여, 사회 계층간 갈등과 외세의 지배와 분단에 대하여,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굴욕감을 주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와 여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사회 변혁의 움직임이 문학의 영역에까지 그 위력을 확장함으로써 문학의 현장성이 한층 강화되고, <운동 개념으로서의 문학>이 당대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념이 문학을 압도하는 현상이 팽배했다. 이렇듯 운동 개념으로서의 문학이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소설의 대응력을 회의하고 장르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문단 내에서 활발했는데, 논의의 내용은 전문성, 보수성, 지식인적 또는 중산층적 세계관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된 80년대 중반에, 사회 변혁의 물결에 동참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당시의 지배 이념인 사회적 리얼리즘에 충실한 작품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문열은 시대의 요청에 불분명한 태도를 견지한다.

문단에 발 들여 놓은 지 오래 되지 않은 대로 나는 그 동안 유심히 그 두 검열관<sup>128)</sup>에 대응하는 우리 문학의 모습을 관찰해 왔습니다. 어떤 용감한 또한 경박

한 정신들은 일찍부터 그 두 검열관의 검열기준을 터득해 그 어느 한 편의 총아가 되었습니다. 어떤 현명한 또는 교활한 정신들은 문학이 가진 본질적인 공통분모에 의지해 이쪽 저쪽 모두에게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흘려보냈고, 어떤 자유로운 또는 빼뚫어진 정신들은 초연함으로 양쪽 모두를 무시하는 척했습니다.

<중략>

현명하게도 또는 교활하게도 나는 처음 양쪽 모두를 향해 미소를 보내는 것으로 내 문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면 곧 적이라는 식으로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성공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나는 양쪽 모두의 수상쩍어하는 눈빛에 시달리게 되었고 차츰 눈 흘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연설문 중에서)

그리하여 이문열은 ‘이념 그 자체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고안(考案)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은 다른 여러 고안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인 성격을 띤다. 그런데 그 이념을 위해 인간이 희생되거나 양보가 된다면 그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객전도(主客顛倒)가 될 것인가, 목적이 수단을 위해 고통 받고 학대당해야 한다면.’ (『사색』, p.181) 라고 이념에 대한 생각을 밝히게 된다. 그에 의하면 ‘문학적 태도로서의 리얼리즘은 우리도 세계와 인생의 진실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에서 우러난 기술방식’이며 그 어떤 객관적 규정 아래서도 세계와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리얼리티의 대책 없는 다수함 때문에 우리의 리얼리즘은 결국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그 선택의 주관성이 갖는 위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것이 참된 포착이 아니라,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리얼리티인지도 모른다’ 고 말하<sup>129)</sup>며 외부의 곱지

128) 여기에서 두 검열관이란, ‘그 시대 그 체제 그 권력의 옹호와 유지에 문학이 기여해야 한다’는 측과 ‘그들이 그리워하는 다음 시대를 실현하는 데 문학이 봉사해야 한다’는 두 층위를 말한다.

129) 이문열, 「리얼리즘에서 미메시스로」, 『이문열』, 이태동편,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pp.19-22 참조.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반이데올로기적 노선을 분명히 드러낸, 『영웅시대』를 통해 확실한 보수주의로 돌아선다. 연좌제의 처절한 비극 속에서, 공포와 죄의식과 제도의 압박을 들끓처럼 씩씩하게 견뎌내고 지명도 높은 소설가로 입신한 당시의 이문열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러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문열에게 있어 반이데올로기적 행보는 ‘변혁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기득권의 상실<sup>130)</sup>’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요인을 소설 『시인』의 주인공 김병연의 행보와 작가의 삶의 궤적을 통해 유추해보면 이해가 용이해진다.

소설의 주인공인 김병연이 대역죄인의 자손으로 평생을 빈민 속에서 시를 읊으며 떠돈 삶과, 작가 이문열이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에 입당하고 월북한 이유로 억압 받으며 잦은 이사와 우여곡절 끝에 소설가로 살게 된 삶은 유사하다. 김병연은 대역죄인의 자손으로서 체제의 억압과 가치박탈의 체험을 겪어야 했고 아울러 그로인한 소외와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다가 신분회복을 위해 지방의 백일장에 장원을 하나, ‘할아버지는 임금을 팔아 비루한 목숨을 사더니 자손은 이제 그 할아버지를 팔아 영달을 사기에 바빠한다’는 노진의 말을 들은 후 일탈의 길을 걷는다. 김병연이 아무런 가책없이 일상에 안주하여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했다면 아마도 그는 신분을 회복하였을 것이며 사회의 지배계층인 관리가 되어 권력과 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배 체제와 가장과 자식으로서의 책무로부터 일탈하여 자유를 선택하고 시인으로 한평생을 산다.

이와는 다르게 이문열은 아버지의 노선을 비판하며 보수주의자로 돌아선다. 그는 특권적인 신분에서 도태된 정영(精英)이 그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낸 체제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반역을 꾀하는 것과, 회귀본능에

---

130) 이문열의 작가의식이 <변혁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기득권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순응주의적 논리>에 물들어 있다고 성민엽은 비판하고 있다. (성민엽, 「개인과 자유를 향한 열망」, 『문학과 빈곤』, 문학과지성사, 1988, pp.230-231 참조.)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바치는 것, 그리고 자학에 시달리다 서둘러 하위 계층으로 편입돼 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파<sup>131)</sup>한다. 이문열이 제시한 방식 중에 자신이 선택한 것은 두 번째 방식으로, 그는 회귀본능에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바쳐 작가가 되었다. 그런 그가 변혁의 물결에 편승하게 될 때 예상되는 어떤 결과를 두려워 한 것이라기보다는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민초들의 억눌린 감정을 시로 쓰면서 자신이 그들을 대변하는 양 노래를 읊고 다니던 세월이 지나자 김병연은 자신이 그들과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보니 그는 그들의 더부살이에 불과했으며, 그의 시는 그들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울분과 악의를 토해낸 데 지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김병연의 자각, ‘정제되지 않은 채 내뱉어진 자신의 시에서 혐오감을 느끼게 된’ 김병연의 의식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실이 인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닌, 인물의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막강한 그 무엇임을 이문열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문열이 일찍이 절감한 ‘서른에 접어들면서 이제야말로 영원히 상층부로의 재편입을 포기해야 된다 싶자 갑자기 술과 값싼 갈채에 취해 날려 보낸 젊은 날에 회기가 일기 시작했다. 한 어릿광대나 다름없는 싸구려 시인으로 늙어갈 일이 두려워졌고, 이제는 견지 않을 수 없게 된 외롭고 고단한 남은 길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시인』, p.164) 는 그 절망감의 깊이를 알기에 현실하고든 자신의 내면하고든 ‘화해’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문열이 현실 혹은 자신의 내면과 화해를 시도하는 첫 행보로 가슴 깊이 묻어둔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꺼내게 된다. 그가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쓰고 싶었던 자신의 내적욕구와 함께 작가가 레드콤플렉스에서 겨우 벗어난 80년대 중반의 시대상황 - 이 시기의 우리 문학은 공산주의 금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월북한 문인들에 대한 연구도 허용되었다. 이것은 민주화로 인한 자유의 확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지적

---

131) 『시인』, p.64.

역량의 증대와 맞물려 반공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사실 등과 관련된 것이다 - 에서 좌익운동가 아버지 얘기를 소설로 형상화한다.

‘사람은 누구든 일생을 통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기에 평소에는 오히려 더 가슴 깊이 묻어두게 되는 하나의 얘기가 있기 마련이다 <중략> 작가는 <그 얘기>를 행위동기로 삼거나 물화시키는 법이 없이 직접 말로 펼쳐 보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는 물론 그 일생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꾸며대겠지만, 처음 시작은 바로 <그 얘기>를 쓰기 위해서였다.’(『영웅시대』, 작가후기)

이문열은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얘기>인 가족사를 『영웅시대』로 형상화 했음을 작가후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영웅시대』는 일종의 가족사소설인 셈이다. 소설 『영웅시대』<sup>132)</sup>는 6·25를 배경으로 직접 전쟁에 동참한 이문열의 아버지 이원철의 분신인 이동영이라는 이상주의자의 월북행로를 그려가면서 아울러 그를 기다리며 남쪽에 남겨진 가족들이 이동영의 월북 때문에 처절하고 통속 속에서 살아야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설은 공산주의자 이동영이 전쟁터로 내몰려 동지 김철을 만나고 신봉해오던 이데올로기에 회의를 갖게 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한에 남은 이동영의 집안은 몰락하고, 그의 처 조정인이 기독교에 귀의하며 이동영은 이북에서 실패하는 삶으로 끝이 난다.

작가의 불행한 가족사에 근거하여 쓴 이 작품은 단순히 가족사의 기록 차원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문제로 나아갔다. 주인공 이동영과 그의 가족이 몰락하는 과정을 다룬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가족사 소설로 볼 수 있고,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보면 전쟁 소설의 형식을

---

132) 이 소설을 발표하면서 이문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내게 있어서 ‘그 얘기’ (일생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영웅시대』, 아니 6·25를 전후한 우리의 불행한 가족사였다. 지금으로부터 17, 8년쯤 전에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작가로 끝장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문득 나를 사로잡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소설거리가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취하며,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념비판 소설로 볼 수 있다. 이동영의 가족이 몰락한 것은 전쟁 때문이며, 이 작품에서 이데올로기는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가 작품 내에서 복잡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가 『영웅시대』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앞서 「그해 겨울」(1979)에서 이미 그 전조를 보인 바 있다. 70년대 말에 발표된 이문열의 대표적인 자전소설 『젊은 날의 초상』에 수록된 이 작품은 꿈을 상실하고 삶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청년이 갈등과 방황 속에서 길 찾기를 시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돌아가자 이제 이 심각한 유희는 끝나도 좋을 때다, 바다 역시도 지금껏 우리를 현혹해 온 다른 모든 것들처럼 한 사기사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 구원하기를 단념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어떤 것이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비장한 결의를 하게 된다. 이는 더 이상 방황을 하지 말고 비록 그 무엇이 인권을 핍박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 구원하기를 단념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어떤 것이 구원할 수가 있는가? 의 심층적인 함의를 「그해 겨울」에 등장하는 좌익운동가인 칼같이 사내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혁명조직을 배반한 동료의 고발로 19년형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옥하여 자신을 고발한 사내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칼을 갈며 고발자를 찾아 길을 떠나는 도중에 칼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좌익 운동가 칼같이 사내가 바다에 칼을 던져 버리는 것에서 우리는 좌익사상가 아버지를 둔 작가의 어떤 결의를 읽을 수 있다.

좌익사상가 아버지를 둔 작가의 ‘어떤 결의’라 함은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해 연좌제로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가졌을 체제에 대한 비판 혹은 저항의식을 거두고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우익 보수이데올로기에 편승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신도 구원하기를 단념’ 했는데 미약한 인간으로서 무슨 방도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 ‘현실과 삶이 왜 아름답지 않는가?’ 라고 더 이상 절망하며 방황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 뿌리내릴 것

을 암시한다. 현실로 돌아가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이전에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또한 현실이니까 받아들여거나 타협하여 이제는 현실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를 표출한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떠돌면서 삶의 중심부로 진입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삶의 중심부로 들어가 맞서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에 나오는 창수령은 작가의 삶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작가 스스로 레드 콤플렉스에서 빠져 나오고 있었고<sup>133)</sup> 분단문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폭이 증대되자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으나, <그 얘기>를 꺼내면서 아무리 사회분위기가 허용적이라 할지라도 이 문열은 당시의 지배계층인 대지주의 아들로써 남한체제와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이탈된 행동을 한 아버지를 작가인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겨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본다. 아버지의 월북이 작가에게 정신적인 외상을 입힐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일마들아, 영웅이따, 영웅. 그카는 느그들 아버지가 다부 빨갱이라’ (『영웅시대』 끝부분) 소리치며 어깨까지 으쓱했다는 철이처럼 연좌제의 억압과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극도의 생활고를 겪으면서 아버지의 피를 이어 받은 아들 역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변혁과 혁명의 열망을 마음 속에 가져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작가는 아마도 『영웅시대』를 통해 아버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내면과 화해를 하고, 그 굴레로부터 놓여나고자 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오백년 열성들의 하해 같은 은덕을 입어 온 사대부의 후예인 이동영이, 당시의 상황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기득권은 유지할 수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 낯선 이념을 선택했을까? 천석꾼 지주의 아들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유학을 한 지식인인 그가 왜 불안해하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을까? 이에 대해 이동영은 스승 박영창에게 자신이 어떤 연유로 사회주의자의 길을

133) 연구자는 「그해 겨울」에서 칼같이 사내가 칼을 바다로 던진 의미를 반이데올로기의 진입으로 이해하면서, 이 작품을 시작으로 작가가 이데올로기 비판 노선에 진입했다고 본다.

건게 되었는지 그 내적 동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잔존의 방식 -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죠.”

“살아남기 위한 선택?”

“그렇습니다. 원래 제 의식의 출발은 봉건적인 가부장제도였습니다. 어린 제가 신학문을 배우러 나온 것은 나날이 몰락해 가는 일문을 중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문을 통해 어렵듯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 계급, 다시 말해 아시아적 전제국가의 봉건 귀족은 어쩔 수 없이 몰락하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옛 형태 그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죠. 그걸 자명한 것으로 확인 해주고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추천한 사람이 노령아재였습니다.”<sup>134)</sup>

입신하여, 나날이 몰락해 가는 가문을 일으키고자 신학문을 배우러 일본으로 간 동영은 처음에는 아나키즘에 심취되어 있었으며 아나키즘에 회의를 느끼고 난 다음 사회주의의 세례를 받는다. 그는 ‘사회주의야말로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해 낸 사상 중에서 가장 인도적이며 위대한 사상’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sup>135)</sup>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면서 자기의 계급이 몰락하리라고 예견한다. 자기의 계급이 몰락하리라는 확신이 들자 그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편입하여 부르주아 계급으로 변신하여 타도당하는 대신 적의 적인(근대 부르주아 계급이 봉건세력의 적이라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봉건세력의 적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변신하여 보다 확실하게 생존하자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이동영이 내린 가문의 잔존 방식이었던

134) 이문열, 『영웅시대』, 민음사 p.224.

135) 작가가 이동영 개인의 이념 선택을 마치 식민지 시대 지식인 일반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정호웅은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당시 지식인들은 이동영과는 달리 구체적인 토대에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현실 타개의 한 방안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이나 사상을 선택했으며, 그들이 선택한 이념이 바로 <유토피아적 실천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정호웅, 「관념편향적 창작 방법의 한계」, 『반영과 지향』, 세계사, 1995, p.158.)

것이다. 이동영이 새롭게 접한 학문 외에도 노령아재의 사상교육과 스승 박영창의 영향과 어머니로부터 주입된 영웅심리<sup>136)</sup>, 그리고 그의 혈통에 잠재되어 있는 선비의식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과장된 환상을 가졌던 낭만적 이상주의자 이동영이 이념과 사상에 대해 깊은 회의와 불신을 갖게 되면서 그의 정치적 이상은 퇴색되어간다. 이동영이 사회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된 데에는 그가 동경 유학 시절 함께 사상운동에 참여하였던 동료들의 삶과 관계가 있다. 다시말해 김(시)철, 윤상건, 박영규, 강현석과 같은 자주실천연구회라는 아나키즘 단체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과 이 운동을 이끌던 박영창의 현실적인 모습이 이상주의적 열정을 가졌던 이동영으로 하여금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인식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을 겪으며 이동영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현실에 대하여 느끼기 시작하는 회의는 옛 동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한층 심화된다. 이러한 회의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동료들에게서도 드러나자 이동영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이념의 불꽃은 점점 시들어가고 견고했던 이념에 대한 의지도 무너진다. 그리하여 극도의 회의와 절망에 빠진 이동영은 마침내 ‘마비와도 같은 둔감, 까닭 모를 공포와 혼란, 그리고 끝 모를 무력감’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동영과 함께 유복하게 자란 돌내골 지주의 아들인 윤상건은 이동영과 함께 박영창을 따라 불세비키로 전향했다가, 불세비키 운동에서도 손을 떼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은신의 삶을 산다. 그리하여 이동영으로부터 기회주의자라는 낙인을 받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 후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빨치산에게 살해당하자 그는 경찰에 투신한다. 또 다른 인물 중 윤상건은 전쟁 중에 적의 포로가 되어 우연히 이동

---

136) 이동영은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돌내골 암범>이라는 별명이 붙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성장한다. 영남세가의 사과중부이면서 일찍 과부가 된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영웅심리를 심어주었다. 어머니는 <글 천석, 살림 천석, 인심 천석>인 집안을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영웅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동영을 훈육하였다.

영에게 넘겨진다. 그는 사회주의자들의 독선과 음모, 그리고 권력 의지에 깊은 회의를 품고 이동영에게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그의 음모에는 건디기 어려운 냄새가 나. 염치없는 권력 추구의 냄새, 익기도 전에 부패하는 야심의 냄새, 이상의 탈을 쓴 폭력과 잔혹의 냄새 - 우리가 아름답다고 표현한 그 이념의 향내와는 사뭇 달라. 나는 차라리 자주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사적인 이상으로 간직하겠네. 일생을 가슴 속에서 헛되이 타오르다 꺼져 갈 불꽃이라 할지라도 이 지독한 악취 속을 헤매는 것보다 낫겠어. (p.464)

그리고 김(시)철은 이동영이나 윤상건과는 달리 굳건한 아나키스트로 활동하던 중에 일본 경찰의 예비 검속에 걸려 학병에 지원한다. 관동군에서 탈출한 김(시)철은 동북항일연합군에 투항하여 항일 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아나키즘은 무리한 낙관주의와 근거 없는 성선설 위에 세워진 몽상가들의 주관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불세비키로 전향한 뒤 다시 태어난 철(鐵)의 사나이, 철두철미한 민족 해방의 전사이며 통일의 기수가 되어 김시철이라는 이름을 김철이라고 바꾸게 된다. 이렇듯 누구보다 사회주의 이념에 철저하던 김철까지도 전쟁을 겪는 동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해방으로 북한에 들어온 김철은 그들이 불태운 교회와 궁전의 폐허 위에 새로운 우상이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이념이나 혁명을 향하여 할 열정은 권력욕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현실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절대 권력자에 대한 우상 숭배와 권력 추구의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출신 성분이 대지주 천석꾼 김창봉네 손자이며 계보상으로 연안파(延安派)나 무정(武亭)일파라는 이유로 숙청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괴로워하다 전투 중에 목숨을 잃게 된다.

이동영과 함께 박영창의 노선을 같이했던 박영규는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을 거쳐 독립노동당에서 활약하다가 뒤늦게 사회주의로 전향하게 된다. 남들보다 늦게 사회주의로 전향한 그는 당으로부터 투쟁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동료의 죄를 뒤집어쓰고 복역을 하다가 전쟁을 맞이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출옥한다. 만신창이의 몸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의 자식은 병으로 죽고 아내는 양공주가 되어 있었다. 박영규가 병든 몸을 치료하고자 했으나 당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고, 이를 계기로 박영규 또한 사회주의 이념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사회주의 이념에 환멸의 감정이 있는 박영규는 우연히 만난 이동영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하자 한발 떨어져서 양쪽을 모두 관찰할 여유가 생기더군. 그런데 그 결론은 - 모든 이념이나 사상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한다는 거였네. 그 주장이 극력할수록 나는 더 거대한 이기만을 보았을 뿐이야(p.346)

중요한 것은 인민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라든가,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답고 숭고한 이념도 인간을 그 희생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따위. 생각하면 우습지 않은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은 이념인데 거꾸로 인간이 이념을 위해 봉사해야 하다니, 보다 행복하기 위한 고안이 오히려 인간을 죽이고 있다니 (p.347)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사회를 건설한다고 신봉한 이념이나 사상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힘으로 변질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박영규의 말을 듣고 이동영은 좌절감과 당혹감을 느낀다. 이와 같이 이동영의 동료들 중 사회주의 이념의 수호자로 남은 강현석<sup>137)</sup>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회주의에 대하여 깊은 회의와

---

137) 강현석은 해방 후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활약할 때 강백정(白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과격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 예로 자신의 친아버지와 배다른 형제들을 반동으로 처형한다. 해방된 종의 딸인 그의 어머니는 주인에게 희생된 가없는 여성이며 강현석은 전형적인 부패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갖은 수모를 겪으며 유년기를 보낸 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출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박탈의 체험이 사적인 원한으로 발전하여 드러나는 강현석의 행동은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한다기 보다 이념의 탈을 쓴 개인적인 한풀이로 해석해도 무방하겠다.

좌절감을 느낀 채 절망한다.

이렇듯 이념적 동지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깊은 회의를 느끼는 것을 확인하자 이동영은 비로소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에 이른다. 계급이 없는 이상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능력에 따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상주의적 열정이 키운 유토피아적 이상에 지나지 않을 뿐,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전쟁이라는 현실을 거치면서 그의 이상과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가 신봉한 사회주의 이념이 삶을 부정하는 증오의 철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동영은 혼돈과 비애와 절망에 빠진다.

생명이란 살아 있음으로써 하나의 우주 - 완성이며 전부였다. 그러나 그 불빛이 꺼져 버리는 순간 그것은 그대로 전무(全無)이며 끝 모를 허망이었다.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혼으로 불멸한다는 종교적 환상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쉽게 꺼져 허무로 환원해 버린다는 유물적 진리에 있었다. 생명이란 그 어떤 이념의 분식 아래서도 수로 환원될 수 없는 개념이며 <중략> 보다 나은 향유를 위해서일지라도 그 가장 비천한 하나를 희생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p.73)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영이 사회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유격대 정치부대대장으로 있던 김철과 함께 머무는 동안 이동영은 국군의 병사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국제 법규에 의해 부상당한 포로라 할지라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병사를 김철이 권총으로 살해한 것이다. 전쟁 중에 무수한 주검을 보았지만 눈앞에서 동료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사라져 버리는 생명을 보면서 이념의 이름으로 실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인간의 목숨,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빠져린 자각을 이동영이 한 것이다.

우리는 두 번이나 낯발을 잘못 꼈어, 그 한 번은 삼국지에서 기른 소영웅주의를 부르짖었던 시민혁명에서 구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선에서 구한 거야. 봉건귀족에 해당하는 양반계급에 속한 주제에 역사의 한 과정을 생략하고 도약을 시도한 거지. 하지만 나는 최근 깨달았어. 우리들은 행위의 일회성, 인간은 이미 이루어져버린 행위와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p.44)

위의 인용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나키즘에 자신의 생을 걸었던 무모한 영웅주의에 대하여 김철은 냉정하게 자기비판을 한다. 결국 김철은 자신의 그릇된 영웅주의를 ‘오류인대로 완결 짓기 위해’ 행동 속에 죽겠다는 각오로 전투 중에 생을 마감한다.

인간이 어떤 이념, 어떤 사상을 선택하든 본질적인 동기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을 획득하거나 획득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주의는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킬 뿐이었다. 겉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이 인민을 위하는 것처럼 선전하면서도 실상은 인민과는 무관하며, 민중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고 굳게 신봉하였던 사회주의가 민중의 삶을 부정하고 핍박하는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동영은 자신이 꿈꾼 인민의 삶의 현장을 보기 위해 연변 평야의 농촌으로 간다.

소유와 축적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기의 맥 빠진 얼굴들 <중략> 자본가와 지주들의 그토록 엄청나 보이던 부의 행방에 대한 은근한 의식, 어떤 세상이 오든 결국은 자신의 뒤통이 휘도록 일한 뒤에야 최저의 형태로 돌아올 뿐이라는 씁쓸한 자각, 빈곤으로 남보다 더 고통 받을 염려는 없어졌지만 또한 풍요로 남보다 더 행복해질 가망도 없어져 상대성을 상실한 만족감, 이런저런 구실로 끝없이 유예되기만 하는 인간 존엄의 회복, 자아의 주체적 실현 (644)

이동영은 그곳의 인민들에게서 소유와 축적의 기쁨을 잃어버린 얼굴들을 보고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결국 소수를 위한 포장된 구실이요, 허울과 가식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절망한다. 그리고 김철이 연안파 라는 이유로 숙청되는 것을 보고 박현영, 이승엽, 박영창 등과 함께 남로당에 소속된 이동영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소설은 비극을 암시하며 끝을 맺었는데, 『영웅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 「아우와의 만남」<sup>138)</sup>의 일부 내용에서 이동영의 그 후의 삶을 유추할 수 있다.

내래 형님한테 속인 거 많시오. 김책연합기업소당위원회 조직부? 새빨간 거짓말 이야요. 내가 들고 싶은 곳이지 실제 일하는 곳은 아니야요. 나는 고작 돌부스러기나 주무르는 선광부(選鑛部) 기사일 뿐입네다. 경공업위원회 지도원한테 시집간 녀동생? 맞긴 하지만 매제는 나보다 나이 많은 홀애비였시오. 자식 새끼 둘이나 딸린, 그런 홀애비기 때때 가래(그 아이가) 시집갈 수 있었디요. 체니때는 참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평양외국어대학에 간 막동이도 머리 하나는 똑소리 나는 아이야요. 김일성대학 정치학부에 들어가는게 꿈이었는데 그리 밖에 못 댔시오. 아버님도 일평생 고된 현장과 허울 좋은 연구직(研究職) 사이의 오르막 내리막만 거듭하며 불안하게 사시다 가셨디요. 바친 것보다 받은 게 많은 삶 - 그건 북반부에서는 대중가요 가사처럼 흔한 아침이야요. 임중도 고생스러우셨습네다.(「아우와의 만남」, pp.100-101.)

『영웅시대』 마지막 부분에서 이동영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동시에 자식들에게 남기는 교훈적 글인 <동영의 노트>를 통해 자신이 아나키스트에

---

138) 「아우와의 만남」(1994)은 ‘통일문제’를 다룬 일종의 가상소설이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수인 주인공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이복동생을 중국의 연길에서 만난다. 이 작품에서 이문열은 통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접근하는데 가령, 통일이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통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설의 메시지에 의하면, 진정한 통일은 주인공이 이질적인 문화와 체제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아우를 처음 만나듯이 어색하고 애뜻한 수많은 구체적적인 만남들이 있는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문열은 『영웅시대』에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분단이 해소된 민족적 휴머니즘을 지향하고 「아우와의 만남」에 이르러 민족사 최대의 과제인 ‘통일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서 사회주의자로 전향하게 된 과정과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사회주의를 버리게 되는 과정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자 이동영의 의식 변모 양상을 통해 드러내는 이문열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아버지의 삶<sup>139)</sup>과 관계가 깊다.

이 양반아, 어디 있노? 인제는 당신 한 몸뿐 아니라 내꺼지 죽었데이. 아들이 고아원 가는 거는 당신하고 내하고 다 죽었다는 말 아이가? <중략> 그래 인제 이래되이 좋나? 아이, 이래 안 하문 혁명 안 되겠드나? 늙은 어마이 처자속 다 안자 (잡아) 먹고는 혁명이고 건국이고 안 되겠드나? 세상에 참말로 별난 혁명 다 봤대 이, 참말로 몸서리나는 건국.’ (『변경4』, p.278)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할머니의 녀두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부재가 단순한 부재를 넘어 붉은 망령으로 경찰의 추적과 연좌제로 따라다님으로 해서 원망을 넘어 현실적인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복하게 살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친인척까지도 이동영 때문에 말 못할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울분, 월북자인 공산주의자 아버지로 하여 옛 영화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그 얘기>를 꺼내면서도 작가는, ‘붉은 망령’을 존재케 한 남한 사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왕지사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념을 비판하며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쏟아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그는 남한 사회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

139) 모든 공산주의자의 후예가 아버지로 인해 겪은 고통 때문에 우파로 돌아서지 않는다. 내가 이념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내던진 아버지의 삶이 그가 그리워 찾아간 공화국에서조차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듯한 간접 증거들이 내게 전해져 오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1999년 8월 6일 월북한 아버지 이원철(당시 84세)을 만나러 중형 이연(59, 소설가) 씨와 중국 연지(延吉)에 갔던 이문열은 부친 이원철씨가 그해 3월 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비록 한 등급이 감해지기는 해도 반역에 대한 체제의 보복은 집요하고도 철저했다. 조정이 그들 일가에 대해 직접적인 형벌권의 행사를 포기했다고 해서 체제 전체가 그들에 대한 악의를 지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

<중략>

정체된 농경사회의 역사에서 윗대의 반역의지를 적극적으로 이어받아 다시 반역으로 나아가는 후손의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더 혼란 예는 보다 철저하게 체제 이데올로기에 순종해 생존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추방당한 옛 신분으로의 재편입을 꿈꾸는 것인데 <중략> 철이 들면서 그는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자신의 의식을 내맡겼다. 충(忠)과 효(孝) - 그 중의 하나를 어겼다가 처참한 죽음의 세례를 받고 몰락한 집안의 후예인 그에게는, 또한 그 러하면서도 조급한 회귀본능에 내몰리고 있는 그에게는 한번 형성된 뒤로 수천 년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그 낡고 찌든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새로웠을지도 모를 일이었다.<sup>140)</sup>

그것은 위의 글에서 짐작할 수 있는, ‘비록 한 등급이 감해지기는 해도 반역에 대한 체제의 보복은 집요하고도 철저했으며, 그들 일가에 대해 직접적인 형벌권의 행사를 포기했다고 해서 체제 전체가 그들에 대한 악의를 지운 것은 결코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허용적인 분위기라 하더라도 남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들춰내고 싶지 않은 심정과 원망과 그리움이 수없이 교차하는 동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둔감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문열은 레드 콤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을 통해 그는 다만 가문을 몰락시킨 이념, 사회주의를 비판할 뿐이며 나아가 그는 이념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나는 이제 공산주의자나 당원이기에 앞서 인간이고자 한다. 인간 중에서도 삼천만이란 피붙이를 가진 조선인이고자 한다. (p.688)

---

140) 앞의 책, p 73.

그 마지막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다. 이념이라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떠한 교묘한 논리로도 소박하게 말해 인간이 인간에게 잘 해야 한다는 이 원리 ….<중략>… 우리 몸을 도는 피이며, 아무리 거역하고 거역하려 해도 끝내 거기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집단은 민족이다. 그리고 또한 그 집단은 우리 모두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것이다. (pp.712-713)

『영웅시대』를 통해 이문열은 이상주의적 열정을 가졌던 이동영의 이념을 비판하면서 휴머니즘을 지향<sup>141)</sup> 한다. ‘나는 믿는다. 인간 사유의 모든 혼란, 모든 오류에 대한 최후의 카드는 오직 휴머니즘뿐이다. 어떤 주의, 어떤 사상도 거기에 기초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는 이념이 아무리 순수하고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과격한 행동주의는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문열이 <보수주의자>, <허무주의자>, <병적인 비판주의자>, <반민중적이고 체제옹호적인 부르주아문학 작가> 등으로 비평받게 된 것<sup>142)</sup>과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문열이 <시대와의 불화>를 겪는 것도 근원은 이러한 작가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신들은 내 전망의 결여를 걱정하지만 나는 오히려 지나치게 무성한 당신들의 전망을 걱정한다. 당신들은 내 무이념(無理念)을 의심쩍어 하지만 나는 또한 오히려 당

141) 『시대와의 불화』, p.60.

142) 이에 대해 김명인은 ‘이문열은 그의 문학으로 허무주의적 반이념 투쟁 헌신해 온 작가다. 그는 이념의 노예가 된 많은 지식인들을 조소했지만, 그는 다른 의미에서 또 한 사람의 이념의 노예였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삶은 거의 유전적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믿은 아버지의 이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 찾기」, 『이문열』, 살림, 1993, p.233) 이문열의 문학관과 세계관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비평가로 이동하, 성민엽, 이우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동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 인식」,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pp.29-30.

성민엽, 「개인과 자유를 향한 열망」, 『문학의 빈곤』, 문학과 지성사, 1988, p.233.

이우용, 「『젊은날의 초상』에서 『변경』까지 : 이문열 비판」, 『시대평론』, 1990, p.150.

신들의 이념과잉이 못 미덥다'(『사색』, p.182)고 응대한다.

이상주의적 열정을 가졌던 이동영이 아나키즘과 사회주의의 세례를 거쳐 도달하는 세계, 지향하는 세계는 바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 즉 휴머니즘이다. 이문열은 『영웅시대』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이념으로 대립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하나의 민족, 분단이 해소된 민족주의적 휴머니즘을 지향한다. 아울러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위협받지 않고 평화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야기한다. 이문열에게 있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절대적인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휴머니즘의 실현, 이것이 보수주의자 이문열이 지향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 2) 가부장의식과 현모양처의 삶

가족은 생존수단을 생산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경제적인 단위인 동시에 일상적인 가족생활의 경험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공간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 형태가 달라지고 있지만 가족의 부양자가 남성이고, 전업주부이자 어머니인 여성이 주축인 전형적 가족형태가 많다. 이럴 때 남성 노동의 대가가 당연히 여성노동의 그것보다 높아야 하고, 여성이 가사노동과 자녀 생산 및 양육을 전담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성립된다. 이러한 가부장제적 가족생활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 종속의 논리는 지금까지 정당화되어 왔다.

가부장제적 사회에서의 개인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양상보다는 한 집안 혹은 한 가문의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양상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나 자족적인 삶보다는 가문의 영광과 집안의 영속적인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여인들의 인고의 삶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어차피 너는 육십 년 혹은 칠십년의 제한된 시간만을 살고 가야 한다. 그러나 가문이란 것에 너를 던지고 동일시를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앞서 살아간 조상들의 삶을 내가 이었듯이 대대로 이어질 네 자손에게까지 네 삶은 연장된다. <중략>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구성원까지 포함된 가문이란 존재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의 공간은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넓혀진다. 그 확대된 시간과 공간의 성취가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선택』, p105)

이문열은 전통적인 유교 중심 사회의 이념으로 형성된 가부장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소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남성이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 집안의 대를 잇고 입신을 하여 사회적으로 가문을 빛내고 현모양처를 만나 부모를 잘 봉양하는 존재이다. 반면 그의 의식 속의 이상적인 여성의 삶은, 여자로서의 예절과 품위를 가다듬어 좋은 남성을 만나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고 내조를 통해 남편을 출세시키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다.

작가의 가부장의식은 유교이념<sup>143)</sup>과 재령 이씨 가풍(家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적 가족생활에서는 남성에 의한 여성 종속의 논리가 정당화된 상황에 한해 한 가족의 숭고성은 유지되며, 이럴 때 여성은 언제나 남성 주체의 타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여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의 타자임을 인정하고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한에서만 직업적인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모성과 여성다움의 구현자로, 또 한 편으로는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시대가 변하여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결혼제도를 둘러싼 온갖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전투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특히 자의식이 강한

---

143) 유교 이념을 중시한 조선조 시대는 교육지상주의 시대였다. 그러나 교육은 어디까지나 양반 계층 위주의, 그리고 남성 본위의 교육이었으며 계층을 불문하고 여성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제도적인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정옥, 「계녀가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교육관」, 『여성문제연구』 제18집,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90, pp.231-232.)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울 만큼 배운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여성들이 가부장제적 가족생활에 희생한 ‘어머니 세대와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희망을 가지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면 여성의 자아는 분열되고 상처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성적 삶의 고통은 결혼 생활에 배여 있는 가부장제적 사고의 이데올로기에서 연유한다. 여성들에게 있어 모성과 여성성은 기쁨과 안식을 주는 반면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하는 강박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가부장제적 사고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야기되는 여성의 문제에 대한 천착은 여성의 몫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문학에서는 문학 생산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70, 80년대 문학의 주류가 노동, 민중문학과 분단문학, 즉 거대담론으로서의 문학이었다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문학의 주된 흐름은 다원주의에 입각한 각 개인의 욕망 구조를 다룬 미시담론으로서의 문학이 양산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의 문학은 1980년대까지의 문학과는 달리 여성작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높은 판매고를 올린 젊은 여성작가들이 문단을 이끌었고 문학 출판계를 선도했으며, 아울러 여성운동에도 건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문학의 흐름은 정치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수립과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 그리고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된 개인의 자유 혹은 민주주의 분위기 위에서 금기시되어왔던 각종 제체에 대한 도전과 개인의 자유, 인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90년대 이후 여성 문제를 다룬 소설이 많이 발표되는데 이른바 페미니즘<sup>144)</sup> 소설이 그것이다.

---

144)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지배해 온 남성중심 사고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하여 왔다. 이런 문제의식은 한국 여성문학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 문학과 정전이 남성중심으로 구축된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것이었음을 밝혀내고 나아가 그런 편파적인 전통이 아닌 새로운 문학전통을 형성해 내는 길을 모색한다. (태혜숙, 『페미니즘 시각에서 영미 소설 읽기』, 박희진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1)

『선택』은 페미니즘 소설이 주류를 이루던 시점에 이문열이 계간지<sup>145)</sup>에 발표한 작품으로 이문열의 13대 할머니 정부인 안동 장씨의 인생을 모델로 쓴, 작가의 가부장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장편소설이다. 시대가 달라져 양성평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사회상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작가는, 여성들이 본분을 수행하지 않고 목소리만 커진다고 판단하고 현대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여인상을 역사 속에서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했으나 의도<sup>146)</sup>와는 달리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켜 발간과 동시에 한동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소설 속의 장씨는 이문열의 13대 할머니로 열아홉에 재령 이씨 가문 셋째 아들인 서계 이시명에게 출가하여 학문을 하는 군자의 아내로서 7남 4녀를 키운 어머니이자 가문의 안주인, 늙어서는 손자와 이웃을 정성껏 돌보는 큰 어머니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현모양처의 삶을 살다 작고한다. 장씨가 학문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가정에 안주하며 산 것은 조선조 가부장제적 가족 형태가 강요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적극적인 선택이었다고 내세우며 소설은 전개된다.

---

145) 계간지 《세계의 문학》, 1996 가을호인 81에 1회, 겨울호인 82에 2회가 실린 후 민음사(1997)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연재되기 전 작가가 50세 되던 해 ‘내 작품의 3분의 1은 아내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진정으로 한 여자에게 깊은 감사의 정을 느낀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날 작가의 아내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뭘지 모르겠다. 눈가엔 잔주름이 늘어만 가고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이 불안하게 만들고, 집에만 묻혀 살아온 내가 요즘 여자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녀두리를 하여 그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중년여성, 그리고 우리 사회 전업주부의 위상에 대해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을 계기로 『선택』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녹취, 2004. 6. 2. 이천소재 부악문원)

146) 이문열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추구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저속하게 이해되고 천박하게 추구되는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한쪽으로 기울어 페미니즘 논의에 균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선택』을 썼고, 이러한 의도에서 현대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여인상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밝혔다.(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pp.223-224.)

전체 4부로 구성된 『선택』의 서사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 선택 - 딸로서의 삶

(1) 나(정부인 장씨)는 선조31년(1598) 학자인 아버지 경당 장홍효와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 외동딸로 태어나 성장하게 된다.

나이 예닐곱 되어 사물을 분간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또래의 여자 아이들과는 다른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녀들이 꼭두각시를 안고 소꿉장난을 재미있어 할 때 나는 사랑에서 아버님의 접빈객(接賓客)과 고담준론을 보고 들으며 보냈다. 그녀들이 고운 땡기나 노리개를 탐낼 때 나는 아름다운 말과 앞선 사람들의 빛나는 성취에 가슴 두근거렸고, 더욱 자라 그녀들이 바느질과 부엌일을 맴돌 때 내 가슴은 벌써 문자와 책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했다. <중략> 나는 주의와 집중력으로 그걸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자발적인 열정으로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을 길러갔다.(p.41)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또래 계집아이들과 다른 성향을 가졌으며 부모에 의해 다르게 길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남독녀인 나는 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사람들의 빛나는 성취(수리, 한시, 서예, 그림)를 익히고 경험하면서 감동을 받거나 자극을 받아 가슴이 두근거렸고, 문자와 책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된다. 그로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열정으로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을 길러간다.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을 길러간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과 재능을 연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학문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동기유발이 잘 되었고 자신의 성향대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행운아인 셈이다. 그런 그녀에게는 책임지거나 극복해야 할 어떤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가정환경이었던 것이다.

(2)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익힌 나는 열대여섯 살부터 시문을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 성취의 기쁨을 맛본다. 기본적으로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한적(漢籍)을 읽으며 학문이 주는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시문을 짓고 또한 글씨와 그림을 그리면서 교양과 기예를 쌓게 된다. 여자이지만 가사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학문과 시·서·화를 섭렵하게 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양반가 자제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병환으로 살림을 도맡아 살게 되면서 시 짓고 글씨 쓰는 일은 여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인식 아래 안채와 부엌을 떠나지 않고 여자의 본업을 배우겠다는 선택을 한다. 여기에는 부유하지 못했던 집안 살림살이와 어머니의 병환으로 운명적으로 맡게 된 살림이었지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사랑에 아버지의 문하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발을 들어야 했으며, 아픈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예전처럼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 2) 새로운 선택 - 아내로서의 삶

(1) 열 살 안팎 때부터 아버지 문하에 든 나라골 재령 이씨 가문의 석계 이시명을 면대하였는데, 그가 상처(喪妻)를 하자 탈상을 기다려 열아홉의 나는 상처한 홀아비의 재취로 출가한다.

내가 군자를 처음 뵈은 것은 열 살 이쪽 저쪽의 일로 군자께서 아버님 경당의 문하에 드시던 날이었다. 도굴산(闔廬山)에서 글을 읽으시다가 도산 이부자(李夫子)의 도학(道學)의 맥을 짚어 검체에 이르시게 된 것이라 한다. 뒷날의 인연에 끌려서였는지 어린 마음에도 환출하면서 기품 있는 군자의 용모가 인상 깊게 남았다. (p.62)

여기에서 아버지가 맺어주었다고 하지만, 열 살 안팎 때부터 아버지의 문하(門下)에 든 이시명을 상면하였는데 첫인상이 어린 마음에도 훗날하면서도 기품 있는 용모여서 소녀의 마음이 끌렸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이시명을 나는 나이 열여섯 살까지 면대하게 되고, 어머니의 별세 이후로 안채와 부엌을 도맡아 사랑방 손님에게 음식을 내거나 그 외의 상황에서 자주 상면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는 과정에서 친함을 느꼈거나 흠모의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자인 아버지의 문하에 드나드는 글을 하는 양반가 자제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성을 보아온 터라 남성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높아졌을 것이다.

군자가 상처한 때가 군자가 스물다섯, 나는 열여섯으로 아홉 살 차이로 사방에서 혼담이 있었지만 나의 아버지는 군자의 탈상을 기다린다. 아버지가 눈치를 주었지만 군자가 못 알아차리자 아버지가 직접 나서 제의를 하기에 이른다. 결국 매파를 놓지 않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수년간 상면을 한 사이이고, 특히 내 나이 열 살 안팎이었을 때 일가(一家)를 이룬 이시명은 스승의 딸인 나를 귀여워하며 여동생처럼 아껴주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남독녀로 성장한 나는 그를 오라비처럼 따랐을 것이며 어쩌면 사모의 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히 마음을 쓰는 명문가 자제이니 아무런 저항없이 기쁘게 혼인에 응했을 것이다.

(2) 열아홉에 시부모님과 빈소 들, 손아래 시아주버님, 전취 소생 남매, 안팎 종들과 드난살이들, 끊이지 않는 사랑방 손님과 일가친척들로 마흔 칸 집 뜰이 언제나 비좁을 지경인 시집살이를 시작하며 쏟아오는 가문의 무게를 느낀다. 맹목적인 순응을 방해하는 한 때의 성취감(어린 시절에 경험하였던)으로 인해 번민하나 맹목적인 순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강요된 조건이요, 피할 수 없는 강요일 뿐이다. 그런데 눈여겨 볼 대목은 출가한 후에 장씨가 친정을 위해 한 행동들이다.

내 친정어머님께서 세상을 버리신 것은 내가 출가한 지 일곱 해 만의 일이었다. 그때에 아버님의 춘추 예순, 홀로 남으시게 된 것도 애똥으려니와 무엇보다 대를 이를 아들이 없어 걱정되었다. 나는 군자께 아뢰고 검재로 돌아가 친정집을 돌보게 되었다. 돌아간 첫해에 내가 가장 힘쓴 것은 아버님께 계실(繼室)을 얻어드려 수발 들게함과 아울러 친정집의 후사를 도모하는 일이었다. <중략> 친정에 와서 삼년 째 들던 해 시집으로 돌아간다.(『선택』, p.145)

출가한 딸이 친정의 후사와 아버지의 수발이 걱정되어 친정으로 와서 아버지께 자신보다 어린 새어머니를 물색하여 계실(室)로 들이고, 거기서 후사를 볼 때까지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시댁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효(孝)에 따로 아들 딸이 분간이 있겠는가, 종이(잘) 생각했네’라고 적극 지지하는 남편의 외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쏟아오는 가문의 무게를 느끼며 맹목적인 순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한 태도는 당연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택했다는 것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 3) 어머니로서의 삶

(1) 전취 소생 남매와 본인 소생 5형제 모두 정성껏 키운다. 누구는 어떤 품성이고 언제 무슨 책을 읽었으며, 식으로 일일이 기록하며 온 정성을 다해 출중한 학자로 자라도록 뒷바라지하며 어머니로서 기쁨을 느낀다.

### 4) 큰어머니(할머니)로서의 삶

(1) 마흔 여덟 되던 해부터 할머니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그동안 쌓인 삶의 지혜가 두루 쓰인다. 생활의 현장에서 뒷방으로 물러난다.

- (2) 서책을 다시 펴고 붓과 종이를 가까이 하며 시문을 짓는다.
- (3) 친정의 대(代)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친정 아버지의 재혼을 주선하고 자신보다 훨씬 어린 새어머니를 맞아들이는 등, 친정까지 보살핀다.
- (4) 비복을 풀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이 없나 마을을 돌아보게 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의지할 데 없는 과부, 떠도는 홀애비 등을 자식 돌보듯 모성으로 대한다.
- (5) 후대에 물려줄 요리서를 쓴다.
- (6)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고 83세에 즐한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장씨 부인의 일생을 소녀(딸), 아내, 어머니, 큰어머니(할머니)로 구분하여 그리며 각 단계별로 겪은 갈등과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며 진정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어디에도 온전한 인간인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없고 딸이나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식의 역할로서의 모습만 존재한다. 학문과 교양에 있어 성취를 보여주었던 장씨가 ‘가문의 현신’을 두고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였다는 작가의 주장에 선험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장씨의 선택이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이었다는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선택이 그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방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즉 예측되는 선택의 결과에서 더 낮고, 못하고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 선조 연간에 여성의 신분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특수한 계층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장씨 부인에게 있어 그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히 가야할 길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작가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텐데,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여성운동이 확산되던 시점에 정부인 장씨 할머니를 통해 그것(여성운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진실로 걱정스러운 일은 요즘 들어 부쩍 높아진 목소리로 너희를 충동하고 유혹하는 수상스런 외침이다 <중략> 그들은 이혼의 경력을 무슨 훈장처럼 가슴에 걸고 <중략> 이혼은 절반의 성공쯤으로 정의되고 간음은 황홀한 반란으로 미화된다. 그리고 자못 비장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외친다. (『선택』, p.9)

위의 글에 등장하는 ‘이혼은 절반의 성공’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여성의 정체성을 심도 있게 다루며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 당시 페미니즘의 대표적 여성작가인 이경자의 『절반의 성공』과, 같은 흐름인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일컫는다. 위의 작품들은 그동안 가부장제도하에서 잠재되어 있던 억압에 대한 분노나 정체성에 대하여 드러내면서 여자기기 이전에 인간임을, 그러니 여자들도 누구의 무엇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야 하며,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렇게 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소설이다. 배울만큼 배운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여성들이 ‘어머니 세대와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나, 남성중심 사회와 가부장제적 가족생활 속에서 여성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여성적 삶의 고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문열이 『선택』에서 인용할 만큼 저변확대가 컸던 이 소설은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부당한 현실을 공박하는 데 한몫을 한, 여성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킨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이문열은 『선택』을 출간하였고, 출간과 동시에 여성을 폄하하고 왜곡했다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반론과 반격이 이어지는 논쟁(論爭)<sup>147)</sup>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반론의 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

147) 『선택』에 대한 비평은 혹평에 가까운 것으로서,

고미숙, 「세기말을 배회하는 가부장제의 망령-이문열의 『선택』에 대한 단상」, 『비평기계』, 소명출판, 2000.

김경수, 「삶의 태도와 글쓰기의 선택에 대하여: 『선택』」, 《동서문학》, 1997.

이명원, 「기만의 수사학-이문열의 『선택』과 『아가』를 통해 본 담론의 책

다.

…이제까지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공포괴기 소설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4백 년 전에 태어난 이문열의 직계조상인 정부인 장씨의 입을 빌려 이 개명한 세상을 사는 여성에게 잔말 말고 ‘노예’로 살라고 했으니 말이다 … 사실 알고 보면 그녀 역시 불쌍한 매춘부였다. 남성사회의 권력과 부와 명예에 기생한다면 매춘부와 별다름 없다. 정확히 장씨 부인은 4백년 전 철저하게 남성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해줌으로써 ‘정부인’이란 허술한 소득을 챙긴 매춘여성이었다…<sup>148)</sup>

남성의 힘이 절대적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시대로 접어들었다. 인재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한 시대다. 특히 21세기는 여성의 섬세하고 차분한 특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를 요구한다. 여성인력의 개발 여부로 국가 경쟁력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도 이문열씨는 조선시대의 정숙한 여인을 찬양하며 <중략> 자기 일을 가진 여성과 전업주부인 여성, 여성과 여성 사이를 분열시키고 있다.<sup>149)</sup>

장씨가 현모양처의 길을 선택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선택이란 원래 자유를 전제한 것이 아니더냐? 허락된 길이라곤 그 길 하나 밖에 없는데, 그 길을 거부하면 죽거나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선택이라니, 도대체 무슨 망발인지 알 수 없다.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택이 아니라 오기에 찬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싫어도 억울해도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당하는 식으로는 받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오기, 그 눈물겨운 허위의식을 어찌 내가 선택이라는 눈부신 말로 분석하려 드는 것이냐? 아서라, 그런 짓은 우리를 또 한번 기만하는 것이니.<sup>150)</sup>

---

략」, 『파문』, 새움, 2000.

148) 전여옥(방송인), <조선일보>, 1997, 4. 24.

149) 신영자(대학강사, 영문학), <동아일보>, 1997, 5. 9.

150) 김신명숙(자유기고가), <『선택』의 작가 이문열서생에게 - 한 조선조 여인의 일갈>, 《IF》 계간지 창간호, 1997, 6.

극단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드러낸 반론이 많은 반면 옹호하는 글도 있었으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치 이 작품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짝소리 없는 삶’ 만을 바른 여성의 삶으로 강요하거나 한 것처럼 거칠게 대응한다… 천박하게 추구되는 페미니즘의 파시스트적 속도와 전염에 대한 비판으로 읽었지 모든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읽지는 않았다. - 지금쯤 용기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한번쯤 그 문제를 짚어볼 때도 된 것이다. 그것이 문화의 다양성이고 문학의 다양성이다. 새로운 것만이 무조건 옳다는 풍토 속에서 자신의 현재를 점검하듯 옛 것 중에서도 우리가 취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조차 화제 속에 묻혀 버렸다.<sup>151)</sup>

논쟁을 살펴보면 이문열을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될 것을 작가는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는 사회의 변동과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고 대처할 줄 아는 지식인으로, 지나치다 싶은 사회의 변동과 흐름을 감지하면 그의 기질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사적의식이 침묵을 거부하게 하는 강한 성향<sup>152)</sup>을 갖고 있다. 그는 여성작가 중심의 문학과 그것이 여성운동으로 나아가는 1990년대의 문학의 판도를 읽고 시대에 민감한 담론과 영향력 있는 사안을 선택하여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기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문열이 남성중심의 사회와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에서 여성이 억압당했던 사실을 인정하지만, 90년대 들자 정도가 지나쳐 문학이 여성운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장씨 부인처럼 현모양처의 삶을 사는 것도 자기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한 것이다.

너희 논객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자기의 일을 가져라. 자아를 되찾아라. 남편

151) 이순원(소설가), <조선일보>, 1997, 4. 24.

152) 이러한 성향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적 사안이 발생하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개인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대의(大義)를 위해 침묵할 수 없는, 그의 지사적인(우환의식) 정신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과 아이들로부터 벗어나라. 가정에서 해방되라 <중략> 그런데 내게는 그런 권유들이 마치 자기 성취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가정은 감옥이고 남편은 폭군이며 아이들을 족쇄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린다. (p16)

싸구려 문화 강좌나 벌써 오래전부터 정원 미달인 하류 대학의 대학원에서 혼자 황홀한 몽상에 젖어 있는 사이에, 또는 연고 판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악한 상품의 외판원이 되어 친지들을 괴롭히고 다니거나 나이트 비숙련공으로 혈값에 노동력을 팔고 있는 사이에 가정은 뿌리째 흔들린다.(p.17)

장씨 부인은 여자로 태어나 딸이거나 아내거나 어머니거나 며느리 또는 할머니라는 여인 보편의 이름을 선택하고 그것에서 자신을 찾는 삶에 만족했는데 너희들은 왜 못 그러냐고 엄중한 어조로 질타한다. 장씨 입을 빌어 작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성취를 한다고 가정을 뛰쳐나오면 본인은 ‘정원 미달인 하류 대학의 대학원에서 혼자 황홀한 망상에 젖어 있거나, 조악한 상품의 외판원이 되어 친지를 괴롭히고 다니는 꼴’이 되며, 아이들은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고 만화가거나 비디오방을 전전’하게 되고, 남편은 ‘썰렁하고 성의 없는 저녁 밥상머리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충고한다.

나아가 여성으로서 자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바라거나 도모하는 여성들을 급진적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다른 여성들이 그러한 부류에 휩쓸릴까봐 두려워한다. 또한 남자의 약점으로 보이는 도덕적인 불성실과 이기심, 그리고 나태함을 인간의 보편적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정도의 차이를 본질의 차이로 몰아대지 말라고 경계한다. 그녀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과장하면 안 된다고 한다. 또한 화자는 여성의 자기 성취라는 말의 허망함을 지적하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도 자기 성취라는 것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엇이 자기 성취냐, 현모양처는 왜 자기 성취의 범주에서 제외되는가, 자기 성취는 환상일 뿐이요 자본

주의 간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장황하게 열거한다. 이것은 인류역사의 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여성의 존재를 폄하하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소설 『선택』에서 여성의 모든 일을 가치 폄하하고 있는 작가의 여성관에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산업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나라 딸들은 산업역군으로서 이른바 ‘공순이’, ‘차장’, ‘식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열심히 일하였다. 일을 하는 동기에 있어서 자기 성취를 위해 일부러 조악한 상품의 외관원을 하거나 노동력을 헐값에 파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이 경쟁의 시대에 살 수 있으며, 배운 것이 없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런 일밖에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사회 각계각층에서 당당히 많은 여성들이 저마다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게 된 데는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일자리를 확보해온 선구자적인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을 비난한다는 것은 작가가 사회문제와 여성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왜곡이 이토록 심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하류’라는 통념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다른 작가도 아닌, 국민적 작가라고 칭송 받을 정도인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사회의 병리현상인 일류에 대한 의식을 ‘하류’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게다가 하류 대학의 대학원에서는 몽상만 가능하다는 것인지, 지나친 엘리트주의이고 지나친 여성 폄하주의이다. 그는 이러한 여성 폄하 의식을 소설 전체에서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자기 성취를 하고 싶거든 현모양처로서 자기 성취를 하라고 하는데,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가사와 육아에만 자신의 삶을 제한해야만 한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추상적이고 다분히 이미지적인 현모양처라는 칭호, 그것을 얻으면서 자아성취까지 하기란 현실에서는 실로 어려운 것임을 작가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여성이 주체가 되어 결혼을 하고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

가 발생하여 이혼하는 것에 대해 삶의 주체자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존중하지는 못하더라도 훈장 운운, 하며 비난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본다. 소설 창작이 작가의 고유한 권한임을 인정한다 해도 여성을 꾸짖듯 가르치는 내용과 문체<sup>153)</sup>는 분명 무리가 있었다.

작가는 『선택』을 통해 ‘진정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었다’고 말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여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진 90년대 후반의 시대 상황을 작가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완벽에 가까운 장씨의 현모양처적인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것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 역시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낭만성향을 가진 작가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현모양처형 여성적 삶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80년대에 내가 보수반동으로 비난받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의 비난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모든 페미니즘문학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박경리씨의 『토지』나 박완서씨의 『미망』의 여주인공들이야말로 긍정적인 페미니즘을 추구한 인물들이다. 서구에서 들여온 이론들에다 억지로 화장을 시켜 놓은 양상들이 작금의 오도된 페미니즘 문학이다.<sup>154)</sup>

물론 페미니즘이 유행처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작가의 표현대로 부화뇌동의 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여성 운동을 비판하는 작가의 방법론도 문제이러니와 현대 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대착오의 혐의가 짙다. 이 작품의 모델이 되는 정부인 장씨는 실존했던 인물로 작가의 직계 조상이 된다

---

153) 이 부분에 대해 “현모양처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읽히겠습니까. ‘웬 신사임당?’ 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들리겠지요. 해서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 ‘교술적·의사회고록적’ 형식과 의고체 문체를 취했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가정을 뒤흔쳐나오는 것을 여성해방으로 여기는 일부 그릇된 여성주의자들에게 한마디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요”라며 여성을 모독하려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문학평론가 권택영 - 이문열씨 특별 대담, <중앙일보>, 1994년 4월 29일)

154) 이문열, <조선일보>, 1997. 5. 8.

는 것과 타성(他姓)들에게는 집안 자랑, 양반 자랑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며, 문중 사람들에게는 불경(不敬)의 죄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고 후기에 밝히면서도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sup>155)</sup>을 고수하였다.

논란의 한 가운데서, 많은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작가를 향해 여성전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여 모두들 그가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맞선, 작가의 진정한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추적해 보기로 한다.

그가 여권운동을 비판하면서 지향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의도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여권 운동 결과로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적 병폐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문학의 힘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그토록 애쓴 작가의 의도, 메시지를 추적함이 온당하겠다. 따라서 문학의 힘을 빌어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작품에 내재한 작가의 지사적 의식을 읽어내려는 측면에서 작품을 수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여성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전통적 여성의 모습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입덕수후(入德垂後)가 아닌가 한다. 유가에는 내세관이 없는 대신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방식으로 대를 잇고, 가문의 전통을 이으려는 의식이 있는데, 여성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덕을 쌓아 그 자신은 물론 주변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하는 입덕수후를 내세웠다.

---

155) ‘가사와 육아, 전통적 여성관의 의미를 상기시키려 한 글로서 남녀차별 남성우월주의를 강조했다는 시각은 작품의 대의와는 다르다’고 서울 세종대 교수직을 사임하면서 마지막 강의 후 페미니즘논쟁을 일으킨 『선택』에 대해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한 일간지 칼럼을 통해 방송인 전여옥씨가 『선택』의 주인공 안동 장씨가 당대의 인습에 순응한 것은 ‘매춘부와 같다’ 단정한 것에 대해 ‘선정적인 발언이며 페미니즘의 본질과도 상관없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로 일축했다. (이문열, <동아일보>, 1997. 6. 15)

어차피 너는 육십 년 혹은 칠십년의 제한된 시간만을 살고 가야 한다. 그러나 가문이란 것에 너를 던지고 동일시를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앞서 살아간 조상들의 삶을 내가 이었듯이 대대로 이어질 네 자손에게까지 네 삶은 연장된다. <중략>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구성원까지 포함된 가문이란 존재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의 공간은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넓혀진다. 그 확대된 시간과 공간의 성취가 모두 너의 것이 된다. (p105)

어린 나이에 맞본 학문의 성취감이 나의 결혼생활에서 여느 새댁네들과는 달리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방해할 때, 가문이 나를 우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나>는 가문을 통한 자아 확대의 논리를 영혼 불멸 혹은 존재의 영속성에 관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로써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순응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 이념을 껴안게 된다. 작가는 결혼한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가치갈등을 다루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한다.

어머니로서의 선택에서는 자녀들의 육아방식과 교육방식,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을 관찰하며 보다 나은 교육방법을 취하는 모성을 말하고 있다. 7형제 모두 출중한 학자가 되는데 ‘어머니의 관심’이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함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남편과 자식의 성취가 동반됨을 드러내고 있다. 어머니로서는 입덕수후(立德垂後)요, 남편과 자식에게는 각기 입공수후(立功垂後)·입언수후(立言垂後)가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피로 확대된 존재의 큰 틀<sup>156)</sup>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큰어머니(할머니)로서의 여성의 삶은 그간 쌓인 생활의 지혜가 후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찾아든 노년의 시간은 학문을 닦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한다. 다시금 시문(詩文)을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자아성취감을 맛보는 시기가 재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문객이 많아 음식대접에 신경

---

156) 앞의 책, p.107.

을 써야했던 그간의 경험과 실증을 바탕으로 요리서- 『규곤시의방-음식디미방』 157)를 만들어 출가하는 딸네들에게는 필사하여 간직하도록 하고 대를 이어 전수하게 한다.

아침마다 비복을 풀어 내 사는 마을을 둘러보게 하여 <중략> 끼니를 거르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일할만한 사람을 불러 도움 받는 것에 부끄러움을 주지않기 위해 무언가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이라도 시킨 후 곡식을 보내주었다. <중략> 부모 없는 어린것이나 자식 없는 늙은이와 의지할 데 없는 과부, 떠도는 홀애비들을 마땅히 돌보아야 할 자식으로, 모성으로 그들을 대하고자 했다. (p209)

작가는 정부인 장씨 부인의 노년의 삶을 통해 결혼으로 접어두었던 자기의 성취의욕을 다시 실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후대를 위해 뭔가 족적을 남기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식에게만 쏟았던 관심과 애정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사람들에게로 확대시켜 실천하는 삶, 봉사를 통한 범애(汎愛)정신을 표출한다.

『선택』의 메시지를 집약해서 표현한다면, 유가교양을 쌓은 작가 이문열이 맹목적인 여성운동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삼불후(三不朽 - 立德垂後, 立言垂後, 立功垂後)<sup>158)</sup>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의 정체성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내에 한정시키며 여성을 타자화 했다는 비난을 비껴가지는 못하지만, 논란 속에서도 작가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것은 삼불후(三不朽)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그의 낭만성향으로 인해 여권신장운동이 펼쳐지던 시대적 흐름을 부정적인 현실로 인식했으며, 가부장제적 가족생활 속에서 현모양처의 삶을 살았던 여성들의 행실을 현대 여성들도 실천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믿은 것이다.

작가는 페미니즘 문학이 거세게 불던 문학계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

---

157) 정대성 편역, 『朝鮮의 料理書』, 범우사(일본에서 출간)

158) '영원히 썩지 않는 세 가지' 라는 의미로,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학자 좌구명(左丘明)이 공자의 『춘추(春秋)』를 해석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보임.

모양처형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상을 논리화할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제대로 감지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융성과 함께 허위적인 결혼과 가족제도를 직시하려는 여성들의 자각이 높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안락한 가정을 꾸리려는 보수적 욕구도 동시에 커진 것은 사실이다. 『선택』은 ‘아이 잘 키우고 살림 잘 돌보아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똑똑한 여성들이 택할만한 길’이라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도 상업적으로 승산 있게 절묘한 장치로 전개하고, 논쟁으로 더욱 유명해진 소설이다. 이 소설은 작품성을 떠나 전업주부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절묘하게 포착하고 끊어주면서 가부장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유행처럼 일어나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을 정부인 장씨를 통해 드러내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비록 사회상이 변화하고 있더라도 여성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 즉 현모양처의 삶을 살 것을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당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외부세계와 갈등하면서 본질적 자아와 비본질적 자아라는 양가적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렇듯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기 마련인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 외부의 척도가 지나칠 때,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예술가의 자유로운 주관성 또는 개성적인 생활형태에 대한 요구가 지나칠 때, 예술가 소설<sup>159)</sup>이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

159) 예술가 소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화가, 음악가, 시인이 되려는 젊은이들의 생애와 그 발전 과정을 다룬 일종의 도제 소설이고,’ 교양소설의 한 유형으로 소설가나 그 밖의 예술가가 성숙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숙명을 인식하고 예술적 기법에 통달하게 되는 성장과정을 그리는 소설’로 예술가의 생애를 다루면서 예술가 자신의 예술적 사명의 문제, 사회에 대한 예술가의 태도, 그리고 예술 창작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소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M. H. Abrans, 최상규 역, 『문학 용어 사전』, 대방출판사, 1987)

한국 문학에서 예술가 소설이 나타난 것은 근대 이후<sup>160)</sup> 1920년대 전반이다. 근대자본주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술의 자율성이나 예술가의 고유한 개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적 일탈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탈의 의미는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지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와의 조화를 상실한 예술가는 자신의 내적 기준에 의해 고유의 생활형태 혹은 개성적 자아의 대표가 된다. 이러한 예술가 고유의 생활형태는 예술가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한편 예술의 사회적 소외 혹은 예술과 삶의 대립과 분리를 의미한다. 예술가는 삶과 예술과의 관계, 창조행위의 본질과 임무, 예술가로서의 자기완성 등을 고민하고 예술과 삶의 통합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생활형태를 갖게 된다. 이것은 예술가가 자신의 자유로운 주관성을 긍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로인해 예술가는 자기의 고유한 주관성 혹은 정체성에 몰입함으로써 현실의 여러 가치들을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예술가는 예술과 삶의 거리를 인식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분리' 혹은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주관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구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예술가 기질에 의존하는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낭만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낭만주의적 예술의 형식과 내용은 절대적 내면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문열 소설 중에 예술가 소설로 「들소」, 「금시조」, 『시인』이 있는데 이들 예술가 소설에는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을 추구하는 작가의 정신적인 내면이 많이 투영

---

160) 근대 이전의 예술은 삶의 일부로서 삶과 통일되어 있었다. 예술은 도덕적 이념과 종교적 이념의 구현에 충실하였고, 예술가 역시 사회적 공동체의 질서에 복종하였다. 따라서 예술가의 생활형식은 주변의 생활형식과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았다. 근대 이후 과학, 도덕, 문화 등이 '제도적'으로 분화되고 자율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데 예술 또한 사회로부터 분화된다. 제도예술이란 자율성을 획득하여 독자적이고 유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예술을 말한다. (P.뵈르거, 최성만 역, 『전위 예술의 새로운 이해』, 심철당, 1992 참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문열이 ‘비록 텅없는 감상과 애정 때문에 극적인 과장과 미화(美化)의 폐해를 입고 있긴 해도 이 갈피갈피에는 무슨 열병처럼 지나온 내 젊은 날들이 영원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숨쉬고 있다.’<sup>161)</sup> 고 밝힌 「그해 겨울」은 이문열의 젊은 날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작가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작중화자 ‘나’가 방황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나’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여정 속에서 눈 덮인 창수령에서 아름다움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

아름다움은 모든 가치의 출발이며, 끝이었고, 모든 개념의 집체인 동시에 절대적 공허였다. 아름다워서 진실할 수 있고 진실하여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워서 선할 수 있고, 선해서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워서 성스러울 수 있고 성스러워서 아름다울 수 있다 ... 그러나 아름다움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치를 향해 열려 있고, 모든 개념을 부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아름다움의 위대성이 있다.<sup>162)</sup>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날의 ‘나’는 창수령의 아름다움에 경도되고, 그리하여 어떤 예술적인 것, 아름다움의 창조와 관련 있는 삶을 갖게 되리라는 예감을 갖는다. ‘내 모든 외형적인 방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예감 중의 하나가 내가 어떤 예술적인 것 - 아름다움의 창조와 관련 있는 삶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입으로야 무어라고 말하든 아름다움은 내가 마지막까지 단안하기를 주저하던 가치’ 였다고 고백한다. 모든 개념을 부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작가가 마지막까지 단안하기를 주저하던 가치였다는 것에서 작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창조를 문학을 통해 이루고자 마음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는 아름다움을 내 가치로 택했는데, 그것은 저 창수령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다.’ 라는 주인공의 목소리에 예술가(소설가)로

---

161) 이문열, 『젊은날의 초상』, 민음사, 2000, 작가후기.

162) 이문열, 「그해 겨울」, 『젊은날의 초상』, 민음사, 2000, pp.225-226.

입문하게 된 작가 이문열의 내면이 이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진실로 예술적인 영혼은 아름다움에 대한 철저한 절망 위에 기초한다고.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아름다움을 창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도전하고 피 흘린 정신 때문이라고.<sup>163)</sup>

위의 글에서 진실로 예술적인 영혼은 아름다움에 대한 철저한 절망 위에 기초하며, 불가능한 줄 알면서 절망을 딛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예술가가 위대하다는 작가의 예술가 혹은 예술에 대한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작품 내의 예술가가 사회로부터 ‘분리’ 혹은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오로지 예술을 위해 개성을 고수하며 자기완성의 삶을 실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작가의 낭만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예술로 승화시켜 자기완성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작품에서 그려진다. 이러한 면면을 그의 예술가 소설 「들소」와 「금시조」, 『시인』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소재를 얻어 쓴 소설 「들소」에서 이문열은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권력과 사유(私有)의 문제를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본질과 예술가의 기질과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에 대해 다룬다. 이 소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작가는 예술과 예술가의 삶과 예술관의 변모 과정에 대해 관심을 심화시켜 「금시조」를 거쳐 『시인』에 이르는 예술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작가가 일찍이 가졌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하고 그것을 본질로 한 예술가 소설을 창작함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작가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자신의 가치로 택했다, 는 표현에서 인간으로서, 작가로서 지향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문열의 예술가 소설은 의미가 크다.

---

163) 앞의 책, p.192.

「들소」 164)의 주인공은 성인식을 앞둔 소년이다. 각자의 이름을 얻는 성인식의 마지막 코스인 소사냥에서 주인공은 돌진해오는 소를 피하다가 ‘소를 겁내는 자’라는 치욕스런 이름을 얻게 되고, 사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힘세고 용감한 동료들과는 달리 현실로부터 내쳐져 동굴 안에서 날라주는 창자루나 화살을 다듬고 거기에 혈족을 상징하는 무늬를 새기거나 그 임자의 무훈(武勳)과 이력을 과시하는 장식을 다는 일을 하게 된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부족한 그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용감한 용사들이 던져주는 양질의 고기를 받아먹으며 그들을 위해 일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오, ‘초원의 꽃’ 단조롭고 몽롱한 유년에서 벗어난 이래 그의 모든 낮과 밤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가 얻은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은 모두 그녀에게 바쳐졌고, 꽃 한 송이 새소리 한 가락도 그녀와 연관짓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때로 그의 그런 노력은 그녀의 보답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몇 번인가 은밀한 관목 숲이나 후미진 바위 그늘에서 어른들로부터 금지된 장난을 한 적도 있었다.(p.175)

164) 이문열, 「들소」, 『이문열중단편전집 1』, 아침나라, 2001. 기본서로 함. 위대한 어머니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한 혈족이 있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정교일치 모계중심의 이 혈족에 저항세력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강한 저항세력인 뱀눈은 비열한 방법으로 힘을 키워 나간다. 안락과 부를 쫓는 ‘초원의 꽃’을 사랑하는 힘없고 들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이 나약한 ‘소를 겁내는 자’는 점점 사랑이 깊어 간다. 이런 ‘소를 겁내는 자’를 사랑하는 ‘산나리’의 사랑도 깊어 간다. 그러는 사이에 평원지방에 내려갔던 ‘큰 목소리’는 다시 혈족으로 돌아오고 ‘위대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다. ‘위대한 어머니’가 없는 혈족들 사이에는 뱀눈에 의한 불길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 사실을 ‘붉은 노을’은 ‘큰 목소리’와 ‘소를 겁내는 자’에게 찾아가 알린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이 사실을 접한 ‘큰 목소리’는 세력을 규합하여 뱀눈에게 저항하지만 무력함을 확인한 후 뱀눈에게 항복한다. 혈족의 축제에서 ‘큰 목소리’는 뱀눈에게 부당함을 외치다 그도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소를 겁내는 자’는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자신의 소를 찾아 떠난다.

그가 손의 동굴 안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운명에 처하자 그토록 사랑한 '초원의 꽃'은 권력의 상징인 '뱀눈'을 선택하게 되고 주인공은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 손의 동굴에서 무늬나 그림을 새겨 넣으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집단으로부터의 '분리'와 '소외'를 의미한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부족하여 그들로부터 내쳐진 주인공은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였던 사랑마저 상실하게 되고, 손의 동굴에서 단순노동을 하다가 후에 '신비의 동굴'로 옮겨져 예술가의 길을 운명적으로 가게 된다. 그가 단순노동에서 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변모할 수 있게 된 것은 남다른 재주를 가진 것 외에 현실에서는 채울 수 없었던 결핍감이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적 기질 혹은 개성과 함께 치명적인 결핍감이 필요조건이 되며, 결핍감은 예술 활동을 통해 치유되고 예술로서 자기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까닭 없이 그를 좋아하고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가 마지못해 준 뺨 조각이나 조개껍질을 그녀는 소중하게 지녔으며, 무심히 한 말도 오래오래 기억했다. <중략> 그런데도 웬지 그는 그녀가 싫었다. <중략> 하늘 저 멀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흰구름이 흘러가 닿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들 최초의 어머니는 어디서 왔을까? 영혼은 정말로 영원히 사는 것일까..... 아니면 열매와 낱알이 풍부한 숲, 습기 없고 아늑한 동굴, 둘 만의 성합(性合), 그를 닮은 아이들 - 따위의 공상, 사실 그것들은 그도 궁금히 여기거나 때로 꿈꾸는 것들이었다. 다만 그것들을 '산나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싫을 뿐이었다. 아아, 그녀가 '초원의 꽃'이었다면, '초원의 꽃'이었다면.....(pp.177-178)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한데다 자신의 영혼을 독차지했던 여인마저 권력과 부를 가진 뱀눈에게 빼앗기고 절망에 빠진 주인공, 그가 <초원의 꽃>(165)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듯이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산나리>라는

존재가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며 주변을 맴돌지만 주인공의 마음은 내키지 않는다. <산나리>가 주인공을 대상으로 꿈꾸는 삶은 주인공이 <초원의 꽃>과 함께 하고 싶었던 삶이다. 자의식이 싹튼 이후로 오로지 <초원의 꽃>만 까닭 없이 좋아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인공의 내면에 가득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산나리의 존재가 싫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상실감과 절망감을 견뎌내기 위해 손의 동굴 안에서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

단순노동에 매달린 결과 주인공은 <위대한 어머니>의 배려로 ‘신비의 동굴’로 옮겨지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게 된다. ‘손의 동굴’에서 ‘신비의 동굴’로 옮겨졌다는 것은 주인공이 단순노동에서 예술가의 길을 운명적으로 가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일에 몰두한 결과 일터가 달라지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혈족들을 이끄는 것은 우리들의 세대다. 나와 몇몇 동지들은 모든 용사들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얻기에 충분한 힘과 용기를 보였었고, 너희들은 이 동굴의 주인이 되었다. 남은 것은 너희들의 목소리나 그림과 우리들의 뜻을 일치시키는 일이다. 우리를 신뢰해 달라. 우리에게 협조해 달라. 대신 나와 내 충실한 동료들은 약속한다. 앞으로 너희들은 지금껏 받은 그 어떤 대우보다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혈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너희들을 우러르게 될 것이고, 이 동굴은 언제나 최상의 고기와 과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pp.201-201)

부족을 지배하게 하게 된 뱀눈이 권력을 내세워 동굴 안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에게 ‘너희들의 목소리나 그림과 우리들의 뜻이 일치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을 한다. 그렇게 해준다면 혈족들은 동굴 안의 사람들을 우러르게 될 것이고, 최상의 고기와 과일이 제공될 것이라는 솔깃한 조건을 제시한다. 뱀눈

---

165) 「들소」에는 작중인물들의 이름을 <초원의 꽃>, <위대한 어머니>, <뱀눈>, <붉은 노을>, <맨 먼지 찌른 자>, <장엄한 목소리>, <날렵한 손>, <소에 짓밟힌 자> 등과 같이 그 인물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표현한다.

의 회유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그림을 그리거나 무늬를 새기는 작업을 할 때 주문대로만 하라는 것이다. 이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능공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뱀눈의 제의에 대해 ‘신비의 동굴’에서 함께 일하는 <큰 목소리>는 ‘아무리 하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혈족의 희생을 요구하고 불리를 가져온다면 나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p.202)’ 하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에는 수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그것은 모두 우리 혈족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힘 있고 많이 가진 자를 위해 부르는 노래는 진정한 노래가 아니고 그들의 욕망을 표상하거나 주거를 장식해 주는 그림 또한 진정한 그림일 수 없어. (p.211)’ 라며 주인공을 설득하면서 권력의 상징인 ‘뱀눈’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권력이 그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그것이 예술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록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받아들일 의향이 없으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능공으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며 생활하던 중에 되풀이 되는 단순노동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 주인공은 좀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싶은 예술적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는 이미 교감적인 마술의 도구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림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였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생생한 화체(化體) - 그렇게도 열렬하게 쫓았으나 결국은 한번도 잡지 못한 들소 그 자체를 이제 자신의 선과 색으로 잡아보고 싶을 뿐이었다.(p.182 )

주인공이 예술적 욕구를 느끼고 추구하는 들소의 그림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는 한번도 잡아보지 못한 관념 속의 들소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관념 속에 있는 들소를 자신의 선과 색으로 잡고자 하는 예술적 욕구를 느끼기 시작하며, 관념 속에 있는 들소를 잡겠다는 욕구에 집착한다. 그가 그리려고 하는 들소의 그림은 누구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적 충동에 따라 그리려는 것이며, 어떤 목적을 위한 종속적 가치가 아니라 표상된 선과 색의 완전성이 가지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주인공의 이러한 예술관은 오직 공리적이고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사회의 지배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리 없다. 주인공으로부터 자신만의 소를 그리고 싶다는 예술적 욕구를 들은 <큰 목소리>는 ‘이 땅 위에서 행해지는 것은 모두 무엇인가를 향해 있으며, 자신들의 노동이 집단의 이익과 관심에서 떨어져 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며 경멸에 찬 눈길과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질타를 한다.

정신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큰 목소리>로부터 비난을 받자 주인공은 그들과의 연계(連繫)에서 탈출을 감행하게 되나 실패한다. 나약하다는 이유로 현실과 사랑으로부터 내쳐져 동굴 속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첫 번째 좌절이라면, 예술적 욕구 때문에 기능공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현실이 그에게는 두 번째 좌절이자 비극인 셈이다. 첫 번째 좌절은 노동의 힘으로 극복을 하였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무엇으로도 극복이 되지 않음으로 주인공은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고, 탈출에 실패하자 공포적인 고독이 또 하나의 새로운 운명으로 그의 영혼을 지배한다. 예술적 욕구를 절실하게 느끼나 허락되지 않는 현실, <산나리> 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립된 존재가 된 주인공은 마침내 <위대한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묻는다.

왜 저의 창날은 사냥감의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화살은 항상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까? 어째서 제 담력은 풀숲을 뛰는 토끼보다 못하고 제 머리엔 망상만이 가득한 것입니까? 떨어진 작은 새의 주검이 유독 제게만 슬픔이 되고, 숨겨 가는 꽃사슴의 눈망울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위대한 어머니, 혹 자연은 저의 출생을 꺼린 것이나 아닌지요. (p.185)

머리에 망상만 가득하고, 작은 새의 주검이 슬픔이 되고, 숨겨 가는 꽃사슴의 눈망울이 괴롭게 느껴지는 주인공의 낭만적인 성품으로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적응해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이 현실에 어울리는 인간형이 아니라는 자괴감에 시달리자 마침내 ‘자연은 자신의 출생을 꺼린 것이 아닌가’ 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위대한 어머니>는 ‘네가 네 형제들과 다른 점은 너의 피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 이라고 답해 준다.

‘그럼 제 피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우리 혈족이 아니었던 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는 비록 우리들의 혈족이 아니지만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저 먼 하늘과 그곳에 계신 조상들의 영혼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한번도 싸움과 사냥에 나서본 적이 없지만 어떤 용사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p.186)

먼 하늘과 그곳에 계신 조상들의 영혼에 가까운 사람, 비록 싸움과 사냥에 나서본 적이 없지만 큰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위대한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는 ‘신비의 동굴’로 돌아가 자신만의 소를 잡기로 결심한다. ‘먼 하늘과 그곳에 계신 조상들의 영혼에 가까우며, 큰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예술가의 기질’ 또는 ‘예술가의 영혼’을 가졌음을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개성과 의식 세계를 가졌고, 그런 까닭에 ‘자연이 자신을 꺼린 것이나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기질’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즉 예술가는 예술적 영혼으로 인하여 운명적으로 상처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며, 그러한 고통과 소외 속에서도 그것을 에너지로 하여 끝없이 예술을 추구하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 난 사람은 현실에서의 안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자신의 기질을 펼칠 때에야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주인공이 예술적 욕구를 느끼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초원의 꽃’과 대면하게 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눈 이후 주인공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사람은 현란하게 꾸며진 말을 벗기면 모두 저마다의 소를 좇고 있을 뿐이예요. <뱀눈>은 권력의 소를 좇고, <달무리>는 그 <뱀눈>이 나누어주는 부귀의 소를 좇는 식으로……그런데 제가 좇는 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풍요와 안락의 소예요. 그리고 ‘뱀눈’을 좋아한 것은 그가 바로 그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중략> 물론 당신처럼 무엇을 좇는지 얼른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죠. 당신은 그림을 그려 주고 <뱀눈>으로부터 고기와 가죽을 얻고 있지만 그게 바로 당신이 좇고 있는 소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당신은 무언가 다른 소를 좇고 있는데, 물론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소보다 훌륭할 테지만 사실은 그것은 잡을 수 없는 환상의 소예요. <중략> 당신은 나와 다른 소를 좇고 있고, 그 소는 아마 이 세상에선 잡히지 않으리란 걸.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내가 당신을 피한 것은 바로 그런 당신의 운명이었어요. <중략> 이 땅 위의 더위와 추위를 피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도 누구보다도 당신을 나의 짝으로 선택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중략>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환상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고……“ (pp.232-233)

<뱀눈>이 싸움에 저 유목민 중에 가장 강력한 부족과 화평을 맺고 그 정표로 아름다운 <초원의 꽃>을 그들 부족장에게 보내려고 치장을 시키는데, 주인공은 <뱀눈>의 천막 안에서 <초원의 꽃>을 분장하게 된다. 그는 분장사로 전략한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한 <초원의 꽃>이 뱀눈하고 살다가 이제는 흡사 전리품처럼 취급되어 다른 부족장의 여자로 가게 됨에도 치장을 즐기는 것처럼 행동하자, ‘발정난 암캐처럼 아무하고 어울려도 즐겁소’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다. 이에 대해 <초원의 꽃>은 위의 인용문의 내용처럼 인간은 모두 저마다의 소를 좇고 있을 뿐이며, 자신의 소는 풍요와 안락인데 <뱀눈>이 이제 그것을 못해 주니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데려가 그런 것을 준다면 슬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무언가 다른 소를 잡고 있는데,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소보다 훌륭할 것이지만, 그것은 잡을 수 없는 ‘환상의 소’라고 말하며 그러한

내면을 가진 당신의 인생을 알기에 운명을 피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풍요와 안락 정도는 아니어도 더위와 추위를 피할 정도만 되었어도 당신을 사랑했거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수그린 주인공의 머리를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며 두 눈 가득 흐르는 희열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준다.

치장을 마친 <초원의 꽃>은 떠나갔고 <뱀눈>이 지배하는 씨족은 그 대가로 평화와 목초지와 가축을 얻어 축제를 벌인다. 축제의 광장에서 춤추는 전사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며 주인공은 잠시 '나도 일찍이 너희들과 같은 소를 쫓아야 했다. 저 먼 하늘에 그렇게도 자주 동경의 눈길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고, 스러지고 말 아름다움에 그렇게도 무모하게 집착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 라고 우울해 한다. 그때 '잡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소는 그 어떤 소보다 훌륭할 것'이라던 <초원의 꽃>의 말이 떠오른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한 그림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였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미적 욕구를 더욱 강렬히 느낀다. 그리고 이땅(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확연히 깨닫고 이상한 열정으로 몸을 떨다. 이상한 열정을 느낀 그는 '신비의 동굴'로 돌아가 자신의 선과 색으로 자신만의 소를 잡아야겠다고 중얼거리며 가족이 기거하는 초라한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초라한 천막 안에는 산나리와 그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몇 가지 도구를 챙긴 그는 잠시 불현듯한 애정과 연민으로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잘 있거라, 가엾은 것들. 그는 특히 잠든 두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떠남으로 너희는 험벗고 굶주리며 자라야 하겠지.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않을 수 없다. 아비에겐 잡아야 할 아버지의 소가 있다. (pp.236-237)

주인공은 아이와 산나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며 자신이 떠난 후에 겪게 될 가족들의 앞날을 그려보다가 자신의 예술적 욕구와 성취를 위해 냉정하게 가족들을 남겨두고 '신비의 동굴'로 돌아간다. 그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지 못하고 동굴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에서 뿌리내리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의 미적 욕구에 충실하기 위해 현실을 벗어나는 예술가의 이기성과 그러한 내면을 가진 주인공의 인생을 알기에 운명을 피했다는 초원의 꽃의 배반이 주인공에게 있어 에너지로 작용하였듯이, 그러한 내면을 가진 예술가를 사랑한 산나리의 헌신적인 존재 역시 예술가에게 있어 에너지가 됨을 유추할 수 있다. <소를 겁내는 자>라는 이름을 얻음과 사랑하는 여인을 상실한 결핍감을 노동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술을 선택한 주인공은 거기에 더하여 자신이 떠남으로 해서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할 가족들의 삶에 대한 연민, 그 짐을 내면에 안고 혼신의 힘을 쏟아 마침내 자신만의 들소를 그려 자기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진정한 예술가는 생활과 예술을 병행할 수 없는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최상에 두고 그것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예술가로서 자기완성의 삶을 살게 된다. 소를 겁냈던 주인공은 위험과 소외를 자초하면서까지 그림을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가치로부터 해방시켜 그림 그 자체의 독자적 가치를 확보하는데 삶의 전부를 걸었고 그러다 마침내 목숨까지 잃게 된다.

작가는 「들소」를 통해 예술의 효용적 기능보다는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또한 예술적인 인간에게는 사회적·정치적 가치와는 독립된 스스로의 가치가 있으며, 예술은 자기 목적적이고 자기완성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문열의 중편소설 『금시조』<sup>166)</sup> 역시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중 하

166) 1981년 《현대문학》 12월호에 발표되어 이듬해 제15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받은 소설이다. 『금시조』는 추사 김정희의 글에서 따온 것으로 유추되는데, 추사는 서예가가 높은 경지에 이른 예를 <일찍 법원사에서 성친왕 저하가 쓴 글씨, 찰나문(刹那文) 삼대자를 보니 금시조가 바다를 가르거나 향상이 물을 건너는 기세가 있어 우리 동쪽 나라에서는 열 명의 석봉이라도 당할 수가 없겠으니>라고 기술한 바 있다.

嘗於法源寺 見成邸所書 刹那門三大字 有金翅劈海 香象渡河之勢 在東國 十石峯不可當 「雜識」, 『阮堂先生文集』 卷八.

나로 그의 대표작 중 한 편이라 할 만큼 여러 가지 의미에서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이 소설은 한 소년이 대서예가인 석담의 문하에 들어가 고행과도 같은 수련기간과 갈등과 방황 끝에 비로소 예술가로서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고죽이라는 한 예술가의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금시조』를 주인공인 소년이 석담 문하에 들어가 수련하고 방황하면서 참된 예술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기까지와, 주인공이 스승과의 화해와 깨달음 끝에 자기의 예술세계를 구축하여 자기완성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년이 석담의 문하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예술가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과제의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 한말 시(詩), 서(書), 화(畵)에 있어 3대가(三大家)의 한 사람이라 불린 석담은 소년의 숙부인 친구의 부탁으로 먹이고 입히기만 할 것을 약속하고 소년을 맡게 된다.

“너 글을 배웠느냐?”

숙부가 떠나고 석담선생이 그에게 처음으로 물은 말은 그러했다.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학(小學)을 읽어라. 그걸 읽지 않으면 몸들 바를 모르게 된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뒤 그는 몇 안되는 선생의 문하생들 사이에서 몇 년이고 거둬 소학을 읽었지만 선생은 끝내 못 본 체했다. 그러다가 열 셋 되던 해에 선생은 그를 난데없이 가까운 소학교로 데려갔다.

“세월이 바뀌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신학문(新學問)을 익히도록 해라.” (pp.92-93)

석담은 소년의 숙식만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맡은 이후에 소년에게 서화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지만 아래의 이유로 자신의 문하에 들이려 하지 않는다.

첫째는 저 아이에게는 재기(才氣)가 승하오. 점획(點劃)을 모르고도 결구(結句)가

되고, 열두필법을 듣지 않고도 조정(調整)과 포백(布白)과 사전(使轉)을 아오. 재기로 도근(道根)이 막힌 생래의 자장(字匠)이오.(p.101)

소년에게는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없으며, 왕희지가 말한 비인부전(非人不傳)을 내세워 그릇이 못된다고 문하에 들이는 것을 거절한다. 그러나 내심으로 소년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던 차에 친구인 운곡(雲谷) 선생의 간절한 부탁이 있자 마지못해 석담은 소년에게 ‘지계를 벗고 사랑에 들라’고 허락한다. 이것이 석담이 소년을 문하에 입문한 방식이었으며 이후 석담의 가르침 역시 입문의 허락처럼 상세하거나 친절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냉엄하였다.

선생이 알 듯 말 듯한 미소에 젖어 조는 듯 서안(書案)앞에 앉아 있을 때,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은 이제는 다만 지난 영광의 노을로서만 파악되는 어떤 유연한 세계를 넘나들 때나 신기(神氣)가 번득하는 눈길로 태풍처럼 대필(大筆)을 휘몰아갈 때, 혹은 뒤결 한 그루의 해당화 그늘 아래서 탈속한 기품으로 난을 뜨고 거문고를 어를 때는 그대로 경건한 삶의 한 사표(師表)로 보이다가도, 그 자신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반년도 안돼 굵어 죽은 송장을 쳐야 할 것 같은 살림이나 몇몇 늙은이와 이제는 열 손가락 안으로 줄어든 문인들을 빼면 일년 가야 찾아주는 이 없는 퇴락한 고가나, 고된 들일에서 돌아오는 그를 맞이하는 석담 선생의 무력한 눈길을 대할 때면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벗어나야 할 무슨 저주로운 운명처럼 느껴졌다. (p.98)

입문에 이르게 된 것과 가르침의 방식이 관대하지 않음에도 고죽은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모와 동경의 마음으로 석담을 섬겼다. 석담이 고죽을 문하로 들였음에도 그에게 이른 것은 추사의 사백자 넘는 서결(書訣)을 위우게 한 것과 안진경의 법첩을 베껴쓰게 하며, ‘네가 이걸 백번을 쓰면 본(本)은 될 것이고, 천 번을 쓰면 잘 쓴다 소리를 들을 것이며, 만 번을 쓰면 명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는 식이었다. 그리고 삼 년이 경과되어서야 글씨를 쓸 때는 숨을 멈출 것과 난은 많이 쳐보아야 한다는 식의 간결한 가르침

을 줄 뿐이었다. 그것은 고매한 예술가가 자신이 그러한 방식으로 체득했듯이 문하생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승의 면모에서 예술의 체취를 가슴으로 느껴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석담을 섬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승을 흉내 내고 있는 자신을 고죽은 발견하게 된다.

고죽이 석담의 문하에 들어가 수련하여 어느 경지에 접어들면서 그와 같은 스승의 가르침에 내심으로 반발하게 되고 누적된 감정이 쌓여 제자와 스승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되는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은 서로간의 예술관 때문이다.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아 한말 3대가에 속하는 영남 명유(名儒)의 후예인 석담은 추사(秋史)처럼 예술가라기보다는 학자에 가까웠으며 중세적인 예도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술가다.

석담에게 있어 서화는 심화(心畵)이며, 물(物)을 빌어 내 마음을 그리는 것으로 학문과 문학, 예술의 근본이 되는 것은 정신이고 재능은 한갓 지엽적인 것일 뿐이다. 그는 근본 없이 지엽만 승(勝)하면 지엽에 이끌려 근본을 소홀히 할 것이 불 보듯 정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고죽은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정(情)과 의(意)를 드러내고자 하여 스승과 달리 대상에 충실하려는 물화(物畵)를 높이 여긴다.

스승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고죽은 석담을 벗어나는데 그의 첫 이탈은 스물 일곱 살 때로, 스승이 노할 것을 뻔히 알면서 서화전에 출품을 하기도 하고 무단이탈을 하여 방종한 생활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냉엄한 석담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지만 수련을 할수록 스승의 서화론에 수궁할 수 없는 것이 내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다 다시 석담 곁으로 돌아온 고죽은 서론 중 반에 다시 예도논쟁을 하게 된다.

“선생님 서화는 예(藝)입니까, 법(法)입니까, 도(道)입니까?”

“도다.”

“그럼 서예(書藝)라든가 서법(書法)이라는 말은 왜 있습니까?”

“예는 도의 향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

<중략>

“기예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藝能)이 되고, 도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예술이 되고, 혼연히 합일되면 예도가 된다.”

“그것은 예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앞세워 예기(藝氣)를 억압하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다 묶는 께이 아니겠습니까?” (pp.117-118)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이 되고, 도로 나가야 예술이 된다는 석담의 말에 대해 고죽은 도를 앞세워 예기를 억압하는 것이며 그것은 수레를 소 앞에다 묶는 께이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항변한다. 이렇듯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예술관의 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예도논쟁 이후 고죽은 자신이 모든 걸 바쳐 추구했던 예술의 경지가 안개처럼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구적인 견해로 보면 고죽은 타고난 예술가였다. 그러나 석담선생의 눈에는 천박하고 잡상스런 예인 기질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고죽의 개성이 보다 약했거나 그가 태어난 시대가 조금만 일렀다면, 그들 사제간의 불화는 그토록 길고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고죽은 자기의 예술이 그 본질과는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을 못 견뎠고, 점차 시민사회로 이행해 가는 시대도 그런 그의 편에서 있었다.(pp.145-146)

고죽이 예술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서양 예술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타고난 주관이 뚜렷한 예술가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석담의 견고한 예술관에 못지않게 고죽 또한 자기의 예술세계가 그 본질과는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에 못 견뎠고, 변화되는 시대도 고죽의 뜻과 같이 했다. 고죽이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예술의 근본이 되는 것은 정신이고 재능은 지엽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석담의 눈에는 고죽이 천박하고 잡스런 예인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대상에 충실하려는 고죽은 현실(스승의 예술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더하여 속절없이 묵향과 종이 먼지 속에서 흘러간 인생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글씨쓰기와 그림그리기

자체에 허망함을 느낀다. 복잡한 심사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석담이 만호 제력(萬毫齊力) 녀 자 중에 석자만 간신히 쓰고 붓을 연진에 기대 놓고 체력이 달려 숨을 헐떡이며 “소재(蘇齋:翁方綱)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천하태평(天下泰平) 녀자를 썼는데, ‘만호제력’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다” 고 하자,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像)이 노닐들,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중략>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는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는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중략>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지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흘렸던 것입니다.....”(pp.121-123)

고죽은 체력이 달려 숨을 헐떡이는 스승을 위로하기는커녕 억눌렀던 심화가 솟아나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예도논쟁 차원을 넘어, 서화 자체를 부정하며 스승에게 노골적으로 심사를 드러내며 무례하게 맞선다. 고죽의 독설에 스승 석담은 벼루 뚜껑을 던져 고죽의 이마에 상처를 입히고, 샘솟듯 솟는 피를 훔치고 있는 고죽에게,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자거리에 나왔어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게다...(p.123)

석담이 광기어린 고향을 치며 고죽을 내치고, 스승과 제자 사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그 길로 고죽은 석담에게 내쳐져 자기방식대로 독자적인 삶을 산다. 그 후 10년을 떠돌던 고죽은 스승의 친구로부터 석담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말을 전해 듣고 스승의 본심을 깨달으며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대산에 있는 절에 가서 세상의 때를 씻고자 반년에 걸친 참선을 행한다.

고죽이 오대산에서 속세의 때를 씻고자 반년에 걸친 참선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석담은 이미 세상을 떠나 두 사람은 이승에서 다시 상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관상명정(棺上銘旌)을 고죽에게 쓰게 하라는 스승의 유언을 운곡 선생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관상명정(棺上銘旌)을 쓰라는 건 고죽의 글을 지하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며 그만큼 석담이 고죽의 글을 사랑했다는 운곡의 말은, 끝내 노선을 달리 했지만 제자인 고죽의 예술을 스승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다. 이는 일생을 외롭게 산 석담에게 고죽에 대한 애증이 켜켜히 쌓여있지만 그래도 마음 저 깊숙한 곳에는 피붙이처럼 고죽을 아꼈던 마음과 예술가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sup>167)</sup>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서실로 돌아온 고죽은 예전에 습득한 여러 서체를 다시 섭렵하고 학문에도 더욱 정진하여 깊이를 더하게 되면서 추사의 마지막 전인(傳人)인 스승 석담에 대한 새삼스런 이해와 사모의 마음을 느끼고, 추사의 예술세계를 새롭게 만나 감탄을 한다.

그러나 추사도 끝까지 고죽을 사로잡고 있지는 못했다. 스승 석담이 애초에 그를 받아들일 것을 주저했으며, 생전에 내내 경계하며 억눌렀다. 고죽의 예인적인 기질이, 승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차츰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스승 석담에 대한 이해와 사모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고죽이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

167) 고죽이 죽기 전 석담과 화해를 이루었다는 견해를 편 김일렬은 “스승은 제자의 타고난 예술적 재능에 대한 애정을 차마 버릴 수 없었고, 제자는 스승의 높은 학문에 대한 경외와 흠모의 정으로부터 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일렬, 「근대적 예술가 정신과 중세적 예도 사상」, 『이문열』, pp.116-117.)

추사의 예술관 때문이었다. 예술은 예술로서만 파악되어야 한다고 믿는 입장에서 보면 추사의 예술관은 학문과 예술의 혼동으로만 파악되었으며, 문자향(文字香)이거나 서권기(書卷氣)는 미를 구현하는 보조 수단 또는 미의 한 영역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바로 미의 본질적인 요소거나 그 바탕일 수는 없었다. <중략> 결국 추사는 스승 석담처럼 찬란하고 존경할 만한 거인이기는 하지만 예술에 있어서의 노선(路線)까지 따른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p.137)

고죽이 서체를 다시 섭렵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예술세계가 더욱 심오해지고 스승인 석담을 새삼스럽게 이해함과 아울러 추사의 예술세계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해서 고죽의 방향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석담과 추사의 예술세계에 대해 감탄하고 새롭게 이해하기는 해도 추사에게서 물려받은 석담의 예술관에는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작가 이문열의 예술관을 반영한 것으로, 학문과 예술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서화에서 문자향과 서권기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고죽이 추사나 석담을 존경할 만한 거인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예술에의 노선까지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의 의미는 서화는 서화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작가의 예술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이다.

이러한 작가의 예술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 속의 시대적 배경은 중세적 예술관과 근대적 예술관이 만나고, 동양적 예술관과 서양의 예술관이 만나면서 혼란과 진통이 거듭되던 한말이다. 석담의 예술관에 영향을 준 추사의 예술관이 고죽에게는 학문과 예술의 혼동으로만 보였다는 작가의 말은 근대적 예술관을 가진 고죽을 통해 예술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예술관, 즉 근대적 예술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예술관인 근대적 예술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죽의 서화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물화(物畵)와 심화(心畵)의 구분이다. 물화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거기다가 사람의 정의(情意)를 더하는 것이고, 심화란 사람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물을 빌어오되, 그것을 정의에 맞추어 가감하고 변형시키는 것이다.

근대적 예술관을 고수한 고죽은 죽음을 생각해야 할 나이에 이르면서부터 미적완성을 향해 날아가는 새, 금시조를 보고자 염원했다. 그는 자신의 붓끝에서 날아오르는 금시조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일생에 걸친 추구가 헛되지 않고 쓸쓸하고 괴로웠던 삶도 보상될 것으로 믿은 것이다. 그러나 고죽은 끝내 그 새를 보지 못했다.

내가 진정으로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내가 일생을 골몰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중략> 그것은 서화였다. <중략> 일생을 되풀이 된 충동이 바로 미적(美的) 충동이었고,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그의 서화였던 것이다.  
(p.144)

고회를 넘긴 고죽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부터 자신의 서화를 거두어 들여 한 점 한 점 서화들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는 만족할 만한 작품이 한 점도 없음을 알고 모두 불태운다. 종지와 형겉인데다가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 서화더미는 맹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그때서야 고죽은 그 불길 속에서 찬란한 금빛 날개로 솟아올라 힘찬 비상을 하는 금시조를 보게 된다. 자신이 평생을 쏟았건만 흠족한 작품이 하나도 없는, 실패만을 확인하고 그것을 불태워 버리는 순간에서야 미적완성을 향해 날아가는 금시조를 보게 된 것이다. 불타오르는 서화더미 속에서 찬란한 날개를 가진 금시조가 힘찬 비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거둬들인 실패가 바로 예술의 완성임을 고죽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오르는 서화더미의 불길 속에서 날아오르는 금시조, 그것은 바로 고죽에게 있어 예술가로서의 삶의 완성이었던 것이다.

석담이 추사의 예술관을 이어받은 것처럼, 석담의 문하에 들어온 이상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예술관을 전수받는 것이 현실이었으나, 고죽은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예술 자체의 가치를 위해 일생을 바쳐 노력하였다. 이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작가의 예술관은, 주인공이 한 평생 심혈을 기울여 남긴 서화에서 한 편도 만족할만한 작품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모두 불태우는 순간 금시조를 보게 된다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참다운 아름

다음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인간은 다만 미적성취를 위해 절망 속에서 피흘리며 도전할 뿐이며, 무한히 도전하는 열정이어야말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고 있다.

예술가 소설 중에 작가가 가장 훌륭한 것으로 믿고 싶어 하는 『시인』<sup>168)</sup>은 방랑시인 김병연<sup>169)</sup>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다. 작품의 마지막에 밝힌 작품 속의 화자의 말, ‘여기서 찾아 떠났던 것은 한 시인으로서의 그였으며, 이제 그 추적은 끝났다’에서 작가가 예술가로서의 김병연의 삶을 추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병연이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빠어난 시인> 혹은 <참시인>, 또는 <완전한 시인>에 이르는 과정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예술가 소설에 속한다<sup>170)</sup>.

이문열은 처음 김병연의 설화를 대하면서 설화 속에 감추어진 정치적·사회적 의미들이 그에게 ‘전율과도 같은 감동’을 주었다고 『시인』의 책머리에서 고백한다. 작가가 김병연의 행적들을 추적해가며 전율과도 같은 감동을 느꼈다는 것은 김병연의 극절 많은 삶과 자신의 삶에서 유사성을 발견했기 때문이

---

168) 『시인』은 작가가 1991년 《세계의 문학》에 연재한 다음 단행본으로 출판한 소설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단편 「시인과 도둑」을 초판본에 추가하여 개작 개정판을 1993년에 내고, 1994년에 부분적으로 가필하여 개작한 후 간행한 장편소설이다.

169) 『시인』의 주인공인 김병연은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 살 나던 해 선달 어느 밤에 하인의 등에 업혀 집을 나선 후 전라도 어느 고을에서 선여섯 살로 죽을 때까지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한번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다. 1807년 경기도 양주(지금의 의정부)에서 태어난 그는 흥경래의 난 때 반군에 투항했다가 난이 평정된 후 역적으로 처형당한 선천(宣川)부사 김익순(金益淳)의 손자로, 김병연은 한 시골 백일장에서 역적 김익순을 욕하는 시를 써 장원을 했는데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은 불충과 불효를 저지른 죄인이라며 한평생을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과객으로 팔도를 떠돌며 살다가 선일 곱 살로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사람이다.

170) 『시인』을 이동하는 ‘1807년에서 1863년까지에 걸쳐 살았던 김병연이라는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 펼쳐 나간 한 편의 역사소설’이라고 주장한다.(이동하, 「설화의 세계와 소설의 세계」, 『시인』, 동지, 1993, p.250)

며, 김병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작품을 잘 읽어보면 자전적인 경향이 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그가 책머리에서 ‘김삿갓이란 한 특이한 시인의 생애에 문학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4년부터이고, 『영웅시대』의 출간과 관계된 시비 때문이며, 김삿갓을 방랑으로 내몬 동기와 작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인(否認)을 관련지어 유사성을 발견한 것’ 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시인』에서 김병연이 예술가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외와 가치 박탈의 체험을 든다. 소설의 주인공인 김병연이 대역죄인의 자손으로 평생을 빈민 속에서 시를 읊으며 떠돈 삶은, 작가 이문열이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에 입당하고 월북한 대가로 억압 받으며 잦은 이사와 우여곡절 끝에 소설가로 살게 된 삶과 유사하다. 이렇듯 김병연의 행적에 따른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의 체험이 이입(移入)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병연은 대역죄인의 자손으로서 체제의 억압과 가치 박탈을 체험했고, 소외와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김병연은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려 <빠어난 시인> 혹은 <참시인>, 또는 <완전한 시인>, 즉 예술가로 자기완성에 이르렀고, 이문열 역시 유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작가로 탄생된 것이다. 이문열이 ‘내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기를 바라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할만큼<sup>171)</sup> 작가가 유난히 애착을 가지는 배경에는 자서전적 예술가 성장소설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 『시인』에서 화자는 김병연이 예술가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외와 가치 박탈의 체험이라고 밝히면서 그 외에도 시인이 될 수 있는 유리

---

171) 이문열, 「『시인』 등지판에 부쳐」, 『시인』, 등지, 1994, p.15. 이문열은 사석에서 대표작으로 생각하는 소설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첫 번째로 『시인』을 꼽는다. 그가 대표작으로 언급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자신의 삶과 유사했던 김병연의 삶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투영시켰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영웅시대』나 『변경』에서 내보인 것과는 달리 감정이입이 훨씬 직접적임을 알 수 있다. 김병연을 통해 울분과 절망과 문학적 변모를 쏟아냈다고 할 수 있다.

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시대의 학문적 성격과 그가 누렸던 넉넉한 여가를 예로 든다.

훌륭한 스승의 지속적인 가르침도 받지 못했고 효율적인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한 그가 그만큼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으로 ... 그 시대의 학문의 성격이다... 조선시대의 학문이란 것은 추리력보다는 이해력에, 체계적인 습득과정보단 암기력에 의존하는 점이 많았다. 따라서 그의 타고난 재능이 그런 쪽으로 유리하게... (p.63)

김병연이 가문이 몰락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 시대의 학문의 성격이 이해력과 암기력에 의존한 것이어서 독학으로 습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지식인과 같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의 훈도를 잠깐 받는 적도 있고, 서당이나 향교에서 공부한 적도 있지만, 그 기간이란 것은 여느 아이가 『사략(史略)』 한 권을 뿔 시간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그에게는 질은 형편없이 떨어져도 생계를 도맡아 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당시의 사회통념도 책을 손에 들고 있는 한 그가 노동으로 어머니의 짐을 덜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굳이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장성한 형이 일찍 학문을 포기하고 생계를 돕고 나서면서 그의 여가는 한층 편한 것이 되었다’ 고(p.64) 하는데 이는 가족 내에서의 김병연의 존재적 위치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 병하가 책을 내던지고 저자바닥으로 나서자 어머니는 ‘이젠 너만 남았다. 부디 너만은 이 어미의 피명든 가슴을 잊지 말아 다오’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면학을 당부하게 되고, 형 역시 악착스레 일을 해서 책이든 지필묵이든 그가 학문을 닦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려고 애썼다. 이처럼 김병연은 어머니와 형 병하가 살림을 맡아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학문에 임할 수 있었는데<sup>172)</sup> 이러한 존재론적 위치는 이문열의

---

172) 이는 이문열이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던 상황, 계자(季子)라는 위치가 주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독서와 방랑을 할 수

그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화자는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김병연의 낭만적 성향인 운순한 기질과 함께 조선조 후기의 가치 배분 방식을 든다.

통상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학문은 모든 가치의 근원, 아니 그 총화였다. 그것이 과거를 통하면 권력과 부귀가 되었고, 수양을 통해 인격과 합일하면 거의 종교적인 존숭(尊崇)까지도 획득할 수 있었다. 사람의 높고 낮음, 옳고 그름이 모두 그것에 좌우되었고 때로는 가짐과 못 가짐조차 그것이 결정했다. (p.64)

그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학문은 모든 가치의 총화였으며 과거를 통해 학문의 수준을 검증 받으면 권력과 부귀를 얻는 등,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김병연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몰락한 신분 회복을 갈망하며 학문에 매달렸고 그 결과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된다. 김병연이 관리로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검증받은 학문 수준의 문장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문열이 사범고시에 매달렸던 이유와 가치관, 그리고 독학으로 얻게 된 학문적 성취와 유사하다. 김병연이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서도 화자는 일탈이 시인의 보편적인 운명이자 특성이라고 말한다.

모든 일탈자가 다 시인은 아니다. 그러나 시인은 반드시 모두가 일탈자이다. 또 어떤 시인은 전혀 일탈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평범한 삶의 질서에 충실하고 그 기쁨을 웃고 그 슬픔을 운다. 그러나 그 시인도 결국은 일탈자이다. 적어도 그 사람이 시인이려면 언어에서만이라도 반드시 일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실용의 질척한 대지를 벗어나서야 고귀한 시(詩)의 천상으로 날아오른다. (p.156)

김병연이 스물 다섯에 집을 나선 이후에 회귀하고 싶었던 유혹이 없지 않

---

있었다고 본다.

았다. 일상에 대한 매력, 온기가 감도는 집과 헌신적인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과 당대의 일상이 그를 유혹하였지만, 그는 대역죄인의 자손이라는 멍에를 벗고 못이기는 척 현실에 뿌리를 내릴 만큼 모질지 못한 성품이어서 냉정하게 돌아선 이후 회귀하지 않고 일탈의 삶을 산다.

    첫눈이 뿌리는 초겨울 밤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며 김병연은 방랑을 끝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이름 없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유혹에 실제로 사립문을 밀고 들어갈 뻔 하였으나, 몸을 부르르 떨며 세차게 고개를 젓고는 돌아선다. <중략> 그 뒤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았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홀웃 차림에 삿갓을 쓰고 대지팡이를 끌며 다녔다. 처음 집을 나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었다. 그는 변함없이 시를 썼지만, 시기에 따라 그 시가 뜻하는 바도 사뭇 달랐고, 끊임없이 한 일탈자로 세상 언저리를 돌아서도 세상을 보는 눈길만은 세월에 따라 변했다. (p.158)

    김병연이 어머니의 소원이자 형 병하의 바람으로 어렵사리 백일장에 장원하였으니, 사회의 지배 계층인 관리로서 일상에 안주하여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했다면 아마도 그는 꿈꾸었던 신분을 회복하여 권력과 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배 체제와 가장과 자식으로서의 책무로부터 일탈하여 자유를 선택했다.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버리고 고행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며, 현실에서 당당할 수 없는 대역죄인의 자손이라는 멍에는 김병연에게 울분과 한(恨)을 안겨주어 일상에 안주하지 못하고 일탈적인 삶을 살게 한다. 끊임없이 일탈자로 세상 언저리를 돌아다니게 한 가족사적인 사연과 그로인해 가지게 되는 죄의식과 존재론적 회의는 그를 개성을 중히 여기는 낭만적 시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진작부터 그 모든 기억들은 토해지지 않고는 못 배길 말로 그의 내부에서 자라면서 자신들을 가장 미학적으로 변용시키고 조직해 줄 시(詩)란 양식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p.70)

작가는 『시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김삿갓에 대한 설화보다는 김병연의 삶의 궤적에 따라 시의 세계가 변모하는 것과 시의식의 변모를 사회상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김병연의 시(詩)의 변모 양상은 4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과 그러한 시들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작가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먼저 작가는 김병연의 제1기의 시는 그가 26세에서 34세까지에 쓴 것으로 과체시(科體詩)<sup>173)</sup>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작가에 의하면 이 시기의 시는 동양적 예도사상과 맥이 닿는 성격을 띠, 정격(正格)의 그것으로 화려하고 풍성하며 호탕한 풍류객의 노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격 수양과 그 연장으로서의 정치적 교화와 이념성이 강조된 시라 할 수 있다.

제1기의 시가 그러한 면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작가는 김병연이 유랑생활을 시작한 초기로서 그가 주로 상류층의 신세를 지고 다녔으므로 명문가 선비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시의 소비자층 역시 지방의 상류층이나 기녀와 같은 상류층 주변계층이었음을 예로 든다. 이러한 소비자층은 그들이 중앙의 문화와 격식을 즐겨 자연스럽게 그에 호응하는 시를 썼으며, 당시만 해도 젊은 김병연은 허세와 과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회의식도 희박했다고 한다. 즉 정치현실과 사회상황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내면에만 매달려 시의 주제도 자연이나 주관적인 정서쪽에 치우쳤으며 표현 기법은 화려하고 풍성한 수식과 감정의 과장을 담아냈다고 한다.

젊은 몸에 기생 안으니 천금이 지푸라기 같고,  
대낮에 술독을 끼니 만사가 구름 같구나.  
먼 하늘 나는 기러기 물 따라 날기 쉽고,  
푸른 산 지나는 나비 꽃 피하기 어렵네.  
<꽃을 피하기 어려워>

---

173) 문과 과거 문체의 시.

소설에 나오는 <꽃을 피하기 어려워>란 시는 단천의 기생과 주고받은 것이라 한다. 이렇듯 그는 호탕한 풍류객(風流客)의 시에 가까운 글을 쓰면서 중앙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달래고, 때로는 저질한 문화적 취향에 야합하면서 값싼 감탄과 갈채에 취해 자신의 울분과 한을 잊으며 젊은 날을 그렇게 지방수령과 향임(鄕任) 토호(土豪)들의 사랑방과 기생방에서 보낸다.

서른에 접어들면서 이제야말로 영원히 상층부로의 재편입을 포기해야된다싶자 갑자기 술과 값싼 갈채에 취해 날려 보낸 젊은 날에 회의를 일기 시작했다. 한 어릿광대나 다름없는 싸구려 시인으로 늙어갈 일이 두려워졌고, 이제는 견지 않을 수 없게 된 외롭고 고단한 남은 길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p.164)

김병연의 나이 30대 중반에 이르기 전에 변화를 맞는데, 나이가 차츰 들어가자 김병연은 술과 갈채 속에 젊음을 흘려보내 버린 그의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지방의 사대부층이나 신흥계급에 빌붙어 사는 것도 진력이 났고 기생들과의 사랑놀이도 시들해지고 그러한 행적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리고 시를 지음에 있어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황되고 추상적인 감상의 추구에도 싫증이 났다. 그리하여 서른 세살 초여름에 김병연은 자신의 할아버지를 망나니의 칼날 아래 숨지게 하고, 아버지를 젊은 나이에 피 토하며 쓰러지게 하였으며,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 놓은, 홍경래가 반란의 근거지로 삼게 된 다복동(多福洞)으로 간다. 그는 맨정신으로 도저히 갈 수 없어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고 해가 서편으로 기웃할 썸에서야 고개를 넘어 다복동 골짜기로 들어가 통곡을 한다.

그는 울었다. 할아버지의 불행한 생애를 위해 울었고, 홍경래의 허망한 꿈과 그를 따르다 죽은 수많은 가련한 목숨들을 위해 울었다. 자신의 쓰라린 반생을 돌아보며 울었고,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나 외롭고 막막할 것임에 분명한 앞날을 위해 울었다.(p.170)

그가 다북동 골짜기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앞에 봉기군의 일원이었던 원명대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김병연은 원명대로부터 그의 조부인 김익순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달리 민초들의 의로운 선각자였으며 대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홍(洪) 대원수의 대의, 아니 그 기치 아래 모여든 서북 인재들의 대의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차별이 없는 세상, 그 사는 땅에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 하는 바 생업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 가진 바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었던 것이네.”(p.178)

자신의 조부가 대의를 위해 싸운 사람,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 주려 하였다는 말을 원명대로부터 전해들은 김병연은 역적의 손자라는 오랜 원죄의식에서 놓여나게 된다. 그리고 조부로 인한 울분과 한을 씻어내게 된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지방의 상류계층과 결별을 하게 되고 제1기에서 보여주던 성격의 시는 더 이상 읊지도 쓰지 않게 되면서 시적 변모를 겪게 된다.

김병연이 제2기에 쓴 시의 소비계층은 서민대중, 민초들로 시의 형식과 내용이 확연하게 바뀌게 된다. 우선 형식적인 특성으로 ‘과격과 변조’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격식과 운율이 무시되는 것은 빈번하고 때로는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기도 하고 문자 자체의 농락까지도 예사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의 내용은 양반, 인색한 토호, 엉터리 선비, 믿을 수 없는 지사(地師), 무식한 훈장 등을 대상으로 한 야유와 조롱, 욕설로 악의에 가득 찬 것이었다.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민초들의 억눌린 감정을 시로 쓰면서 자신이 그들을 대변하는 양 노래를 읊고 다니던 세월이 지나자 김병연은 자신이 그들과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보니 그는 그들의 더부살이에

불과 했으며, 그의 시는 그들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울분과 악의를 토해낸 데 지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채 내뿜어진 자신의 시에서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묘향산에서 직접 반군들과 쉬었던 경험을 가진 늙은 선비를 만나게 된다. 그 노인은 홍경래를 두고 대의를 위해 분기한 영웅이라고들 하나 자신의 견해는 그것에 불과했으며, 홍경래는 당시의 왕을 몰아내려던 야망을 가진 자였고, 김병연의 조부란 사람도 거기에 연루되어 이쪽저쪽모두에게 낮없게 죽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 노인의 말을 듣자 새롭게 가지게 된 홍경래와 할아버지의 대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불혹(不惑)인 40대에 이르러 그의 시는 민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시 세계에서 벗어나 관조와 자기침잠(自己沈潛)의 정서를 주조로 하게 된다. 시기상으로 제3기에 해당하는 이때의 시는 세상에 대한 악의 대신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따스한 연민과 이해가 바탕을 이룬다. 형식과 기교도 변하여 정격(正格)을 존중하게 되며, 자신의 적막함은 결국 사람들의 시비에 끼여든 데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의 마을과 저잣거리, 어느 쪽이든 편이 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의 의식을 벗어나고자 새로운 기대로 자연을 찾아 나서고 자연으로 귀의한다.

이문열의 지적대로 김병연의 시는 제3기에서 멈추어버렸고 거기서 그의 방랑인생도 마감된 것으로 세상은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소설에 나오는 김병연의 제4기<sup>174)</sup>의 삶과 시는 이문열에 의해 지어진 이야기로 지천명(知天命)에

---

174) 김육동은 소설 『시인』에 나오는 김병연 시의 변모과정을 3기 이후에 다시 민중시로 잠시 회귀한 것을 4기로 보고, 그 이후를 5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김육동,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문학 이문열』, 민음사, 1994, p.376) 그러나 장양수는 4기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장양수, 『한국예술가 소설론고』, 한울아카데미, 1998, p.82) 이에 대해 연구자는 장양수의 시기 구분에 동의한다. 김육동이 실천시를 쓰며 민중시로 잠시 회귀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회귀라기보다는 자연으로 귀의하기 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며, 4기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려 그의 시는 다시 크나큰 질적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제4기의 시는 김병연이 50대에 들어 죽을 때까지 썼다는 것으로, 들을 수도 읽을 수도 없으며 따라서 전하지도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을 의식하고 시를 써 왔지만 마지막 4기에 이르러서는 타자를 의식하지 않으며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여 시를 쓰게 된다.

김병연이 공리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을 거부하고 오로지 그 자체로서 존재이유를 지니는, 예술로서의 시를 중시하는 단계가 바로 4기이다. 그가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 데는 스물 다섯살 때 금강산 초입에서 만난 취옹의 영향이 크다. 취옹과의 만남은 생애에 두 번으로 첫 번째는 한 일탈자일 뿐이었던 스물 다섯 젊은 날에 있었다. 젊은 날 주막에서 취옹과 처음 만나 시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취옹이 친숙한 목소리로 김병연에게 ‘자네에게 시는 무엇인가?’라고 묻게 된다. 그 물음에 대해 김병연은, 시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잘못을 던지시 꼬집는’ 도구이며, ‘부부의 법도를 밝히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게 하고, 인륜을 두터이 하며, 교화를 아름답게 하는’ 수단이고, ‘그 비유로써 다른 비슷한 것을 미루어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 풍속의 성하고 쇠함을 살피고, 서로 그 안에 모여 품성을 갈고 닦으며, 또한 그것으로 윗사람의 다스림이 그릇됨을 나무라는 그 무엇’ (p. 146)이라고 답한다. 김병연의 생각을 들은 취옹은 시가 충성을 드러내고 효도를 드러내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분별을 드러내고 재주를 드러내고 학식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냐고 되묻자, 그럼 시는 어떤 것이냐고 취옹에게 김병연이 되묻고 취옹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제 값어치로 홀로 우뚝한 시. 치자(治者)에게 빌붙지 않아도 되고 학문에 주눅이 들 필요도 없다. 가진 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못 가진 자의 증오를 겁낼 필요도 없다. 율음의 자로써만 재려 해서도 안 되고 참의 저울로만 달려 해서도 안 된다. 홀로 갖추었고, 홀로 넉넉하다. (p.146)

시로 인해 벼슬도 생기지 않고 공명도 오지 않고 재물도 얻어지지 않으나 홀로

갖추었고, 홀로 넉넉한 것이 시의 가치라고 말하는 취옹에게서 ‘한 인간의 얼굴에서 몇 십에 걸쳐야 볼 수 있는 변화를 그 길지 않은 동안에 늙은이의 얼굴에서 보았다는 느낌’을 김병연이 받는다. 그리하여 그 신비감으로 취옹에게 그렇다면 시인은 시 그 자체밖에 얻지 못하지 않냐고 묻자 취옹은,

“시를 얻음이 바로 큰 얻음일 수 있지.”

“그 큰 얻음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를 자유(自由)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무얼 말합니까?”

<중략>

“몸은 시를 얻어 어떻게 자유하게 됩니까?”

“그 그윽한 경지에 이르면 몸은 사로잡혀 있는 형체에서 벗어나고 갇혀 있는 시간에서 벗어나며 묶여 있는 공간에서도 벗어난다.”(p.150)

시를 통해 몸까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시선(詩仙)의 경지에 달한 취옹의 말을 듣던 김병연이 취옹의 시론에 반감을 느끼며, ‘그럼 결국 시는 도(道)입니까?’ 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취옹은 ‘시는 도(道)가 아니다’ 라고 하며 ‘도(道)도 틀림없이 만상의 원뜻을 보기는 하되 그걸 무언가 하나로 바꾸어 보는데, 시는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보며, 시는 또한 세계와 하나가 되려하는 그 무엇’ 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김병연이 참시의 벗이 아닌 듯하다며, 만약 현재의 시관(詩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율분과 한도 함께 할 것이며, 율분과 한을 달랠 수는 있겠지만 종당에는 시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충고한다.

선뜻 취옹의 시론(詩論)에 동의하지 못했던 김병연은 주막에서 묵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금강산 계곡의 자그만 바위에 걸터앉아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떠내려 오는 계곡물을 바라보고 있는 취옹에게 다가가다가 전율을 느낀다. 그 후 김병연은 시의 실제적 효용이나 도구적 기능에 대한 시론(詩論)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옹을 만난 다음부터 조금씩 그의 예술관, 시(詩) 그 자체만으로 충족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참다운 시인은 모든 걸 떨쳐 버린 자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비록 취옹을 젊은 날에 한번 만나고 헤어졌지만 그에게 시심(詩心)의 고향 같은 사람으로 간직되고, 그로부터 이십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외금강에서 두 사람은 재회를 한다. 그들은 오래 그리워한 벗들처럼 사흘 낮 사흘 밤을 시에 대한 이야기로 보내게 된다. 그때 김병연은 그저 아득하게만 들리던 취옹의 시에 자신의 시가 그토록 가까이 다가가 있음에 놀란다. 그는 새삼스런 겸손으로 귀를 기울여 노시인의 예술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예술가로 완성된다.

취옹과 두 번째 만남 이후 그의 시가 마지막으로 이른 단계는 말과 글 이외의 것을 통해 추출할 수밖에 없다고 작가는 말한다. ‘쌍방행위로서의 시작(詩作)이 끝나자 그는 이미 세상에서는 시인이 아닌 게 되고, 그의 시가 자기 목적성을 가지게 되자 시인으로서의 드러남도 끝나, 아무도 그의 만년을 주시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의 둘째 아들인 익균을 통해 <참시인>에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나 샷갓을 벗고 망연히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게 그대로 그만한 바위 같았다.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 원래 그 자리에 있어 퍼렇게 이끼까지 낀. 아마도 주위의 경물과 너무도 잘 조화를 이루어 (p.239) 어둠 속에서 희끗희끗 떨어져 가는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시인일 뿐이었다. 세상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시인일 뿐이었다. (p.244)

『시인』에 등장하는 취옹이나 만년의 김병연의 예술에 대한 생각은 이문열의 예술관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 자체로서 분명한 존재이유와 자기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취옹과 김병연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예술이 예술외적인 어떤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이문열은 이 소설에서 시란

과연 무엇이며,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시는 그 자체가 어떠한 쓰임과도 관계없는, 스스로 자유와 충만을 주는 자족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설이란 과연 무엇이며, 소설가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대체하여 해석할 수 있겠다. 『시인』에서 김병연이 삶의 궤적에 따라 시적 변모를 겪으며 마침내 <참시인>에 도달한 것처럼, 이문열의 문학관 역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모 양상을 보이는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자체로서 분명한 존재이유와 자기 목적성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임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울분과 한을 풀어낼 길 없는 외로운 영혼이 예술(소설)로 지고한 곳에 다다르고자 하는 자기완성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2. 문체적 특성

문체<sup>175)</sup>가 곧 작가라는 말이 있듯 이문열의 문체는 현대소설사에서 거론될 만큼 특징적인 면이 있다. 그의 소설에는 리얼리티의 추구보다는 관념적인 것, 즉 ‘낭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작가는 독특한 창작 스타일과 자신만의 문체를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문체적 특징은 감성적이면서 지적이며, 유장(悠長)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잘 읽히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다. 또한 그의 문장은 논리적이고 표현이 정확하다. 감성적인 문체는 그의 낭만성향과 함께 작가의 문장훈련에서 비롯되었고, 지적인 문체는 한학을 기초로 한 그의 유가교양의 학문적 수양과 독서, 그리고 그의 문학관의 하나인 교양주의와 관계가 깊다. 또한 유장하면서도 지

---

175) 문체(文體)란 ①글의 체재(體裁). 작자의 사상이나 개성이 문장의 어구(語句)나 조사(措辭) 등에 나타나 있는 전체의 특색. ②문장의 양식. 구어체(口語體)·문어체·논문체·서한체·서사체 등. ③한문의 형식, 논변(論辨)·서발(序跋)·주의(奏議)·서설(書說)·칙령(勅令)·비지(碑誌)·잡기(雜記)등.(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루하지 않고 잘 읽히는 것은 그가 율문의 활용과 의고체를 구사함으로 얻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로는 다양한 소재와 격자소설, 다양한 시점의 활용, 독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기법, 즉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나가는 독특한 창작 스타일로 독자들을 몰입시킨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이문열의 문체적 특징을 1) 유가 교양과 현학적 문체 2) 율문과 의고체 3) 유미적 미문체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유가 교양과 현학적 문체

이문열의 소설을 읽으면 한학공부를 깊이 있게 한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이문열이 유가교양체험으로 한학의 기초를 습득하고, 한문서책을 즐겨 읽었으며 현재도 통독<sup>176)</sup>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한문서책 중에서도 『사서삼경』, 『당음(唐音)』, 『고문진보(古文眞寶)』, 『문심조룡(文心雕龍)』을 탐독하였으며 특히 『논어(論語)』를 많이 읽는다고 한다. 그가 한학을 한 결과 언어 활용이 여타 작가의 그것과 변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명하거나 강요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가르

---

176) 실제로 이문열은 <부악문원>(경기도 이천소재)을 건립하여 문학창작을 위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아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부악문원>의 교육과정 중 『사서삼경』, 『논어』, 『맹자』, 『플라톤』, 『성경』 등 동서고전을 강독하고 토론하는 과목이 있다. 이는 창작에 있어 기초 학문과 수양이 중요하다는 작가의 내면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문열은 ‘퇴계가 도산서원으로 은퇴해 필생의 역작을 저술했듯이 고향에 돌아가 서원과 서당의 중간형태로 같이 숙식하며 전인적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속내를 피력한 바 있는데 실제로 부악문원 내 그의 집필실 벽면에는 대형 도산서원 사진이 걸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악문원’을 서원의 현대적 재현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다. 문학사숙을 운영하는 이문열의 면모에서 문사(文士)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문사란, 글쓰기를 통해 사회적 실천가치를 포괄하고자 하는 전인적 지식인을 뜻한다. 문사로서의 이문열은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에 충실하고자 하는 동시에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의식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침들이 작품을 통해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보다 그가 창조해낸 관념적이고 복고적인 인물들이 우리의 현실적 삶을 돌아보게 하며 구체적인 반성을 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양반정신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성향으로 발전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훌륭한 민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에 대한 존중, 예술에 대한 사랑과 이해, 엄격한 도덕률, 청빈과 지조, 매운 얼 그리고 자존심과 긍지 - 그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sup>177)</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작가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양반정신이라는 것이다. 학문에 대한 존중과 예술에 대한 사랑과 이해, 엄격한 도덕률, 청빈과 지조, 이러한 면면은 작가가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의 고향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sup>178)</sup>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림대는 고향을 상기하게 하는 상징물으로써, 선비로서의 지조를 지키던 화자인 ‘나(현우)’의 조상과 이조시대의 왕이 백여 년 만에 화해를 이룬 바위로 일문의 성역처럼 되어 버린 장소이자, 그 곳을 보호하기 위해 식민지 치하에서 일인과 용감하게 싸워 승리한 조상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다. 어림대를 통하여 추억하는 고향이란 조선조의 잔영이 남아 있는 곳이며, 주자주의에 기초한 정치 제

---

177)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192.

178) 이 소설은 1980년에 발표되었다가 몇 개의 각편을 추가하여 출간된 소설로 책의 표제에서는 작가가 장편소설이라고 밝히지만 실제로 이 작품은 연작소설이라고 하는 편이 옳다. 이유는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각 편들이 ‘나’가 주인공이자 화자라는 점을 제외하면 줄거리의 일관성과 소설적 구조의 연관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도와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다. 그런데 견고했던 고향(문중)의 모습은 근대화와 더불어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그 실상이 도회지 생활을 하면서 신식 교육을 받은 나의 눈에 여과없이 포착된다.

이 소설의 나레이터인 나(현우)는 시대가 변화하는데도 도회로 나가 새로운 삶을 모색하지 않고 구습에 젖어 있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한다. 「암포신문인협회」라는 신문사를 차려놓고 사이비 기자로 전락한 문중의 여러 형제들과, 「분호난장기」에서 통대선거에서 추잡한 선거 운동 속에서 이진투구(泥田鬪狗)하는 문중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양반정신을 아쉬워한다.

진정한 고향을 가졌던 마지막 세대인 나(현우)에게 있어 고향이란, ‘한 번 뜻을 세우면 오직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이 받아 주지 않으면 때를 기다리는 자세, 눈앞의 작은 이익에 미혹되어 큰 뜻을 버리고 매문(賣文)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 문중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의식, 바로 선비정신을 길러준 곳이다. 그 중에서도 선비의 지사적(志士的) 의식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지사’란 늘 뿔뿔한 마음으로 예의를 중시하고 도를 실천하는 인격적 주체로 현실에서 빛어지는 갈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발견해내는 삶의 태도를 가진 지성인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지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우환의식(憂患意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질서를 제시하며 그 시대이념을 실천하는 자로서 지조를 목숨처럼 여기는 실천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와같이 시대이념을 실천하는 지사적인 삶은 유가교양과 관계가 깊다.

나이가 들자 송일은 문하를 열고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저술에도 적잖이 힘을 쏟았다. <중략> 시문을 즐겨하지는 않았으나 약간이 있는데 조탁(彫琢)해서 만든 것이 아닌 만큼 충담(冲淡)하고 소창(疎暢)해서 속기(俗氣)가 없다.

하지만 송일도 세사(世事)에 무심하지만은 않았다. 포의민초(布衣民草)라 해서 나라의 안위에 등한할 수 없다 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소(疏)를 올렸는데...<sup>179)</sup>

---

179)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p.192.

『선택』에 나오는 장씨 부인의 일곱 아들 모두 학문과 행검으로 이름을 얻어 선비로는 모자람이 없었다. 특히 위의 승일은 서른셋에 천봉을 당하자 석보로 돌아가 집을 짓고 당호를 항재(恒齋)라 하고 부친인 석계 이시명이 두 바위 언덕에 세심대(洗心臺)와 낙기대(樂飢臺)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손수 글씨를 쓰고 바위에 새겼다.<sup>180)</sup> 그리고 따로 광록정(廣麓亭)을 지어 학문에 전념하면서 후학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위에 등한시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소(疏)를 올리며 정의실현에 참여했다.

이러한 작가의 우환의식은 그의 소설 『고향』에 나오는 정산선생의 행보로도 드러난다. 작가가 ‘교리 어른은 우리들 옛고향의 마지막 할아버지나 아니었을까.’라고 회고하는 정산선생은 일제가 놓으려는 철도에 의해 고향 어귀에 위치한 어립대가 손상당하지 않게 하려고 일본인에 대항하여 어립대를 지켰던 교리어른이다. 그는 주인공에게 한문을 가르쳤던 스승으로 작가가 되려는 제자의 행동을 매문(賣文)이라고 호통을 치며 ‘군자불기(君子不器)’를 말씀하신 분이다.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에 맞섰고 왕정복고를 위해 싸웠던 정산선생은 선비의 지사적 면모를 지닌 인물로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문열의 유가교양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현학성(pedantry)이다. 현학성이란 작가가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특수한 개념이나 어휘들을 사용하거나, 어려운 외래어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학성을 글로 표현함에 드러나는 문체를 ‘현학적 문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현학적이면 어렵게 느껴져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문열의 소설은 잘 읽혀지고 재미가 있다. 현학적인데도 쉽게 읽혀지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이유로 한 연구자는 ‘설화성의 획득’<sup>181)</sup> 즉 이야기성을 예로 든다. 우리 소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비문학, 눈으로 읽혀지는 소설이 아니

180) 이수영, 『좌해유고(佐海遺稿)』, 이문열 편, 뿌리문화연구원, 1996.( 洗心樂飢二臺 卽我石溪先生所嘗命名 而題字刻石 乃恒齋先生手澤也)

181) 송성욱, 「이문열의 고향의식과 사대부 정신」, 살림, 1993, p.54.

라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그것의 뿌리는 설화이다. 이렇듯 이문열의 소설을 읽다보면 현학적이지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감으로써 독자와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막연한 거부감을 제거시키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독자들은 이문열 소설에 몰입하게 되고 그 결과, 작품에서 만나는 생경한 단어나 한자어 사용의 경우도 작가가 관념적 혹은 추상적인 것을 언어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소외(疎外)에서 벗어난 노동의 기쁨, 필요의 충족에서 오는 만족감, 완전한 자유와 평등의 성취가 가져온 인간존엄의 회복, 자아의 주체적 실현<중략> 마침내는 그 비정한 동료들로부터 생존조차 위협받게 된 낙오자의 악담으로만 듣지 마라. 자유는 복종과 동의어(同義語)였으며, 평등은 가난과 천박에서만 실현되어 있었다. 소유와 축적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기(利己)의 맥빠진 얼굴들, 여러 가지로 변명되고는 있지만 약속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게 실현된 천년 왕국에 대한 감추어진 비웃음<중략> 마침내는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필연성과 공산낙원의 도래(到來)를 미끼로 인민을 현혹하여 폭리를 취한 거짓 예언자의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 어떻게 단언하겠는가<sup>182)</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소외, 인간존엄, 자아, 주체적 실현, 비정, 낙오자, 소유, 축적, 이기, 변명, 프롤레타리아혁명, 필연성, 공산낙원, 도래, 현혹, 예언자, 단언, 등과 같이 그리 길지 않은 단락임에도 낯설면서 지적인 냄새가 나는, 현학적인 어휘가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가의 글쓰기 기질이 기본적으로 현학성을 지향하는 쪽에 있고 관념유희의 심리적 태도가 언어유희인 현학적 문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학성과 관련하여 이문열이 한학에 대한 식견이 상당한 수준임을 그의 소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서삼경과 제자백가로부터의 인용, 고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한시 등을 적절하게 차용하여 작품의 질적 완성도를 높였는데, 이는 한학에 대한 소

---

182) 이문열, 『영웅시대』, 민음사, 1984, p.586.

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학성은 작가가 작품을 창조하는 고도의 기법에 속하는 것으로 작가는 현학성을 작품 내에 실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교양체험과 동시에 진지하게 책을 읽는 고급독자, 즉 일정한 수준의 독자층을 형성하게 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읽고 어떠한 경향의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글을 수용하는 독자층의 욕구가 무엇일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하고 창작에 임하는데, 그 중에 현학성을 염두에 둔다는 사실을 문학관에서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예술에 있어서 현학성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거나 대리만족을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독자들이 현학성을 기대하고 소설을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현학적인 경향이 지나치면 외면하기도 한다. 작가는 이 점을 인지하고 현학성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소설을 전개시켜 작품에 몰입하게 하면서 작가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만족감을 가지게 한다.

또한 현학적 문체의 특성으로 작가의 ‘아는 체 하기’<sup>183)</sup>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교양체험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작가가 다양한 영역의 지식<sup>184)</sup>을 작품 속에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지식을 획득하고 해석에 몰두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면은 독자로 하여금 책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문장도 현학적 문체의 일부로, 논리적이고 정확한 문장을 쓰게 된 배경을 작가가 문단에 데뷔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매달렸던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어휘 하나, 문장 하나에 따라 법률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정확한 문장을 쓰고 논리

---

183) 이문열이 여러 작품에서 보여주는 해박한 전문 지식은 독서와 체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작품의 소재와 관련하여 이문열은 ‘작가란 모든 것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작은 조물주이고, 그래서 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진지진 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난 뒤에 내 얘기를 시작하리라’고 밝히고 있다.(『사색』, p.112.)

184)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작품 내에 표현하는 것을 두고 ‘백과사전적’이라고 하는데 최명희의 소설 『혼불』을 두고 적용하는 예가 많다.

를 정연하게 전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가 현학적인 지식들을 작품을 통해 어떻게 구현하는가는 작품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독자에게 어떻게 수용되는가 역시 중요하다. 작품 내에서의 현학적인 지식은 작가의 지적 욕구와 학구적 성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창작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 탐구의 변용을 모색한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은 작가의 유가교양에서 비롯되며, 작품창작의 바탕이 된다. 실제로 많은 시간을 책읽기에 투자한다고 작가가 밝힌 바 있듯이, 작품의 현학성과 관련한 작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 2) 율문과 의고체

이문열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체로 율문의 활용과 의고체<sup>185)</sup>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쉽게 읽히면서도 흡인력 있는 문장은 율문의 활용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장을 해체해 보면 문장 내에서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3, 4음보 혹은 5언이나 7언으로 구성된 율문의 활용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학을 한 것, 그 중에서도 한시를 통한 문장 훈련을 한 것이 작가에게 율문의 활용과 의고체 등의, 문장 표현 방식으로 녹아들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로인해 그의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적절한 호흡을 주어 지루함을 못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호흡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해야 그가 왜 그토록 아름다운 문체를 선호하고 정교한 소설을 지속적으로 창작해 왔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문열은 한시(漢詩)를 통해 율격과 서정성을 체득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율격과 서정성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그의 초기 소설 「그해 겨울」을 들 수

---

185) 「황제를 위하여」, 『선택』과 같은 소설이 이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국한문 혼용체라고 일컫는 의고풍(擬古風)의 문체를 여기서의 의고체라고 쓴다. 의고체의 문장의 특징은 장엄하며 설득력이 있으며 계몽적인 성격이 강하다.

있다. 이 소설은 대학생화에 절망한 주인공이 대학을 중퇴한 후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동경을 가슴에 품고 험한 세상을 방황한 여정을 거친 후에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미문체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젊은 날의 이문열임을 암시하는 주인공이 눈 덮인 창수령을 방황하는 대목을 그린 장면은 압도적이다.

그 눈 덮인 봉우리의 장려함, 푸르름하게 그늘진 골짜기의 신비를 나는 잊지 못한다. 무겁게 쌓인 눈 때문에 가지가 찢겨 버린 직송, 그 처절한 아름다움을 나는 잊지 못한다. 눈 녹은 물로 햇살에 번쩍이던 참나무 줄기의 역세고 당당한 모습, 섬세한 가지 위에 핀 설화로 면사포를 쓴 신부처럼 서 있던 낙송들의 우아한 자태도 나는 잊지 못한다. 도전적이고 오만하던 노간주나무조차도 자그마하고 겸손하게 서 있던가<sup>186)</sup>

아아, 나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았다. 창수령을 넘는 동안의 세 시간을 나는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세계의 어떤 지방 어느 봉우리에서도 나는 지금의 감동을 다시 느끼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완성된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바로 거기서 보았다. 오, 그 아름다워서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숭고하고 아름다워서 신성하던 그 모든 것을.<sup>187)</sup>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세상에 절망해서 동해안의 산촌을 혼자서 방황하던 주인공은 눈이 덮인 창수령을 보면서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실체를 접하는 체험을 한다. 눈에 선한 장면을 회상하는 구절에 대해 작가는 다소 감정의 과장이 개입되어 있다고 고백하지만, 이 작품은 산문이라기보다는 시(詩)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시적인 표현이다’ 함은 3-3조, 4-4조, 3-4조, 7-5조 등의 음수율을 가진 글체<sup>188)</sup>를 말한다. 그리고 첫째 인용문 첫문장을 예로 보면

186) 이문열, 「그해 겨울」, 『젊은날의 초상』, 민음사, 1987, pp.178-179.

187) 앞의 책 p.178.

188) 이에 대해 작가는 ‘우리가 그 이전에 빌려 쓰던 한문처럼 중세의 한글에는 사성(四聲)이 있었다. 어느 시기까지는 운(韻)도 살아 있어 우리말도 음악성(音樂聲)이

음보가 4- 4- 3 , 5 - 3 -4 -4 -3 - 4- 3.으로 이루어져 있어 묵독을 하거나 음독을 하게 될 경우 율격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작가는 문체와 관련하여 한 대담에서 자신의 작품 가운데 산문시나 정형시를 닮고 있다고 밝히며, 산문에도 리듬이 필요하고 어감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89)</sup>

작가라면 누구나 자기 문장에 유려함이나 유연성을 주고 싶어하는데, 산문에도 정형성이나 음수율을 적용하면 문장이 유려해집니다. 내 문장에서 유려하다 싶은 곳을 행같이 하면 산문시가 되거나 정형시가 나오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음수율로 우선 흔한 게 3-4조, 7-5조 정도이고 기분에 따라서는 12-8조도 반복하면 적은 노력으로 쉽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sup>190)</sup>

이러한 음수율을 적용함으로써 산문이지만 시로 얻을 수 있는 율격을 느끼게 한다. 특히 긴 문장이 이어질 경우 중간에 나누어 쉽표처리 하여 호흡을 멈추게 함으로써 시적 감정을 상승시킴과 아울러 독자로 하여금 빨라지는 템포를 늦추게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시조의 3-4음보, 가사의 4-4음보의 율격규칙과 한시의 5언, 7언 등의 형식이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율문의 가장 기저단위라 할 수 있는 음보를 중심으로 한 율격양식은 작품이라는 완성된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 진술방식으로, 이러한 율격은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규칙이요 질서로서 규칙과 질서는 이탈을 억제하는 통제력을

---

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조는 사라지고 운도 각운(脚韻)정도가 시에서 드물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오직 자수율(字數律) 혹은 음수율(音數律)만 온전히 살아남아 우리말의 음악성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며 자신의 글이 유려한 것은 음수율의 활용, 즉 율문의 활용에 있음을 밝힌다.(이문열, 「한국소설과 동아시아적 서사양식」, 『신들메를 고쳐매며』, 문이당, 2004, p.202)

189) '저는 지금도 독자들에게 제 글이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읽히길 기대할 때는 리듬에 맞추어서 씁니다. <중략> 산문에는 리듬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이는 틀린 말입니다. 또 어감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중희, 「문학의 외길로, 지천명의 언덕을 넘어」, 『문학의 숲과 나무』, 민음사, 2002, p.278.)

190) 이문열·이순원 대담, 「이문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작가세계》 창간호 (1989년 여름), pp.39-40.

가지고 있다. 그 통제 범위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의 미, 이것이 문체의 미(美)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율문의 활용을 이문열은 소설에 적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진술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미적효과까지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의고체 사용도 작가의 고도의 진술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의고체는 의고주의(擬古主義) 또는 고문체(古文體)라고도 하는데, 고어나 사어(死語) 또는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어구들을 문학에서 어떤 특별한 수사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어르신네는 확실히 하늘이 내신 분입니다. 천명(天命)을 받으신 왕자(王者)이십니다. 그러나 어르신네의 왕토와 백성은 어르신네의 밝고 어지신 마음 속의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부디 혼탁한 세상과 간악한 그 백성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역시 저희 같은 무리에게 맡기시고 조용히 흔들머리에 머무시어 마음 속의 크고 거룩한 왕국을 가꾸십시오.<sup>191)</sup>

의고체는 한문 번역문체와도 관련이 있는데 『두시언해』나 『소학언해』처럼 언해류가 형성한 한문 번역문체를 이문열은 현대소설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마우이, 석담. 그것만이면 족하네. 가르치는 일은 근심 말게. 이놈의 세상이 어찌될지 모르니 가르친들 무얼 가르치겠나? 성명 삼자는 이미 깨우쳐 주었으니 일단은 그것으로 되었네.<sup>192)</sup>

가루라(迦樓羅)의다. 머리에는 여의주가 박혀 있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며 용을 잡아먹는다는 상상의 거조(巨鳥)요. 수미산 사해(四海)에 사는데 불법수호팔부중(佛法守護八部衆)의 다섯째로, 금시조(金翅鳥) 또는 묘시조(妙翅鳥)라고 불리기도 하오<sup>193)</sup>.

---

191)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고려원, 1994, p.234.

192) 이문열, 「금시조」, 『이문열중단편전집 2』, 아침나라, 2001, p.92.

193) 「금시조」, 앞의 책, p.132.

곡산(谷山)에 이르거든 성수(金聖秀)에게 전해라. 저는 이미 우리 김문(金門)의  
외거노비(外居奴婢)가 아니라 어엿한 양민이 되었다고. 그곳의 땅도 모두 우리 것  
이 아니고 저의 것이라고. 그라고 또 일러다오, 이 두 아이를 기르는 일을 너무 짐  
스러워하지 말하고. 어떻게든 목숨만 이어 나로 하여금 대(代)를 끊은 죄만 면하  
게 해준다면 더는 바라 게 없다.<sup>194)</sup>

수국춘색(水國春色)이 홀등반상(忽登盤上)하니 향미담래(香味啖來)에 가득소병  
(可得蘇病)이라 하면 어떨는지요?<sup>195)</sup>

승리를 흠치는 것은 소인배나 간웅(奸雄)의 할 것이요, 떳떳한 군자의 도리는 아  
닐 것 같소. 더군다나 적은 겨우 십여명, 하물며 기습을 하겠오. 나는 송양공(宋襄  
公)의 인의(仁義)를 배워 이 골짜기에 뼈를 묻을 지언정 승리를 도적질하는 패도  
(霸道)를 배우지는 않겠오<sup>196)</sup>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오, ~외다, 성명삼자(姓名三字), 하오, 김문  
(金門), 외거노비, 양민 등과 같이 고어나 사어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들은 현실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언어지만 작품 내에서 이용하면 위에  
서 언급했듯이 특수한 수사적 효과, 즉 장중하거나 우아한 느낌, 때로는 권위  
적인 느낌의 효과를 준다. 이렇듯 『황제를 위하여』, 「금시조」, 「장려했느  
니 그 낙일」, 『선택』 등의 작품은 내용을 떠나 문체적 특징으로 문학사적  
의의가 있으니 바로 의고체 때문이다. 혹자는 의고풍 만연체 문장이라고 하는  
데<sup>197)</sup>, 의고체가 만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문번역문체이기 때문이다.  
언해류가 형성한 한문번역문들을 보면 문장이 긴 편이다. 이러한 문체는 ‘과장  
되어 있으되 장엄하고, 장엄하되 설득력이 있다<sup>198)</sup>’는 평가를 받는다. 이문열은

194) 이문열, 『시인』, 동지, 1994, p.22.

195)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p.143.

196)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고려원, 1994, p.234.

197) 주승택, 「이문열과 선비정신」, 『선비정신과 안동문학』, 이회문화사, 2002, p.213.

198) 김현, 「베끼기의 문학적 의미」, 『제2세대한국문학』 제24권 이문열편, 삼성출판사,  
1983, p.213.

인상주의적 관점에서 거론되는 유교의식을 가진 작가라는 이미지와 함께 율문의 활용과 의고체를 적절히 사용하여 특징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 3) 유미적 미문체

문체와 관련해서 작가는 견해<sup>199)</sup>를 밝힌 바도 있듯, 이문열은 문장의 아름다움에 대해 공을 많이 들이는 작가다. 그가 미문의식을 가진 작가임을 그의 소설을 통해 감지되는 글체와 함께 그가 즐겨 사용하는 어휘,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작가의 낭만성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양식으로 미문을 구사하는데, 그의 글을 읽게 되면 어떤 관념적인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바로 낭만성을 문체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좋은 문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라고 한다.<sup>200)</sup>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 작가는 『당음(唐音)』, 『고문진보(古文眞寶)』<sup>201)</sup>, 『문심조룡(文心雕

---

199) 글이 아름답다는 것과 비유를 많이 쓴다는 걸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은유법이나 의인법의 남발은 산문을 어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사색』, p.138.) 혼하지 않은 방식으로 써야한다. 글이 지루하고 답답해지는 것은 대개 무언가 흔해빠진 방식을 답습했기 때문이다. 문장의 구조든 어휘든 운율이든 서술방식이든... (『사색』, p.139) 감탄사와 느낌표, 그리고 말없음표는 색깔로 치면 보라색쯤 될까. 너무 자주 쓰면 천박하게 보인다(『사색』, p.139)

200) 작가는 어려서부터 읽은 내용이나 생각들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일기쓰기는 작가의 정신을 키우기도 했거니와 문장훈련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잉크>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원고지 12장을 쓰다만 적이 있는데, 많은 말보다 글틀을 갖춰 효과적으로 기술하여 문장으로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혼자서 문장훈련을 했다고 한다. (녹취, 2004. 6. 2. 이천소재 부악문원)

201) 주(周)나라 때부터 송(宋)나라 때에 이르는 고시(古詩)·고문(古文)의 주옥편(珠玉篇)을 모아 엮은 책. ‘영어공용화론(共用化論)이 나올 만큼 인구어(印歐語) 중심으로 문학이 재편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고색장연한 중국의 고전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문장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龍)』 202)을 외우다시피 공부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미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가 소설의 주제와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수사법과 상징적인 표현을 들 수 있다. 같거나 비슷한 단어나 어절 또는 구와 절, 문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방법인 반복법은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리듬을 고르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가령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면을 병렬적으로 기술하면서 잊지 못한다, 잊지 못하리라, 하는 표현처럼 잊지 못함을 강조하여 독자의 심금을 건드리는 효과를 얻는다.

그리고 이문열 소설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은유와 직유법과 같은 비유의 언어 표현을 들 수 있다. ‘봄날 산허리를 스쳐가는 구름 그늘처럼, 또는 여름날 소나기가 씻어간 들판처럼, 가을 계곡의 물처럼, 눈 그친 후에 트인 겨울 하늘처럼 유유하고 신선하고 맑고, 고요하면서도 또한 권태롭고 쓸쓸하고 적막한 석담 선생의 삶은 그에게는 언제나 까닭 모를 동경인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었다.’ (『금시조』, p.18) 이렇듯 은유와 직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인상을 강렬하게 해주며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문장에 변화미를 부여하는 효과와 함께 감각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작가의 감수성은 작가의 세계인식과 관련되며, 나아가 이미지는 서사적 전개마저 대신함’<sup>203)</sup>을 이문열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작가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사실과 인물과의 관계에서 신변적 사실을 소설화 한 내용이 많은 만큼 언어처리의 방법에 있어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표

---

알고 싶은 이에게는 이 책이 반드시 무용하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이문열, 『아직도 보배로운 글들』, 『신들메를 고쳐매며』, 문이당, 2004, p.99)

202) 10권 50편으로 된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된 시문(詩文) 평서로서, 전반 25편에서는 문학의 근본원리를 논술하고, 각 문체(文體)에 관한 문체론을 폈다. 후반 25편에서는 문장 작법과 창작론에 관하여 논술하였다. 전체가 사륙변려체의 미문(美文)으로 씌었으며, 문학이란 내용이 충실해야 하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꽃피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며, 당시 내용은 없고 기교에만 치우친 미문 위주의 경향을 비판하였다.

203)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p.51.

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작가가 아름다운 문장을 위해 즐겨 쓰는 기교 중에 대구법을 들 수 있다.

내가 거드랑이의 털이 떨어지고 넓적다리의 살이 빠지도록 세상을 뛰어다닌 것은 어찌면 돌아옴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봄에 띄우는 귀거래사(歸去來辭)」, p.215)

돌이켜 보면 그러잖아도 자욱한 세상 티끌에 내 티끌을 보태었고, 억머구리 끓듯 하는 저잣거리의 소란에 내 소란을 더했을 뿐인 서른 해였다.

(「이 봄에 띄우는 귀거래사(歸去來辭)」, p.215)

창밖에는 봄이 완연하다. 뒤란 산수유는 이미 활짝 피었고 뜰 앞 매화도 병글었다. 내 이제 머지않아 얇은 배움과 비루하고 속된 성품에서 비롯된 죄를 세상에 자복(自服)하고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너그러운 처분을 빌려고 하거니와, 돌아갈 고향에 봄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이 봄에 띄우는 귀거래사(歸去來辭)」, p.216)

옷목에 잘 개어진 이불이 한 채, 수예 견본인 듯한 책자가 땡그라니 놓인 얇은 뽕이책상, 맞은편 벽에 들꽃 한 묶음, 그리고 그냥 길러 뒤로 묶은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린 그 애가 호롱불에 호젓이 비껴 앉은 모습은.(「폐원」 중)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장려와 우아가, 또 무슨 자욱한 안개처럼 서린 우수나 애상 같은 것들과 함께 저항할 수 없는 견인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었다. 여름이면 홍란, 백작약이 만발한 앞뒤 화원과 부용이 떠 있는 연못, 지금 베어진 서실(書室) 앞의 아름답드리 향나무며 그 앞 푸른 이끼 낀 바위 - 그곳에 여름 저녁 그애와 나는 가끔씩 걸터앉았다 - 같은 것들에 그러한 장려와 우아가 있었으며, 잠시만 침묵해도 이내 회복돼 버리는 무거운 정적과 그을음 낀 회벽, 그리고 기다림

으로 이십 년래 한 번도 잠긴 적이 없는 대문 같은 것들에 그런 우수와 애상이 서려 있었다.(「폐원」 중)

내 일찍이 학문에 뜻 두었으나 게으르고 둔해 성취가 크지 못했고, 속된 진취(進就)를 꿈꾸었으나 그마저 불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입신(立身)에 겨우 몸을 둔 곳이 허울이 좋아 문단(文壇)이요 이름이 그럴듯해 문사(文士)이나, 실은 저자거리 에 설익고 잠된 글을 내다 파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입술을 말고 혀를 비틀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문장을 꼬고 이로(理路)를 비틀어 세상 눈치를 살폈다.

(「술단지과 잔을 끌어당기며」 중)

위의 글들을 보면 구나 문장 안에서 내용이나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이 대구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대구법에 대해 작가는 ‘우리의 전통 산문에서 중요한 기교 중에 하나는 대구법이다. 좁은 의미의 대구법은 한 쌍의 상반되는 개념들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의미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넓게는 한 개념을 같은 문장 구조에 어휘만 달리해 나란히 늘어놓거나 강조의 형태로 덧붙이는 일종의 대조 혹은 병렬과 점증(漸增)의 대구 활용도 포함된다.’<sup>204)</sup>고 밝히는데 위의 예문에서처럼 대구법을 작품 내에 절묘하게 사용하는 것은 작가의 미문의식을 드러낸 증거이자, 감성적인 묘사와 언어유희를 통해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정감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함께 거둬볼 수 있다.

이외에도 어조도 낭만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한몫한다고 할 수 있다. ‘어조란 흔히 툇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의 느낌 또는 특징적인 감정을 염두에 둔 말로, 특징적인 감정의 결정체를 표현한 문장은 주제와 직결되는<sup>205)</sup> 것으로, 이문열에게 있어 어조는 미문의식과 함께 낭만성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

204) 이문열, 「한국소설과 동아시아적 서사 양식」, 『신들메를 고쳐매며』, 문이당, 2004, p.203.

205) 송하춘, 「표현과 문장」, 『발견으로서의 소설기법』, 현대문학, 1993, p.236.

술 취해 지나가는 옛 여인의 집이여.  
눈물 흐를까 고개 짓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선 슬픔이여.  
언 문고리에 손길 되어 머물다.

위의 짧은 시는 작가가 대학생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기 전에 술기운을 빌어 헤어진 여자의 집을 찾아간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작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한시를 번역한 듯한 어조와 율문의 활용이 특징적이다. 눈물 흐를까 고개를 짓히는 화자의 행동에서 이별의 아픔과 옛 여인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 느껴진다. ‘사람을 향한 절실한 그리움, 정결하고 따뜻한 그리움은 이 세계를 순화시키는 크나큰 계기로 작용한다.’<sup>206)</sup> 소중한 무엇을 가졌다가 잃었을 때 가지게 되는 허전함과 절실한 그리움, 이와 유사한 감정들이 작가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미문의 글체로 그의 작품에 표출됨을 알 수 있다.

그때 삶은 희망으로 밝았으며 세상은 기쁨으로 빛났었다. 놀이와 꿈 속에서 내 유년(幼年)은 꽃피었고, 바로 그 꽃그늘에서 그 뒤 내 삶을 이끌어줄 모든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자랐다.<중략> 거기에는 세월의 비바람이 바래지지 않을 첫사랑이 있으며 더러는 오늘까지 벗으로 남고 더러는 기억의 어둠 속에서만 반짝이긴 해도 또한 이 한 살이(生)가 끝날 때까지는 결코 잊혀질 리 없는 코흘리개 동무들이 있다. ( 「아름다움의 이데아」, 『사색』, p.45)

위의 글에는 제목인 <아름다움의 이데아> 의 내용을 상징하는 어휘들이 나열되어 있다. 희망, 기쁨, 빛났다, 꿈, 유년, 꽃그늘, 아름다움, 이데아, 세월, 첫사랑, 벗, 기억, 동무, 이러한 어휘는 위의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순수했던 시절을 추억하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서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낯설거나 혹은 세련된 어휘의 선택은 독자들에게 서정적인 감정을 자아내게 하면서 인물의 성향을 드러내려는 의도

---

206) 한영옥, 『한국현대시의 의식탐구』, 새미, 1999, p.26.

와 함께 작가의 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눈 덮인 봉우리의 장려함, 푸르스름하게 그림자진 골짜기의 신비를 나는 잊지 못한다. 무겁게 쌓인 눈 때문에 가지가 찢겨 버린 적송(赤松), 그 처절한 아름다움을 나는 잊지 못한다. 눈 녹은 물로 햇살에 번쩍이던 참나무 줄기의 억세고 당당한 모습, 섬세한 가지 위에 핀 설화(雪花)로 면사포를 쓴 신부처럼 서 있던 낙엽송의 우아한 자태도 나는 잊지 못한다.(「그해 겨울」중)

작가가 세 시간동안 눈 덮인 창수령을 넘으면서 경험한, 아름다워서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숭고하고 아름다워서 신성하였다고 회고하는 장면 중 하나다. 푸르스름하게 그림자진 골짜기의 신비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찢긴 상태로 눈을 덮고 있는 적송이 머리 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눈 덮인 봉우리의 장려함, 골짜기의 신비, 처절한 아름다움, 설화로 면사포를 쓴 신부, 낙엽송의 우아한 자태 - 이렇듯 세련된 어휘와 어조를 통해 작가의 낭만성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문열 소설을 읽을 때 만나는 어휘 중에 인상적인 것을 들면 <신산스런> <까닭모를> <원인 모를> <근거 없는> <운명> <살이> <유적> <외로움> <허망함> <절망> <숙명> <안개> <갈대> <피로> 등은 그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작품까지 자주 되풀이되어 나오는 단어<sup>207)</sup>로, 내면을 상징할 때 차용하는 언어로써 독자들에게 친숙한 어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다소 낯설고 세련<sup>208)</sup>된 어조, 특히 <신산스런>, <까닭모를>, <살이>, <절망>, <숙명>, <바다> 와 같은 단어는 소설 속의 인물들의 인생관과 삶의 행로와 관련

207) 특정한 낱말이나 문구,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모티프(motif)라고 한다.

모티프는 한 작품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작가, 한 장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신산스런>, <까닭모를>, <절망> 과 같은 단어는 이문열의 소설 작품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다.

208) 여기에서 세련된 어휘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느끼는 평범하지 않은, 다르게 표현해서 지적하다는 다소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이 깊으며, 밝음보다는 어둡고 절망적인 존재를 부각시키며, 문장의 맛을 자아내는 효과를 얻는다. 이는 이문열이 작품의 완성을 위해 얼마나 문체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존재하는 그 어떤 관념적인 것, 낭만성을 드러내고자 사용한 작가의 문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이문열은 넓고 깊은 큰 문학을 이미 일구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작가적 역량을 발휘하며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문열이 현존하고 있는 작가이고 왕성하게 창작을 하고 있어 작품세계가 변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실정에서 기존에 발표된 평문들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이문열의 작품에 관류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낭만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우선 ‘낭만성’의 의미를 낭만주의 문예사조가 반계몽주의 입장에서 등장하여 이성 중심적이고 도식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주체의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낭만성’의 특징으로, 현실에 대한 주관적 자아의 부정적 현실 인식과 부정적 현실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인 세계, 환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해 가는 주관적 자아의 행보를 들 수 있다.

작가의 낭만성을 도출하기 위해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역사·전기적 문학연구 방법과 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 방법이 창작의 배경과 가치평가를 혼동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독자의 수용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하나, 작가의 의식을 형성시킨 모태공간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여 작가의 가계와 생애를 역사·전기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의 문학관을 살펴보았다. 이는 작가의 세계관, 즉 잠재적이건 표면적이건 작가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가계와 생애, 그리고 문학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해서 작가의 의식을 유추해낼 수 있으며, 그러한 의식이 작품으로 투영됨으로 이문열 문학을 관류하는 낭만성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문열은 작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억압에 맞서는 자유의 추구를 든 바 있는데, 이문열 문학의 낭만성은 이와 깊이 관련된 것이다. 이문열은 틀

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한 방법으로 개성이나 인간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중시 한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문열 소설 속의 주관적 자아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나 외부세계의 압력과 통제에 언제나 가로막힌다. 세계와 자아의 불화,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화와 갈등의 상황을 넘어서고자 하는 지향성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이문열 문학의 낭만성을 형성한다. 이문열에게 있어 낭만성은 현실 도피가 아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내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이문열의 낭만성의 연원을 아버지의 부재와 보상심리, 선민의식과 사회적 불화, 그리고 고아의식과 ‘먼 곳’에 대한 동경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문열이 여타 작가와 변별되는 것은 그의 성장환경과 관계가 깊은데 재령 이씨 명문가 후손이며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연좌제가 폐지된 이후까지 그와 주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살며 온갖 가치박탈을 체험하게 된다. 극도의 가난 속에서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으며, 체제의 감시 속에서 늘 공포감을 안고 살아야 했고 정상적인 학업을 잇지 못하였다. 명문가 후손으로서 선민의식이 있는 작가는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독서와 독학으로 학문을 수양하고, 아버지로 인해 몰락한 집안을 회복하기 위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등, 현실을 도피하기보다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가 그토록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부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고아적인 상황과 상처뿐인 영혼의 보상심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요소들이 이문열에게 낭만적 성향을 가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문열 소설의 낭만적 양상을 소설의 주제적 특성과 문체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문열 소설의 주제적 특성으로 낭만성과 관련하여 이상주의적 열정과 휴머니즘, 가부장의식과 현모양처의 삶, 예술과 자기완성의 삶으

로 나누고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작품들의 집중 분석을 통해 살폈다. 먼저 이상주의적 열정과 휴머니즘은 작가와 작가의 가족들을 오랫동안 압박해온 사회적 문단적 현실에 대한 입장을 월북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형상화 하여 표명한 것이다.

이문열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1980년대는 ‘민족 민중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대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된 80년대 중반에, 사회 변혁의 물결에 동참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당시의 지배 이념인 사회적 리얼리즘에 충실한 작품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문열은 반이데올로기적 노선을 드러낸 『영웅시대』를 통해 보수주의로 돌아선다. 연좌제의 처절한 비극 속에서, 공포와 죄의식과 제도의 압박을 들끓처럼 씩씩하게 견뎌내고 지명도 높은 소설가로 입신한 당시의 이문열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러한 입장은 문단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문열에게 있어 반이데올로기적 행보는 변혁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기득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요인을 소설 『시인』의 주인공 김병연의 행보와 작가의 삶의 궤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김병연이 대역죄인의 자손으로 평생을 변민 속에서 시를 읊으며 떠돈 삶과, 작가 이문열이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에 입당하고 월북한 대가로 억압 받으며 잦은 이사와 우여곡절 끝에 소설가로 살게 된 삶은 유사하다. 김병연은 신분회복을 위해 지방의 백일장에 장원을 하나, ‘할아버지는 임금을 팔아 비루한 목숨을 사더니 자손은 이제 그 할아버지를 팔아 영달을 사기에 바빠한다’는 노진의 말을 들은 후 일탈의 길을 걷는다. 김병연이 아무런 가책없이 일상에 안주하여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했다면 아마도 그는 신분을 회복하였을 것이며, 사회 지배층인 관리가 되어 권력과 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배 체제와 가장과 자식으로서의 책무로부터 일탈하여 자유를 선택하여 시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한다. 이와 달리 이문열은 이상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월북을 하였지만 결국 휴머니즘을 지향하였던 아버지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보수주의자로 돌아선다.

다음으로 이문열 소설 『선택』에 드러나는 가부장의식과 현모양처의 삶을

살펴보았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양상보다는 한 집안 혹은 한 가문의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양상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나 자족적인 삶보다는 가문의 영광과 집안의 영속적인 번영을 존재하는 여인들의 인고의 삶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이문열은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다. 작가의 가부장의식은 유교이념과 재령 이씨 가풍(家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택』은 페미니즘 소설이 주류를 이루던 시점에 이문열이 발표한 작품으로 이문열의 13대 할머니 정부인 안동 장씨의 인생을 모델로 쓴, 작가의 가부장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을 통해 현대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여인상을 역사 속에서 발굴하려던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켜 발간과 동시에 한동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유교양을 쌓은 작가 이문열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내에 한정시키며 여성을 타자화했다는 비난을 비껴가지는 못하지만, 여성운동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어야 논란 속에서도 작가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전하려 한 메시지는 삼불후(三不朽 - 立德垂後, 立言垂後, 立功垂後)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머니와 아내의 관심이 자녀와 가장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현모양처의 삶을 통한 여성의 성취를 강조한 것이다. 이 소설은 작품성을 떠나 전업주부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절묘하게 포착하고 굽어주면서 유행처럼 일어나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의식을 정부인 장씨를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작가는 여성운동이 활발했던 시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모양처의 삶을 강조한 것이다.

이문열의 낭만적 지향의식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예술적 초월의식을 들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와의 조화를 상실한 예술가는 자신의 내적 기준에 의해 고유의 생활형태 혹은 개성적 자아의 대표가 되며, 이러한 예술가 고유의 생

활형태는 예술가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한편 예술의 사회적 소외 혹은 예술과 삶의 대립과 분리를 의미한다.

그런 결과로 예술가는 예술과 삶의 거리를 인식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분리’ 혹은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낭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낭만주적 예술의 형식과 내용은 절대적 내면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술가의 탈현실과 예술적 초월의식을 소설 「들소」, 「금시조」, 『시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들소」에서 주인공은 나약하고 예술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무기에 그림을 새겨 넣는 기능공으로 살다가 자신만의 선과 색채로 소를 잡고 싶은 미적 욕구를 느끼게 되고, 자신만의 선과 색채로 소를 잡기 위해 가족들을 남겨두고 ‘신비의 동굴’로 돌아간다. 그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지 못하고 동굴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에서 뿌리내리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뜻하며, 진정한 예술가는 생활과 예술을 병행할 수 없는, 예술가의 기질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가는 「들소」 예술의 효용적 혹은 도구적 기능보다는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기능을 강조하며, 또한 예술적인 인간에게는 사회적·정치적 가치와는 독립된 스스로의 가치가 있으며, 예술은 자기목적적이고 자기완성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즉 예술에게는 예술의 몫이 있고, 그것은 다른 가치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데, 이러한 주장은 작가의 낭만성이 예술적 초월의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예술가의 개성과 예술가의 자기 완성적 삶에 대한 것은 『금시조』에서도 드러난다. 한 노서화가 고죽이 죽음을 직면하여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삶을 정리한 다음 눈을 감기까지, 즉, 한 소년이 대서예가인 석담의 문하에 들어가 고행과도 같은 수련기간과 갈등과 방황 끝에 비로소 예술가로서 자기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로, 새로운 예술관을 드러낸 것이다. 새로운 예

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죽의 서화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물화(物畵)와 심화(心畵)의 구분이다. 물화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거기다가 사람의 정의(情意)를 더하는 것이고 심화란 사람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물을 빌어오되 그것을 정의에 맞추어 가감하고 변형시키는 것이다.

예술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죽은 추사에게서 물려받은 스승 석담의 예술관에 따를 수가 없었는데 이는 작가 이문열의 예술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죽이 죽음에 이르러 미적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금시조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자 염원하나 끝내 그 새를 보지 못하고 실패만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서화를 불태워 버리는 순간에서야 타오르는 서화더미의 불길 속에서 날아오른 금시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죽에게 있어 예술의 완성이었던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작가의 예술관은, 서화를 모두 불태우는 순간 금시조를 보게 된다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가는 참다운 아름다움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닌, 인간은 다만 미적 성취를 위해 실패를 거듭하며 도전할 뿐이며, 무한히 도전하는 열정이야말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예술가에게 있어 자기 성취요, 자기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가의 개성과 예술가의 초월의식은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투영된 『시인』에서도 드러난다. 반이데올로기와 보수주의를 살피면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 김병연이 대역죄인의 자손으로 평생을 빈민 속에서 시를 읊으며 떠돈 삶과, 작가 이문열이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에 입당하고 월북한 대가로 억압 받으며 잦은 이사와 우여곡절 끝에 소설가로 살게 된 삶의 궤적은 유사하다.

『시인』에 등장하는 취옹이나 만년의 김병연의 예술에 대한 생각은 이문열의 예술관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공리적·실용적인 도구나 수단인 아닌, 그 자체로서 분명한 존재이유와 자기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취옹과 김병연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예술이 예술외적인 어떤 가치에 종속되

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이문열은 이 소설에서 시란 과연 무엇이며,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시는 그 자체가 어떠한 쓰임과도 관계없는, 스스로 자유와 충만을 주는 자족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실생활에서는 울분과 한을 풀어낼 길 없는 외로운 영혼이 예술(시)로 지고한 곳에 다다르고자 하는, 예술적 초월의식을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문열의 문체는 현대소설사에서 거론될 만큼 특징적인 면이 있다. 그의 소설에는 리얼리티의 추구보다는 관념적인 것, 즉 ‘낭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작가는 치밀한 묘사와 자신만의 문체를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이문열의 문체적 특징을 1) 유가 교양과 현학적 문체 2) 율문과 의고체, 3) 유미적 미문체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문열의 유가교양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현학성(pedantry)이다. 현학성이란 작가가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특수한 개념, 어휘들을 사용하거나, 어려운 외래어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학성을 글로 표현함에 드러나는 문체를 ‘현학적 문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학적이면 어렵게 느껴져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그의 소설은 잘 읽혀진다. 그 이유로 현학적이지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감으로써 독자와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막연한 거부감을 제거시키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이문열 소설의 또다른 문체로 율문의 활용과 의고체를 들 수 있다. 그의 문장을 해체해 보면 문장 내에서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3, 4음보 혹은 5언이나 7언으로 구성된 율문의 활용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학을 한 것, 그 중에서도 한시를 통한 문장 훈련을 한 것이 작가에게 율문의 활용과 의고체 등의, 문장 표현 방식으로 녹아들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로인해 그의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적절한 호흡을 주어 지루함을 못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호흡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듯 음수율을 적용함으로써 산문이지만 시로 얻을 수 있는 율격을 느끼게 한다. 특히 긴 문장이 이어질 경우 중간에 나누어 쉼표처리 하여 호흡을 멈추게 함으로써 시적 감정을 상승시킴과 아울러 독자로 하여금 빨라지는 템포를 늦추게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시조의 3-4음보, 가사의 4-4음보의 율격규칙과 한시의 5언, 7언 등의 형식이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의고체 사용도 작가의 고도의 진술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의고체는 의고주의(擬古主義) 또는 고문체(古文體)라고도 하는데, 고어나 사어(死語) 또는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어구들을 문학에서 어떤 특별한 수사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문열은 문장의 아름다움에 특히 관심이 많은 작가이다. 그가 미문의식을 가진 작가임을 그의 소설을 통해 감지되는 글체와 함께 그가 즐겨 사용하는 어휘, 그리고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작가의 낭만성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양식으로 미문을 구사하는데, 그의 글을 읽게 되면 어떤 관념적인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바로 낭만성을 문체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소설사에서 작가 이문열의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소설의 다원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문열은 ‘민족 민중운동’으로 대표되는 운동의 문화, 이념의 문화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시대의 큰 흐름이었던 리얼리즘 세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획일적이고 과감한 명제에 맞서는 반론을 제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현실에서 이문열은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종교, 예술의 문제, 근대화 과정과 생활의 변화에 대한 것, 등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어 기존의 경직된 문학의 틀을 깨고 문학의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설 기법 차원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문열은 문체와 플롯, 다양한 시점을 소설 내에서 구사함으로써 소설의 창작 스타일을

혁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문체적 특징을 보면 유가교양과 현학적 문체, 율문의 활용과 의고체, 미문의식과 서정성을 담은 유미적 미문체,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장의식으로 공을 들여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이문열만의 스타일을 드러내게 된다. 기존의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소설적 경향과는 달리, 그의 소설에는 리얼리티의 추구보다는 낭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문열만의 독특한 문체를 통해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플롯의 경우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격자소설과 갈등구조의 반전기법,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작품의 성격에 적합한 시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문열의 특징적인 소설 기법이다.

소설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꾼 것도 이문열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소설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었다는 의미는 일반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의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문열의 소설은 상식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넓고 깊은 지식을 담고 있어 독자들을 풍부한 교양체험의 길로 이끈다. 종교와 신학, 군대생활, 노동자들의 삶, 고아원의 생활, 감옥생활, 알타미라 벽화, 예술의 세계 등 그야말로 다양한 소재를 취했으며, 다양한 소재 못지않게 그 소재에 대한 추구하고 해석의 깊이를 확보하였다. 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교육과 정치수준 등 전반적인 사회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문열은 문학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다.

이데올로기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겪는 다양한 가치갈등, 그리고 산재한 온갖 부조리,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과 그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문열은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므로 이문열 소설을 읽고 분석한다는 것은 작가의 독특한 인생체험의 소산인 소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로서 현실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반추하고 이겨내며, 작가의 지향의식에 기대어 한 번뿐인 인생임으로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실존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이문열, 『사람의 아들』, 민음사, 1981.
- 이문열, 『그 찬란한 여명』 2권, 심설당, 1982.
- 이문열, 「금시조」, 『어둠의 그늘』, 안암문화사, 1978.
- 이문열, 『영웅시대』 上下. 민음사, 1984.
- 이문열. 『칼레파 타 칼라』, 나남, 1985.
- 이문열, 『이문열 중단편집 1, 2, 3, 4, 5』, 열린책들, 1987.
-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민음사, 1987.
-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권, 고려원, 1987.
- 이문열, 『레테의 연가』, 중앙일보사, 1987.
- 이문열, 「들소」, 『필론의 돼지』, 열림원, 1989.
- 이문열, 「익명의 섬」, 문학사상사, 1988.
- 이문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자유문화사, 1989.
- 이문열, 『시인』, 둥지, 1994.
- 이문열, 『오디세이아 서울』, 민음사, 1991.
-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 이문열, 『변경』, 전12권. 문학과지성사. 1995.
- 이문열, 중편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민음사, 1993.
- 이문열, 『미로의 날들』, 둥지, 1993.
- 이문열,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문이당, 1993.
- 이문열, 『아우와의 만남』, 둥지, 1994.
- 이문열,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민음사, 1996.
-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이문열, 『전야, 혹은 시대의 마지막 밤』, 이수, 1998.

이문열, 『아가』, 민음사, 2000.

이문열, 『신들메를 고쳐매며』, 문이당, 2004.

## 2. 단행본

강진호, 『탈분단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5.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 바흐친의 문학기론』, 문학과지성사, 1988.

김옥동, 『이문열』, 민음사, 1994.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2.

김종희, 『문학의 숲과 나무』, 민음사, 2002.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책세상, 2001.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리몬-캐넌, 『소설의 시학』, 문학사상사, 1994.

박철희·김희태, 『문예비평론』, 문학과비평사, 1988.

송하춘, 『발견으로서의 소설기법』, 현대문학, 1993.

우리어문학회, 『한국문학과 낭만성』, 국학자료원, 2002.

이남호, 『이문열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994.

이동하, 『집 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이상우, 『현대소설론』, 양문각, 1995.

이선영, 『문예사조사』, 민음사, 1986.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이태동 편, 『이문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 1981.

장남준, 『독일 낭만주의 연구』, 나남출판사, 1989.

- 장양수, 『한국예술가 소설론고』, 한올아카데미, 1998.
- 정현기, 『한국소설의 이론』, 솔, 1997.
- 정호웅, 『반영과 지향』, 세계사, 1995.
- 최동호, 『새로운 비평 논리를 찾아서』, 나남, 1990.
- 최상규, 『현대비평론』, 형설출판사, 1986.
- 최유찬, 『리얼리즘이론과 실제비평』, 두리, 1992.
- 최유찬, 『문예사조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5.
- 최혜실, 『한국모더니즘 소설연구』, 민지사, 1992.
- 한영옥, 『한국현대시의 의식탐구』, 새미, 1999.
- 한완상, 『민중과 사회』, 종로서적, 1980.
- 홍문표, 『한국문학과 이데올로기』, 양문각, 1995.

### 3. 연구논문(평문)

- 곽광수, 「사랑과 배리 : 기독교적 비극성」, 『사람의 아들』, 민음사, 1981.
- 구모룡, 「난폭한 세계와 비껴섬의 의미」, 『구체적 삶과 형성기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8.
- 권성우, 「이문열론-세계관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대학신문, 1985. 12. 12
- 권성우, 「작가에 보내는 편지」, 『비평의 매혹』, 문학과지성사, 1993.
- 권순궁, 「중세 보편주의에의 향수와 신식민주의의 망론」, 《문학의 시대 4집》, 인동, 1988.
- 권영민, 「개인적 운명 또는 삶의 선택」, 《세계의 문학》, 1995년 5월호.
- 권영민, 「탐색의 과정, 그 소설의 미학」, 『젊은 날의 초상』, 민음사, 1981.
- 김 현, 「베끼기 문학의 의미」, 이태동 편, 『이문열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 김경수, 「변두리 역사의 소설화」, 《작가 세계》, 1989년 여름호.
- 김경수, 「부조리한 세계와 소설의 주인공」, 삼인행 편집부 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 김명인, 「한 허무주의자의 길 찾기」, 『이문열』 류철균 편, 살림, 1993.
- 김병익, 「지식인됨의 고민」, 『들린 시대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5.
- 김영, 「황석영 이문열 소설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5.
- 김윤식, 「길 잘못 든 속인의 사상 비판」, 『우리 문학과 비평』, 문예출판사, 1988.
- 김일렬, 「중세적 예도 사상과 근대 예술 정신」,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 김태준, 「이문열 중·장편 소설 연구」, 안양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류준필, 「개인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 류철균, 「이문열 문학의 전통성과 현실주의」,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 박일용, 「관념적 보수주의 이념의 서사적 구현」,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 방민호, 「리얼리즘의 비판적 재인식」, 『비평의 도그마를 넘어』, 창작과 비평사, 2000.
- 서영채, 「소설의 열림, 이야기의 닫힘」,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 서재길, 「1920-30년대 한국 예술가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성민엽, 「개인과 자유를 향한 열망」, 삼인행편집부 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 성민엽, 「이념 비판과 이념 혐오」, 『지성과 실천』, 문학과지성사, 1985.
- 송성욱, 「이문열의 고향 의식과 사대부 정신」, 류철균 편, 『이문열』, 살림, 1993.
- 신동욱, 「시대의식과 서사적 자아의 실현문제」, 이태동 편, 『이문열론』,

-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 안건혁, 「이념에 찢긴 이문열 가족사 - 이문열과 자전소설 『영웅시대』, 《政經文化》, 1984, 12.
- 유중호 「능란한 이야기 솜씨와 관념적 경향」, 삼인행편집부 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 유중호, 「도상의 문학」,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 유중호, 「어느 시인의 초상」, 이태동 편, 『이문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 윤광옥, 「이문열 소설의 회고적 구성 연구」, 동덕여대 여성개발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윤병로, 「민족 문학의 모색」, 삼인행 편집부 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 이남호, 「낭만이 거부된 세계의 원형적 모습」, 『문학의 위족 2』, 민음사, 1990.
- 이동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 『집없는 시대의 문학』, 정음사, 1985.
- 이동하, 「이문열에 관한 두 편의 글」, 『우리 소설과 구도 정신』, 문예출판사, 1989.
- 이명재, 「귀향을 위한 만가」, 삼인행편집부 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 이명희, 「이문열 소설의 순응주의적 성격」, 동의대학교 석사논문, 2003. 8
- 이순원, 「이문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작가세계』, 세계사, 여름호.
- 이우용, 「『젊은 날의 초상』에서 『변경』까지:이문열 비판」, 『베스트셀러 우리 시대의 잘 팔리는 책들』, 시대평론, 1990.
- 이인숙, 「이문열 소설 『선택』에 나타난 여성관 연구」,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이재선, 「휴머니즘의 힘과 이데올로기의 힘」, 『현대 한국 소설사』, 민음사, 1991.

- 이재선, 「현대소설의 자아 탐색」, 《소설과 사상》, 1994년 여름호.
- 이재선, 「휴머니즘의 힘과 이데올로기의 힘」, 『현대 한국 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 이태동, 「맹목과 수사학의 비밀 : 이문열 『시인』의 경우」, 『우리 문학의 현실과 이상』, 문예출판사, 1994.
- 이태동, 「비극과 비장미」, 『우리 문학의 현실과 이상』, 문예출판사, 1993.
- 이태동, 「절망과 현상학」, 『한국 현대소설의 위장』, 문예출판사, 1985.
- 장양수, 「역사의식 결여와 민중 모독- 이문열의 중편 ‘칼레파타칼라의 경우」, 『한국문학전집 제14집』, 1993.
- 정지아, 「이문열론 - 작가의 현실인식의 틀을 중심으로」, 중앙대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정호웅, 「관념편향적 창작 방법의 한계」, 『반영과 지향』, 세계사, 1995.
- 조기연, 「이문열의 변경(邊境) 연구」,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조남현, 「소설 공간의 확대와 사상의 실험」, 삼인행편집부 편, 『이문열론』, 삼인행, 1991.
- 조영일, 「한국근대교양소설 연구 - 이문열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주승택, 「이문열론-이문열과 신비정신」, 『한국 현대작가 연구』, 민음사, 1989.
- 최혜실, 「순환사관과 상동관계로서의 병렬법 ; 이문열론」, 『전남대어문논총』, 전남대학교, 1994.

# ABSTRACT

## Research of Yi Munyol's Novels

- emphasizing its romantic characteristic-

**Kim, Mi Ok**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eal the romantic feeling in Yi Munyol's novels. Based upon the existing studi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omantic feeling' that runs through the entirety of his work, but has not yet been analyzed in this light.

The term 'romantic feeling' comes from a trend in literature called 'romanticism'. This is a spiritual movement aimed at interpreting the world and granting its significance in an individual's own subjectivity. It also acknowledges his or her freedom and subjective creativity - contrary to the objective and reason-centered character of neoclassicism.

The aspect and character of the 'romantic feeling' with Yi Munyol can be found in the experience of suppression opposite to freedom. He has revealed this to be his utmost concern, and this spirit is evidence of his existentialist attitude toward life. He places more stress on the individuality's identity than on anything else, by rejecting the cut-and-dried, and instead leading a meaningful life. The subjective ego in

his novel, which may be another side of himself, tries to live with meaning. But, external pressure and control causes the ego to recognize reality negatively. To defy such a negative reality leads the subjective ego to distress and conflict with others. The writer allows the values to seep through his works - the fetters of reality by means of prevailing this obstacle of negative reality, existential uneasiness, and despair. So, Yi Munyol's romantic feeling is a means of overcoming the negative reality and surviving, not fleeing from it.

The method of this research begins historically with his family line and life. Then, his viewpoint of literature and world of his works are examined. In these areas, one can look at various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his consciousness leads to find an analogy of his inside. Then, analysis of his works can disclose the real romantic feeling running through Yi Munyol's literature as such consciousness is reflected in his work.

It is considered that he got his romantic feeling from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the absence of his father, elitism and its accompanying social discord, the effects of being an orphan, and yearning for the 'far away'. The writer, as a descendant of a distinguished family, trained himself through reading, as he was not afforded a normal education. In addition, he prepared for a judicial examination. This was all with the goal of restoring his ruined family. These examples demonstrate how he groped for ways to overcome reality rather than flee from it. Being driven to the point of having nothing more to lose, what he wanted deep inside began to come out and raise his romantic inclination.

There are two aspects of romance in his work, which can be labelled 'thematic' and 'stylish'. The thematic character is then subdivided into

idealistic passion, humanism, Confucianism, and the life of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rt, and the life of self-fulfillment.

At first, his idealistic passion and humanism may have been said to express, through novels, his attitude toward the reality of both the society and literary circles which had suppressed him and his family for a long time. This is a critical factor in understanding his romantic character. Furthermore, these could be said to disclose his desire to overcome his negative reality and look for a new life.

In the 1980's, he formally became part of the literary circles. This was an era dominated by the cultures of movement and ideology representing 'the nation and the people movement'. Yi Munyol turned to conservatism in his work of 『Era of the Hero』, definitely expressing anti-ideology and betraying the anticipation that he would pour out works faithful to social realism, the dominant ideology at that time. Such an attitude was enough to provoke waves from the literary circles. In spite of his status, the fact that he defiantly overcame fear, guilt, and the suppression of the system, he became an eminent novelist amidst the extreme tragedy of the involved system. His anti-ideological step may be interpreted as fear to lose vested rights as a result of reform, but the radical factor for this could be analogized through the life of Kim Beongyon, the hero of 『The Poet』. Kim, a descendant of high treason, had wandered reciting poems in agony till death in a way similar to that of the writer Yi. He was forced to move occasionally because of his father's being a communist and eventually went over to the north to live the life of a novelist after many ups and downs. If Kim had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and adapted himself to the dominant ideology at that time, he would have found relief in ordinary life and restored his social

position. He even would have become a ruling official with power and wealth. But he chose to depart from the ruling system and the responsibility of being the head of a family and instead seek freedom and end his life as a poet.

The backgrounds are comparable throughout the analysis of his work. Unlike Kim, Yi, a writer, turned to conservatism speaking about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losing his father. More importantly, he reconciled with this reality on the inside.

Next, the senses of both the patriarch and the good wife and mother, as seen in his novel 『The Choice』 were reviewed. Patriarchal society pays attention on the level of the family or kinship rather than to the individual. Yi was a writer with such a sense of Confucian patriarchy. This sense could be said to come from Confucianism and the family tradition of Jaeryong Yi. In traditional patriarchy, the family maintains a status system, namely that the female is subject to the male. There is no other way for females but to only be an alienated existence to the dominant male. Although the time has changed, it is still the reality that women can stretch their own ambition only as far as they agree with their male kin and maintain the family life.

『The Choice』, which Yi released at the time when feminist novels were main stream, is a novel that reveals his sense of patriarchy from the viewpoint of a good wife and mother. In fact, he modeled it after the life of his 13th grandmother, Madam Jang from Andong. Contrary to his intention to excavate an historical woman as an example for modern women, it caused controversy and argument as soon as it was published. It discussed both the life of a good wife and mother and the consciousness of Yi, who tried to criticize feminism and reveal what's the real role of

women is.

After reviewing his artistic side and self-fulfilling life as disclosed in his novels, focus is placed on his artist novels 『Vison』, 『Keumsicho』, and 『The Poet』. His romantic view of life is considered especially evident in these artistic novels. To see how art and his self-fulfilling life are displayed leads to an easy understanding of the romantic feeling which is the base of his literature. His artistic novels reveal that art itself has a definite reason for existence – it is an object in and of itself, and not a utilitarian nor pragmatic tool or means. This is in agreement with his assertion that art has its own absolute value, which is not subject to any one other than the artist. Along with this, in 『The Poet』, he asked the questions of what poem really is and who a poet really is. He answers that a poem is a self-satisfying thing which brings freedom and fulfillment regardless of its use. This could be an analogy for what Yi believes a novel to be. A novel, to him, is an expression of art. It is the romantic sense of a lonely soul whose wrath and grudges are not removable. This yields art in the form of the novel. It has been commonly known that consciousness to live a self-fulfilling life is shown through novels.

The stylish character of his novels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romance-oriented literary world. This could, in his novel, be called the abstract 'romantic feeling' rather than the pursuit of reality. The writer reveals this through detailed descriptions and the use of style, which is sensitive, intellectual, well read, lengthy and engaging. In addition, his writing is quite logical and accurate.

In this research, I have looked at his stylish character as it is subdivided into 1) Confucian education and pedantry style 2) writing with rhythm and classicism and 3) an esthetic flowery style.

The reason why his works are labelled as pedantic is because of his extensive reading across several genres, experience of preparing for the judicial examination, the rules and lyricism he learned and memorized while learning the rhythm of the Tang. These shaped his writing in ways involving rhythm, classicism, and a flowery style.

To read and analyze his novels in the light of existential living would nowadays be an existential experience for any human being. One sh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negativism in life and overcome it. And through the novels, his unique life experience should prove to be an example for all readers.

Key Words: deprivation of value, romantic feeling, ideology, humanism, patriarchy, life of self-fulfillment.

## 부 록

### 작품 연보

- 1977년 「나자레를 아십니까」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 가작
- 1979년 「塞下曲」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사람의 아들』 (작품집) 민음사  
「들소」 《세계의문학》 가을호  
「心筋, 그리하여 막히다」 《한국문학》 4월호  
「孟春仲夏」 《문예중앙》 가을호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소설문학》 10월호  
「상처」 《한국문학》 10월호  
「그해 겨울」 《문학사상》 12월호
- 1980년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장편소설) 민음사  
『그해 겨울』 (작품집) 민음사  
「귀향을 위한 영가」 《문예중앙》 봄호  
「어둠의 그늘」 《한국문학》 3월호  
「필론의 돼지」 《작가1》  
「달팽이의 外出」 《문학사상》 10월호  
「沖積世, 그후」 《월간조선》 4월호  
「糞胡亂場記」 《현대문학》 8월호  
「이 황량한 驛에서」 《세계의문학》 겨울호  
「제쳐논 노래」 《세계의문학》 가을호
- 1981년 『젊은날의 초상』 (장편소설) 민음사  
『어둠의 그늘』 (작품집) 문학예술사  
「河口」 《한국문학》 5월호  
「우리 기쁜 젊은날」 《세계의문학》 여름호

- 「서늘한 여름」 《문학사상》 7월호  
「사과와 다섯 兵丁」 《작품》  
「알 수 없는 일들」 《한국문학》 11월호  
「金翅鳥」 《현대문학》 12월호
- 1982년 『황제를 위하여』 (장편소설) 동광출판사  
『그 찬란한 여명』 (장편소설) 2권. 심설당  
「匿名의 섬」 《세계의문학》 봄호  
「約束」 《한국문학》 4월호  
「그 歲月은 가도」 《문학사상》 5월호  
「非情의 노래」 《정경문화》 5월호  
『칼레파 타 칼라』 《작가3》  
「過客」 《소설문학》 7월호  
「귀두산에는 낙타가 산다」 《문학사상》 12월호
- 1983년 『레테의 戀歌』 (장편소설) 중앙일보사  
『金翅鳥』 (작품집) 동서문화사  
「타오르는 追憶」 《문학사상》 8월호  
「두 겹의 노래」 《현대문학》 2월호
- 1984년 『英雄時代』 (장편소설) 민음사  
『미로일지』 (장편소설) 소설문학사  
『황제를 위하여』 (재출간) 중앙일보사 출판국  
『달팽이의 外出』 (작품집) 문학예술사  
「장려했느니, 우리 그 낙일」 《문예중앙》 3월호
- 1985년 『칼레파 타 칼라』 (작품집) 나남
- 1986년 『요서지』 (장편소설 『그 찬란한 여명』의 개작) 3권. 성정출판사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개정판) 나남  
『황제를 위하여』 (재출간) 고려원
- 1987년 『사람의 아들』 (장편소설) 민음사

- 『九老 아리랑』 (작품집) 문학과지성사  
『塞下曲』 (중·단편집 1) 열린책들  
『서늘한 여름』 (작품집) 심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英雄」 《세계의문학》 여름호  
「운수 좋은 날」 《문예중앙》 여름호  
「제1차 수복전쟁사」 《월간경향》 5월호  
「九老 아리랑」 《현대문학》 7월호
- 1988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장편소설) 자유문학사  
『귀두산에는 낙타가 산다』 (중·단편집2) 열린책들  
『삼국지』 (평역. 전10권) 민음사  
『匿名의 섬』 (작품집) 문학사상사
- 1989년 『변경』 (연작 장편소설) 제1부 3권. 문학과지성사  
『필론의 돼지』 (작품집) 동아  
『타오르는 追憶』 (작품집) 한겨레  
「將軍과 博士」 대구매일신문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장편소설) 문이당  
프랑스 악트 쉬드에서 단편집 『금시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해겨울』 출간
- 1991년 『詩人』 (장편소설) 미래문학  
『사색』 (산문집) 살림  
『어둠의 그늘』 (작품집, 재출간) 안암문화사  
이탈리아 지윤테 사에서 『금시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해 겨울』 출간
- 1992년 『변경』 (연작 장편소설) 제2부 2권. 문학과지성사  
『시대와의 불화』 (산문집) 자유문학사  
프랑스 악트 쉬드에서 『시인』 출간
- 1993년 『오디세이아 서울』 (장편소설) 2권. 민음사

- 『미로의 날들』 (『미로일지』의 개작) 미래문학  
『詩人』 (개보판) 미래문학  
『우리들의 일그러진 英雄』 (포토로망) 민음사  
『이문열 문학상 수상 작품집』 (작품집) 훈민정음  
이탈리아 지윤테 사에서 『시인』 출간  
네덜란드 말렌호프 사에서 『시인』 출간
- 1994년 『여우사냥』 《세계의문학》 봄호  
『詩人』 (재출간) 등지  
『레테의 歌』 (재출간) 등지  
『성년의 오후』 (장편소설) 동아일보에 연재를 마침  
『수호지』 (평역. 전10권) 민음사  
「아우와의 만남」 《상상》 여름호  
일본 문화정보센터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출간
- 1995년 『세계문학 산책』 (전10권) 살림  
『이집트 기행①』 나남  
『대륙의 恨』 (전5권) 등지  
「달아난 악령」 《동서문학》 겨울호  
콜롬비아 노르마 사에서 『금시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인』 출간  
러시아에서 『금시조』 출간  
중국 학림 출판사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출간
- 1996년 프랑스 악트 쉬드에서 『사람의 아들』 출간  
영국 하빌 출판사에서 『시인』 출간
- 1997년 『선택』 (장편소설) 민음사  
일본 슈에이 사에서 『사람의 아들』 출간  
중국 학림 출판사에서 『사람의 아들』 출간
- 1998년 『변경』 (전12권) 문학과지성사

「하늘 길」 《상상》 봄호

「전야, 혹은 시대의 마지막 밤」 《21세기문학》 봄·여름호

프랑스 악트 쉬드에서 『황제를 위하여』 출간

1999년 일본 고단샤에서 『황제를 위하여』 출간

2000년 『아가』 (장편소설) 민음사

2001년 「김씨의 개인전」 《세계의문학》 여름호

「술단지과 잔을 끌어 당기며」 《현대문학》 10월호

그리스에서 『시인』 출간

미국 하이페리온 사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출간

스페인에서 『시인』 출간

2004년 『신들메를 고쳐매며』 문이당